(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93~794 1982년4월9일(금), 10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April 9 & 10, 1982

RETURN ITEM TO EAST ASIAN LIBRARY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金正一 後繼者추대 안돼

北傀제7차 최고人民會議

黨職개편서 中央人民委員에도 끼지못해

전문가들"후유증 두려워 脫落시킨듯"

〈도꾜- 〉8일 열린 제7차 북괴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추대하지 않아 외부세계를 놀라게했다. 북괴최고인민회의는 만장일치로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으며 그의 아들 김정일은 부수상직은 물론 15명으로 구성된 중앙인민위원회에도 끼지못했다.

북한전문가들은 김일성이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 문제가 후유증을 초래할것을 두려워해 이번 당직개편에서 김정일을 탈락시킨것으로 분석하고있다.

도꾜에서 청취된 중앙통신은 김일성이 앞으로 4년간 더 북한을 통치한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부주석에 김일, 강량욱 그리고 박성철, 그리고 수상에 이종옥이 유임됐다고 보도했다. 김일성은 오는 15일로 70세가 된다.

최기식신부등14명 체포

문화원방화사건관련, 범인은닉혐의

(서울8일=연합) 한국경찰은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 가톨릭 원주교구의 최기식(39)신부를 입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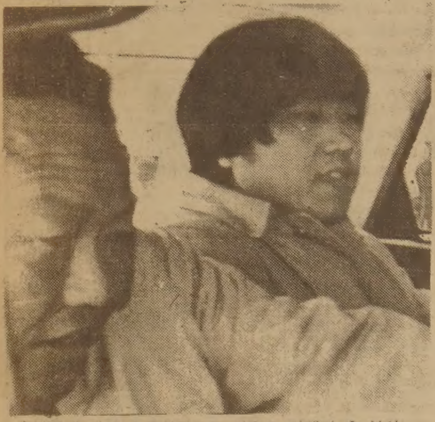
8일새벽 부산에서 경찰에 잡힌 최신부는 방화 범에 은익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고 3년징역혹은 60만원의 벌금형을 치르게 된다.

경찰은 국가 보안법및방화범 은익혐의로 김현장(32)씨를 체포함으로써 지금까지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최신부는 80년5월 광주시민봉기사건의 주모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있던 김현장씨를 원주가톨릭 교육센터에 숨겨주었으며 김이 부산방화사건을 음모했음을 자백한 뒤에 김씨에 돈을 주었다.

최신부는 이밖에 문부식(23), 김은숙(23)등 다른방화사건 주범들에도 그들이 경찰에 자수하기전 까지은익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가톨릭 신부들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루치아노·안젤로니 주한 교황청 대사에 통보했다고 말하고 최근의 사태가 종교활동을 억제할의도는 아니며, 종교자유를계속 보장할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의해 승용차편으로 서울로 연행된 후 부산으로 압송, 구속된 최기식 신부(오른쪽)

◆최기식신부가 봉직하고있는 봉산성당과 나란히 자리잡고있으며 신도는 물론 비신도를 위한 교육도 해온 교육원.

외국 치·의사에 한국면허시험실시

한국정부는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및 치과의 자격자들에게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한국면허를 허가하기 위한 국가시험을 실시한다.

자격은 외국영주권을 가졌어도 아직 한국국적을포기하지않은 이들에 한하며 시험과목은 국사, 관계법규등 3개과목이다.

이 시험은 오는6월5일까지 해외각 공관에서 접수하며 시험은 6월23일 서울 국립보건원에서 실시된다.

토론토지역 신청자들은 토론토총영사관에 접수하면 된다. (598-4608)

중고등부연합회 부활연합예배

토론토 한인기독 중고등학생 연합회(회장 임성찬)는 오는 12일(월)저녁7시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본다.

포크랜드 해상봉쇄 영국해군, 발포경고

(런던=영국)7일밤 포크랜드 군도를 해상봉쇄한영국함대는 오는12일 새벽부터 2백해리 이내에서 발견되는 알젠티나 선박을 격침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발표가 있은 직후 알젠티나 군부는 알젠티나영해및 포크랜드 근해 2백해리 수역을 남대평양 작전지역으로 선포했다.

존·놋 영국국방상은 하원에서"전투지역에서 발견되는 어떤 알젠티나 선박도 공격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알젠티나 동쪽 450 마일지점에있는 영국령 포크랜드 군도는 지난2일 알젠티나군에게 점령됐다.

이섬은 150년전까지는알젠티나 영토였다.

한편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분규중재차7일 런던에 도착했으나 신임 프랜시스·핌외무상은"영국은 빼앗긴 땅을 회복하기까지는독재자들(알젠티나는 군부독재국가)과 유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캐나다해군사령관 존·알렌 부제독은 양국의 전세를 분석, 8일"전쟁이 발발한 경우 양쪽다 사상자가 많을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양국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곤경을 당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사 고◇

주5일 식품점 배달

작년 6월1일부터 일간을 발행, 캐나다 교민사회의새 이정표를 정립한 토론토한국일보사는 신문을 기다리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한시바삐 신문을 보고자 하시는 독자들을위해 지금까지의 주3회 토론토내 한인식품점 배달을 6일부터 주5회 배달로 늘렸읍니다.

다만 미시사가 소재 2개 식품점에는 거리관계상 종전과 같이 주3회 배달이당분간 계속되겠읍니다.

현재 본지를 소매하는식품점은 다음과 같읍니다.

☆주5일 배달처(월~금)
- ●고려식품(680 Bloor St. W. 531-2243)
- ●제일식품(712 Bloor St. W. 532-1054)
- ●서울식품(367 Pitfield Rd. 291-8317)
- ●동양식품(1662 Jane St. 248-5131)
- ●삼복식품(2437 Finch Ave. W. 743-8270)
- ●한국식품 본점(721 Palmerston Ave 532-2961)
- ●한국식품 동부지점(2810 Eglinton Ave. E. 261-6111)
- ●한국식품 서부지점(1054 Albion Rd. 742-7711)

☆주3일 배달처(월, 수, 금)
- ●한밭식품(466 South Service Rd. 274-5401)e274
- ●한국식품 미시사가 지점(257 Dundas E. #1213) 276-0787

—'82 미스코리아 캐나다—
후보 제2호 김선미양
조화 전문, 볼링도 프로급

캐나다미스코리아 정상을 꿈꾸는 후보 제2호는 고교 11년생인 김선미 양(17세).

미녀후보 제2호 김선미양

서울시청에 다년간 근무하다 79년5월 토론토로 이민온 김세중(회사원)씨와 정춘열 여사의 1남7녀중막내딸인 선미양은 대방여중 2년 재학중 이민길에 올라 현재 미시사가의 고교 11학년에 재학중이다.

166cm의 훤칠한 키에 수영과 볼링등 "운동이라면 다 좋아한다"는 선미양의 말대로 스포츠로 다져진몸매가 인상적이다.

드라이·플라워(조화)와 꽃꽂이에 조예가 깊고, 뜨게질에도 능하다.

신체조건은 몸무게 117파운드, 36-24-36.

신청마감 1주연기

토론토한인회(회장 박인순) 주최, 캐라반위원회(위원장 이대환) 주관 제7회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 후보미인 접수 마감일이 연기됐다.

현재 수명의 미녀가 입후보하고 있으나, 좀더 많은 미녀들에게 출전기회를 주기 위해 후보 신청마감을 1주일 연기, 4월17일(토)하오5시로 했다. (17일자 우편소인 찍힌 신청서도 유효)

오늘의 예금금리 3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	
	90일	14.25%	
	180일	14.5%	12.75~1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위니펙 지국장에 도예가 김복연씨

◆김복연 지국장

본사의 신임 위니펙지국장으로 매니토바대학 강사로 있는 도자기공예가 김복연(40)씨가 수고하기로 결정됐다.

캐나다 매니토바 주립대학과 동대학원에서 도자기를 전공했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도자기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씨는 수많은 전시회및 입상의경력을 갖고 있다.

김씨는 무척 바쁜 생활이지만 위니팩교민사회 를 위해 좀더 일할 각오로 무보수 봉사직인 토론토한국일보사 지국장일을 맡는것이라고 말하면서"한편으로 교민사회의 협조 없이는아무일도 할수 없을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김지국장은 앞으로 위니펙지역의 교민행사, 교민관계뉴스 취재, 구독신청및 광고접수등의 업무를담당한다.

지금까지 위니펙 지국장으로 수고한 이주원씨는사업관계로 부득이 사임하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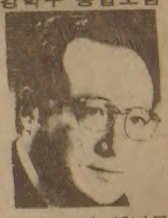
김 지국장의 연락처는 142 Manor House Court, Winnipeg, Manitoba, R2P 0A3 전화(204)632-6578이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PANASONIC, SHARP, N.C.R.
Sweda, Victor, Delta Systems, TEC.

◎판매, 써비스, 렌트
—Same day 써비스
—pick up & 배달
—Paper Rolls
—Free demonstration
Rent on lease with option to buy

◎2년간 보증

252-7377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 × 이슬링톤)
— 하비 햄버거앞 —
가격 $595.00
(2년간보증)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흥미진진할 금년도 프로축구

스포츠시즌이 돌아왔다. 하키와 농구는 겨울내내의 열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축구, 야구등의 여름스포츠가 본격채비를 차리고 있다.

16년전 북미에 도착한 프로축구는 지난 3일의 3게임을 필두로 장장 4개월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16년간 성년이 되도록 하키, 풋볼, 야구등 다른 스포츠에 가려 큰 인기는 없었으나,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은 축구를 「80년대의 스포츠」라고 부른다. 그들은 북미축구(NASL) 참가팀이 줄었으나 축구는 "무궁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미프로 축구팀은 '79년 '80년에는 24개팀까지 확장됐다가, '81년에는 3팀이 줄은 21개팀, 금년에는 14개로 대폭 줄었다.

NASL의 코미셔너 필·우스맨씨는 "금년은 바로 축구발전의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다. 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관중수도 늘어날 것이다."고 말한다.

브리쟈드감독등 팀 대폭개편

뉴욕·코스모스도 볼 수있어

토론토 유일의 프로팀이며 잔존 14개팀의 하나인 블리쟈드의 금년전망은 밝다. 그 이유는 팀·스탠딩보다 북미 최강인 뉴욕·코스모스와 시카고·스팅스, 몬트리얼·매닉팀과 같은 조에 포함되어 경기의 박진감이 더 할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코스모스는 브라질의 축구황제 펠레가 이룩한 팀으로 서독의 명문이다. '81년도 토론토에서 열렸던 사커·보울에서는 시카고와 열전끝에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항상 우승, 준우승을 놓치지 않던 팀이다.

시카고·스팅스는 '81년도 우승을 비롯, 현재 최강의 팀이다. 시카고에는 야구, 풋볼, 하키, 농구등 여러종목의 프로팀이 있으나 축구의 스팅스만 유일하게 우승 근접거리에 있는 프로팀이다.

몬트리얼·매닉은 블리쟈드와 같은 캐나다팀이며 도시규모도 비슷, 항상 라이벌의식을 갖고 있다.

NASL에서는 같은 조 팀끼리는 4번씩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대전하므로 토론토 축구팬들도 코스모스, 스팅스게임을 최소 2번씩은 CNE스타디엄에서 즐길 수 있다.

블리쟈드는 '82년 시즌을 앞두고 영국 프로축구의 명문 리버풀팀의 골게터 데비드·훼어크라우선수를 스카웃하여 팀을 보강했다.

그래도 블리쟈드 최고 인기선수는 자모·사모. 그는 남아프리카 태생으로 뉴욕·코스모스에서 선수생활을 했으며 '80년 블리쟈드에 입단한 이래 골·게터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백넘버 11번을 달은 셔츠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블리쟈드의 신임감독은 밥·휴튼씨. 작년 가을에는 감독없이 코취 뮤너가 이끌었다.

휴튼감독은 스웨덴의 명문이며 '79년 유럽컵 결승에 올랐던 말모·FF팀을 이끌었던 명장. 영국출신인 휴튼씨는 '80년도에 말모팀을 떠나 영국축구협회 코칭·스탭 일원으로 선발됐었다. 이 코칭스탭은 영국축구협회가 영국대표팀을 이끌 감독진 양성을 위해 1930년 창단한 것이며 휴튼 감독까지 오직 35명만 이 자리를 거쳐갔다.

오는 17일(토) CNE스타디움에서 홈게임 오픈전을 펼칠 블리쟈드는 금년시즌 정규게임외에도 오는 5월18일 이태리 프로축구의 최강 쥬벤토스팀 초청경기를 벌인다.

특히 6월16일에는 한국선수 조영증선수가 활약하는 포틀랜드팀이 토론토에 올 예정이어서 축구에 익숙한 교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에따라 본사는 블리쟈드 전게임 입장권을 예매중이다.

(유승민 기자)

◆세계 제1급 감독 휴튼

◆북미축구의 최고 골게터 자모·사모의 골

社說

제2회 한인민족상

많은 후보추천을 촉구하며

본사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공모마감이 5월15일로 다가왔다.

이땅의 문화계 각분야에서 기여도가 높은 교포인사나 단체를 비롯하여 한인사회를 위한 공로가 큰 비한국계 외국인도 수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 상은 지난해 제1회에는 예술상에 2명, 공로상·봉사상 각 1명에 시상했으며, 학술상은 해당후보의 추천이 없어 부득이 유실되고 말았음은 못내 아쉬운 일이 었다.

민족상 제정 취지에도 밝혀져 있듯이 언론을 통한 이땅 문화창달의 한 모서리를 맡고있는 본지는 이 상을 계속 밀어 나감으로써 이민 현지의 한국문화·교포지위향상에 자극제가 되고, 유공자 표창을 통하여 노고에 대한 유형·무형의 보답과 더한층의 정진 촉진제 구실이 되기를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터이다.

비록 토론토 한국일보사가 그 산파이기는 하여도 한인민족상위원회는 본사와는 전연 별개의 독립단체로 독자적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둔다.

◇

"예술상"의 경우, 이땅에는 전국 각지의 한인사회에 글쓰는 이들—시인, 소설가, 수필가들이 여러명 있으며, 음악가도 성악, 기악 할것없이 타민족을 능가하여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명, 무명 음악가들이 수두룩 하다. 무용계에도 정평있는 실력가들이 있고, 사진작가도 수상자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술상"의 해당자도 많다. 각계 전문분야의 학위소유자와 학계 권위층에 속하는 인사도 있어 이 분야의 수상후보감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봉사상"은 이민초기에서 정착기에접어드는 과정의 한인사회 각계각층에 크고작은 헌신적 봉사자가 각 지역사회마다 산재해 있으니 이들도 지역단체의추천을 거쳐 수상대상에 포함시킴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사회사업, 대인관계의 두드러진 봉사자가 이에 해당된다.

"공로상"도 봉사상과 근사치로 한인사회나 캐나다사회 발전에 공이큰 인사에게 시상되는 것이다. 예술, 체육, 문화단체등의 육성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인사도 공로상 해당자가 될것이다.

◇

주최측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걸쳐널리 각부문 해당자의 추천을 의뢰하고있으니 어느한 지역사회만 편중적으로 수상하게되는 폐단을 없애고, 명실 나우른 전국적 민족상이 되기를 염원하며, 정녕보다 비중이 큰 적격자에게 이 상이 돌아가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각지역 한인회를 비롯한 각교회, 노인회, 문화단체, 친목단체 들은 자기지역의 해당인사를 추천하여 수상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기 지방에서 수상자가 나옴은 지역사회의 더할수 없는 경사요, 보다 영예로운 일이기도 하므로 추천의 노고에 인색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미 몇몇단체가 후보를 추천해 왔으나 더 널리, 더 많은 해당자의 추천이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이 상이 해마다 제구실을 다하고 크게 발전있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7일저녁 한인회관에서 거행된 승공문화협회 참석한 100여명의 교민들. (원내는 초대회장 이근우씨)

승공문화협회 창설

초대회장에 이근우씨

교민들의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승공문화협회가 탄생했다.

7일 저녁7시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10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중 하나인 김춘탁씨는 "토론토가 일부인사들의 불찰로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면서 "이제는 우리 교민들은 더욱 단결, 반공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현회 추진목적을 밝혔다.

이날 동협회 회장으로 추대된 이근우씨는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한다. 추진위원들과 상의, 정관들을 만든후 구체적 사업 방향등을 제시하겠다."고 취임인사를 말했다.

승공문화협회 초대회장에 추대된 이근우씨(66세)는 '76년 캐나다 이민 오기까지 각 기업체 법률고문등 공·관직생활을 했고, 일제시대에, 와세다 법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6녀가 있다.

동협회의 정관등을 기초할 준비위원으로는 김춘탁, 곽정열, 박광철, 구진모, 함병섭씨가 선임됐다.

이날 모인 교민들은 최덕신, 최홍희의 북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영화로 보면서 "김일성을 신 같이 찬양하는 그들의 변절"에 분개했다.

무스 사냥허가 30일 신청마감

금년가을에도 온타리오주내 2개의 야생동물 보호구역(WMU)에서 무스(Moose : 큰사슴)를 잡을수있는 사냥군의 수는 제한된다.

온타리오 천연자원성(내처럴·리소시스)은 사냥허가 신청을 오는 30일 자정으로 마감한다. 신청처는천연자원성의 토론토소재 야생동물과 이다.

사냥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컴퓨터로 추첨, 올가을 무스 사냥자를 선정한다.

작년도 낙첨자는 특별고려된다.

정부는 동물 종류에 따라 사냥허가수를 제한발급한다.

◆사냥군의 선망이되는 무스.

"청지기의 사명" 약속

조남유목사 대한교회 취임

토론토 대한교회(3819 Bloor ST. W.)는 지난4일 조남유목사(45)의 취임예배를 가졌다.

대한교회는 초대담임 김정일목사 이후 장세택, 강근환목사가 임시로 강단을 지키다가 이번 2번째로 조목사를 정식 담임교역자로 청빙한 것이다.

실업인협회가 보낸 화환을 비롯, 20여군데에서 보낸 화환들은 130여명의 참석한 취임식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구웠다.

하오2시 장세택목사(오순절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취임예배는 박희민목사(한인장로교회)의 기도, 홍순관목사의 설교 "이상적인 교회"에 이어「교인들과의 서약」순서를 진행한 후 조목사의 취임을 선포했다.

대한교회가 세들고 있는 세인트·앤드루 장로교회 맥퍼비목사는 축사에서 "우리 형제들이 새 목자를 맞이해서 복음선포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답사에서 조목사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오셔서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 늦게 다시 출발하는 목회의 격려에 보답,주의 뜻을 따라 열심으로 일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대한교회는 조목사를 청빙한 이유로 조목사가 이곳에서 그동안 일반 교포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일하면서 교회에서는 평신도 생활을 체험, 교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든다.

조목사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는 입장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남유 목사

조목사는 부인 조정옥여사가 있고 슬하에는 자녀가 없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목사는 "당초 이곳에 올때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다. 다만 평신도로써 주의 일에 봉사 하려고했다."고 말했다. 조목사는 '74년5월 캐나다로 이민온후 6년동안 3교대일을 하는 공장생활을 했으며 최근 1년동안은 실업인 협회 사무장으로 일했었다.

김보경박사에게 듣는 부부문제 해결책

듣는 태도기르고

생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김보경 박사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태도를 기르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를 잘 파악해서 상호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첩경"이라는 것이 [illegible] 심리 상담을 맡고 있는 김보경박사의 말이다.

그동안 교민단체·교회등의 요청으로 이민가정의 문제, 노인심리, 2세교육문제등에 관해 수차례 강연했으며, 특히 지난 3월29일부터 4차례에 걸쳐 토론토·한국일보에 연재된 지상강연 〈이민생활과 스트레스〉로 많은 교민들의 호응을 받은김박사는 교민들이 심리학자의 강연이나 글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만큼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문화의 상충으로 가치관의 정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10월 교포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시작해 온지 거의 6개월동안 가장 많은 상담케이스가 부부문제로, 약80%였다.

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은대개 "우리 남편(아내)을 고쳐달라"고 애기하는 것 과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듯 단 한번의 상담으로 속시원한 기적적인 해답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김박사는 "부부문제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상담에 응해야 해며, 행복한 부부관계란 상대에게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주는데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사람들은 또한 문제의 발생초기에 상담자를 찾기보다는 악화될대로 악화된 뒤 신경이 쇠약해지고 생활이 비정상이 된 때서야 타인 혹은 주위의 권고에 못이겨 전문가를 찾아온다. 이는 정신위생에 있어 예방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치 못한 때문이라고 김보경씨는 말한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69년 캐나다 이민, 토론토대학에서 76년도에 박사학위를 딴 김씨는 현재 토론토에서 약2시간 거리의 온타리오주 페네텡기쉰 정신병원(Penetanguishene Mental Health center)에서 근무하며 토요일에는 토론토사무실(원영수치과 사무실 600 Sherbourne ST. #406×Bloor ST. 전화 923-3336)에서 교포들의 상담을 받고있다.

그동안 상담경험을 통해 본 결과는 한국이민 가정의 부부문제는 새 사회에서 당하는 스트레스와 적응과정상 문제로 한국에서보다 문제가 심각하고 성격도 다르다.

특히 한국에서보다

1.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커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달라지고,
2. 남성보다 여성이 빨리 새 사회에 동화하는 경향이 있는점과,
3. 캐나다 대 다수인 백인사회와 결혼관의 차이등이 문제가 된다.

한국적 부부관은 의무적 관계로 싫건 좋건 일단 맺어졌으니 여자는 죽어도 그집 귀신이 되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캐나다식은 부부의 행복을 중요시, 서로 싫으면 쉽게 그만 둘 수 있는 상호이익관계(Matual Benefit)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 한국가정은 모든일에 결정권이 주로 남자에게 있으나, 서구식 캐나다가정은 부부가 함께 책임·의무를 나누는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의식구조의 차이와 이곳 생활방식에 쉽게 동화하고 이곳의 여러면이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느끼는 한국 여성들은 남편의 직업, 용모, 친척, 친구관계, 섹스에 이르기까지 불만이 생기고 심한경우 폭력으로까지 비화,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까지 이르게된다.

온타리오주 인권옹호위원회에도 관계한 김박사의 견해로는 한국인가정의 폭력문제가 "적지않다." 대체로 남성의 폭력전수가 많고, 폭력이 이혼의 절대적 이유가되는 이곳 여성들과는 달리 한국여성들은"남자가 좀 때리는 것은 어쩌면 애정의 다른 표현이려니 생각, 아직도 그것 때문에 헤어질수는 없다."는 관대한 생각을 한다. 그러나 김박사는 심리학상으로 때리고 맞고하는 관계는 "병적"으로 규정되며 어떤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야만적 형태인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종속인생"으로의 무덤을 파는 사람이다.

장기 습관적 폭력의 병태를 시정, 건실적관계를 유지하려면 "단호한 반발"을 보여야한다.

또한 소포결혼으로 인한 폐단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꿈꾸듯 배우감이 살고자"캐나다로 시집온 여자, 부모의 눈에 맞추어 "며느리감, 사윗감"을 구해 온 경우, 한국서 갓온 신랑을 자신도 모르게 지배하게 되는 여자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김보경박사는 "성공적 부부란 성별로 따지기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민주적 관계로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부관계를 개선·악화시키는 원인과 결과도 될 수 있는 섹스문제에 대해 김박사는 섹스에대한 기본적 기교와 성실한 태도없이 저질의 성문란에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쓸데없는 열등감, 불안감을 서로 편안한 마음가짐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컴뮤니케이션은 말이외의전달, 즉 결혼기념일의 꽃한송이, 남편이 즐기는 반찬한가지, 귀가가 늦음을 알리는 남편의 전화한통등 작고 사소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데서 다른 종류의 컴뮤니케이션과 다르고 이런 컴뮤니케이션을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야한다는 것이 김박사의 처방이다.

(대담 : 조미래·기자)

프로축구를 즐깁시다

HOME GAMES AT Exhibition Stadium

Dates	Opponents	Times
Saturday, April 17	Tulsa Roughnecks	8:00 pm
Wednesday, April 21	Edmonton Drillers	8:00 pm
Saturday, May 1	Ft. Lauderdale Strikers	8:00 pm
Wednesday, May 5	New York Cosmos	8:00 pm
Saturday, May 15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May 20	Chicago Sting	8:00 pm
Tuesday, May 25	San Diego Sockers	8:00 pm
Wednesday, June 16	Portland Timbers	8:00 pm
Saturday, June 19	San Jose Earthquakes	8:00 pm
Wednesday, June 23	Seattle Sounders	8:00 pm
Wednesday, July 7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July 22	New York Cosmos	8:00 pm
Sunday, July 25	Vancouver Whitecaps	3:00 pm
Wednesday, July 28	Chicago Sting	8:00 pm
Saturday, Aug. 14	Jacksonville Tea Men	8:00 pm
Sunday, Aug. 22	Tampa Bay Rowdies	3:00 pm

홈게임 오픈

브리자드 : 툴사·러프넥스
4월17일(토)밤8시

장 소 : CNE 축구장
입장권 : $12(A석), $9(B석), $6(C석)
※학생및 유아, 노년입장권은 반액.

입장권예매처 : 한국일보사(4월초순부터)

Brandon Sports Co.

어린이 음악콩쿨대회 안내서

대 회 일 : 1982년5월1일(토) 오후1시
심사위원장 : 박 재 훈 박사(497-0406)
신 청 마 감 : 4월25일까지
신 청 방 법 : 신청서, 참가비(수표), 자유곡 사본 3통을 본교회로 전달 또는 발송 (편리를 위해 서울식당에 신청을 해도 무방함)

대 회 장 소 :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onto.
문 의 : 535-6864(사무실) 275-7276(김인철전도사)

주 최 :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후 원 : 토론토 한국인교회 학교협의회

구분 / 내용	연령별	지정곡(동요)	지정곡(찬송가)	자유곡	시상	비고
독창부 참가비 $10	유치부 (5세이하)	아기별, 시냇물중 택일	사랑의 하나님	동요나 찬송가중 1곡	1, 2, 3등 트로피및참가	1)모든 종목은 2절까지 부르며 1절후 간주 2절을 부른다. 2)반주자는 참가자가 동반한다. 3)지정곡은 동요1곡 찬송가1곡, 자유곡은 동요나 찬송가중 1곡으로 합3곡을 부른다.
	유년부 (G1-G3)	산바람 강바람, 파란마음 하얀마음중 택일	어려서 부터	〃	〃	
	초등부 (G4-G6)	봄이 왔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	〃	
중창부 $20	유년부 (3학년이하)	어머니 은혜	아름다운 장미	〃	〃	4)각부분 년령별 수상자 트로피는 각기 관장이 증정하며 수상자는 본교회 T.V.에 출연합니다. 5)신청서, 안내서, 악보는 다운타운의 종교서관, 서울식당, 스카보로 지역은 한국식품 동부지점, 미시사가지역은 한밭식품에 비치되어 있읍니다. 6)각교회및 한글학교는 발송하였으므로 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7)본교회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여 악보를 갖고 가셔도 됩니다.
	초등부 (G4-G6)	옹달샘	아름다운 장미	〃	〃	
합창부 $50	합창부는 G6이하 12명 이상 여성, 남성, 혼성중	종소리, 초가집 초록바다중 택일	오, 은혜로우신 오, 거룩한아기중 택일	〃	1, 2, 3등 단체트로피및 1등 지휘자, 반주자 개인트로피	

세계경제 대불황

석유값인하추세불구, 부동산도 침체

실업률증가일로, 미국, 유럽, 일본등도 타격

실업율의 증가, 전례없이 높은 기업 파산율, 그리고 장래에 대한 어두운 경제 전망 등이 미국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경제불황은 영국, 일본, 서독, 캐나다와 같은 선진 공업국 뿐만아니라 제3세계의 중진국이나 후진국들도 괴롭히고 있는데 심지어는 오일달러가 흘러넘쳐 풍요를 구가하던 산유국들까지도 불황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곳곳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고도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벨기에의 수도 브러셀에서 공장폐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폭동으로 1백7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났으며, 서독에서는 지난해 1천5백개의 건설회사가 문을 닫아 25만명의 건설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덴마크에서는 1만5천명의 농부들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농지나 시설이 강제차압에 들어가기 일보전에 있다.

지금까지 국제경기의 불황에도 끄떡 견디어내던 일본도 최근에는 수출고가 떨어지면서 지난해 4·4 분기에는 최근 7년간 최초로 경제지표가 하강세를 보였다.

현재의 경제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서부유럽인데, 유럽공동시장 10개국의 실업자 총수가 1천3백만 명으로 11.5%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여론조사결과 68%의 시민이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서독의 경우 현재의 실업을 8%를 줄이면서 청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당국은 50만명의 노동자들에게 조기퇴직을 권장하고 있다.

서부유럽에서 가장 높은 12.6%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영국은 14년이래 최저의 기업생산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의 도산을 도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에는 38%가 증가했다. 여행자들에게 값싼 비행기 요금으로 널리 알려진 레이커항공사도 올해에 파산을 면치 못했다.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 사회당정부는 다른 선진국에서 쓰는 처방과는 달리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증가와 임금상승으로 불황에 맞서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전망은 보이지 않은채 서부유럽에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두자리숫자인 11.5%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소유의 르노자동차회사는 지난 한해동안 1억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부유럽 국가들은 현재의 지속적인 경기불황의 주요원인이 미국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슈미트 서독수상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레이건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는데, 이들은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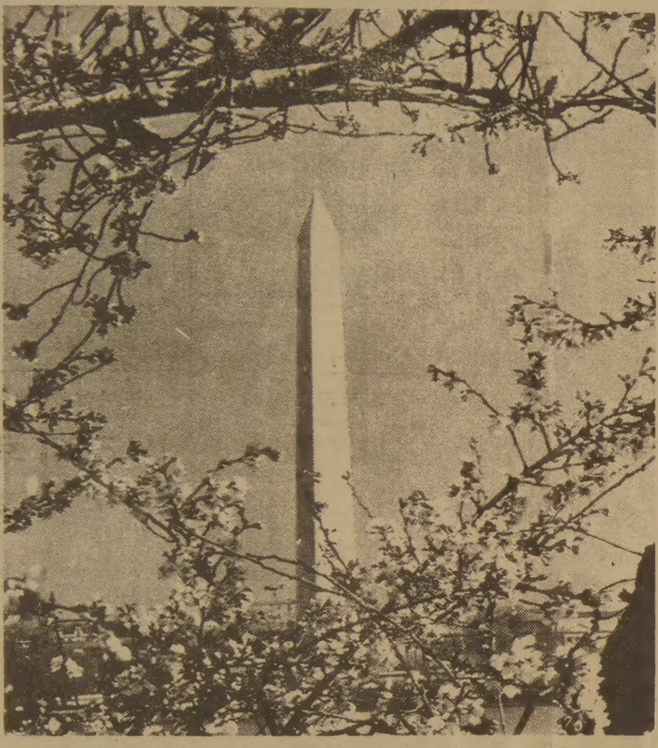
서부유럽국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 유럽국가들의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자기나라의 이자율을 올릴 수 밖에 없으며, 이때문에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 유럽통화의 약화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크 드·라로지에르 전무도 적자가 국제신용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번영의 터전이 되었던 자동차, 철강, TV등에 대한 해외수출이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을 비판하면서 현재와 재정적이 불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수석 경제고문인 와이덴봄 교수는 미국의 재정적자 폭보다 더 큰 유럽의 재정



◆봄의 노래—워싱턴의 봄을 알리는 벚꽃이 만개했다. 4월 첫주에 열리는 워싱턴벚꽃축제는 토요일의 퍼레이드로 피크. 활짝핀 꽃가지 사이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인다.

수입국에서의 수요감퇴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세계적인 자동차메이커인 도요타사와 니싼사도 지난 2월 수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일본의 내수산업도 전반적인 수요감퇴로 곤경을 치르고 있어 일본정부는 주택분야등에 대한 공공투자계획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석유값의 인하때문에 산유국들의 재정수입이 현격히 감소되는 바람에 한때는 재정흑자밖에 모르던 산유국들이 재정적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미국이나 서부유럽에 부동산과 광산등에 투자한 쿠웨이트는 물가상승율의 둔화때문에 소유부동산의 가치가 오르지 않아 오히려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심한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자, 대립위주였던 노동자와 기업주의 관계가 서로 양보하는 협조관계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보여주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노조가 임금동결에 동의하는 댓가로 기업주가 노동자들의 직업보장과 이윤분배를 약속하기도 했으며, 서독의 최대노조인 IG Metall은 당초의 7.5% 임금인상 계획을 자진철회하고 4.2%의 인상안을 제시하여 지체없이 노사타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부활절 축시]

부활의 아침

박 옥 선

"누군가 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읍니다."

준비했던 향료가 무색해진
흩어진 수의(壽衣),
동이 트기도 전
돌무덤에 울린
지금도
길게 울리는 메아리.

조용한 햇살이 깊은 아침
"마리아야!"
"라뽀니!"
눈물이 핑핑 젖는 섬김의 사위(四圍)
빛보라 안의 첫 인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토마야,
내 손,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열한 제자에게,
아니
당신을 영접하는 이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바람에 빛는 말씀의
하늘 땅의
진한
은혜.

촛불을 당겨
영원 그 안에서
"알렐루야!"의 환호가
빛의 광명의 전례(典禮)를
읊는
성금요일과 부활의 신비를 지켜보는
돌무덤,
두 천사의 흰 날개는

지금도
님의 성3위의 법열(法悅)을 일깨우는
생명에 새 희망이 담기는
오로지 Lumen Ghristi!
부활의 아침입니다.

※ LUMEN CHRISTI=그리스도의 빛

〈부활절 생활정보〉

부활달걀 만들기

해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면전세계 신자가정은 물론 교회마다「부활달걀」을 만들어 서로 선물하며,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

부활달걀의 유래와 만드는 방법등을 소개하여 고된 이민현장에서 자칫 메마르기 쉬운 일상생활에정서적 윤기를 더하고자 한다.

(1)부활달걀의 유래

부활절에 색칠한 달걀을 맨처음 만들어서 사용한지방은 메소포타미아의 초대교회시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었다고 전해지고있다.

부활절은 가톨릭의4대명절—성탄, 부활, 성신강림, 성모승천 중 하나로 옛날 신자들은 부활대축일을 앞둔 40일간의 4순절에 온혈동물(길짐승과 날짐승)의 고기를 입에대지 않았고, 냉혈동물(생선)도 먹지 않았으며, 빵과 마른채소만먹는 엄격한 금육·극기 생활을 하였다. 물론 달걀도 금지되었다. (오늘 날에는4순절 매금요일만 금육일이고 4순절 첫날(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예수수난날)만 단식일로 지킨다.

그러다가 성토요일(부활전야)감격스러운 부활종소리가 울릴때 비로소 오믈렛이나 반숙한 달걀을 맛보는 기쁨을 가졌었다.

이 계절에는 암탉이 알을 많이낳지 않으므로 달걀은 귀하고, 부자들만 반찬으로 먹을수 있을정도로 비쌌었다.

그당시 신자들은 부활절 아침 밥상에서 이 맛좋은 달걀요리를 맛볼수 있도록 이웃집이나 친구, 친지에게 축하의 뜻을 담은 색칠한 달걀을 주고받는 습관이생겼다.

이 풍습이 퍼져 일반화 되어서 지금은 전세계 어느나라 어느 지방에서나다 실시되고 있다.

(2) 부활달걀 만들기

전세계 크리스찬 가정들은 부활절마다「부활달걀」(Easter Egg)을 만들어집안에 장식하고 선물하기도 한다.

날달걀이나 삶은달걀에 울긋불긋 여러가지 빛깔의 물감칠로 예쁜 그림을 그리고, 축하글씨도 써넣어서 선물하면 받는이도 기뻐하게 된다.

「부활달걀」은 예수·그리스도가 무덤을 박차고 생명의 승리를 보여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부활명절 축하의 풍습(민속)이기도 하다.

부활달걀에 색칠하는 물감은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은 식용물감을 써야 한다.

(3) 부활달걀 만드는 법

뛰어나게 아름답고 잘된「부활달걀」은 폴랜드와 우크라이나지방에서 만든 복잡하고 잘 색칠된 것인데 그 제작방법은

(가)먼저 몇개의 그릇에 각각 한 빛깔씩 물감을 풀고,

(나)달걀을 굳게 쪄서가장 밝은 색에 담갔다가 꺼내어 말린 다음,

(다)빛깔을 남겨두고 싶은 부분에만 녹인 촛물(불켜는초)을 바르고,

(라)이같은 순서로 점점 짙은 빛깔에까지 물들여가며,

(마)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도안)대로 촛물을 발라가면 되고,

(바)전부의 빛깔을 다바른 후에 달걀을 끓는물에 넣어 초를 녹여버리면 아름다운 색달걀이 된다.

유럽의 어떤나라에서는 미리 달걀의 양끝을 바늘로 구멍뚫어서 입김을 불어 속을 다 빼내어 요리에 사용하고 껍더기만 색칠하여 성탄나무처럼 나무가지에 매달아 놓는 습관도 있다.

◆각종 부활달걀과 햇병아리

〈캐나다소설〉 (143)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팔리·모왓 원작·원재홍 옮김

내가 도시로 돌아와서그후 몇년동안 나는 이할미우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늘 소식을 들었다. 나는 바렌에서 조금씩 새어나온 소식을 탐욕스럽게스크랩을 했고 그곳을 떠나온후 그사람들의 역사를더듬어 올라갈수있도록 이모든 자료를 한데 모았다.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나에게 말할수 없는 쇼크를 주었다. 바렌을 떠나올 때 까지 나는 이할미우트가 그 흑암에 쌓인시절과 백인들의 도움없이 그들의 처참한 운명을 홀로 싸워 이겼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 즉 프란쯔, 앤디 그리고 나자신에 의한 업적과 우리가 정부에 보낸 상세한 보고서가 반세기동안 계속되어온 상습적인정부의 태만을 중지시켰다고 확신했었는데 나의 견해가 아주 옳지못한 것이었다.

여기에 이할미우트의 역사에 관한 발췌문을 적어보기로 한다.

1949~1950년 사이의 겨울과 초봄에 이사람들에게 덮친 굶주림은 무서운 속도로 번졌다.

그즈음 한사건이 일어났다. 1950년3월에 어떤 프리렌스 사진작가이며 신문기자가 우연히 이 북극 바렌에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이할미우트와 한족속인 페둘리어미우트족이 기아선상에 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기사가 몇개의 영향력이 있는 신문에 톱기사로 요란하게 떠들석해지자, 그해 4월말경 캐나다공군으로 하여금 이할미우트와 페어들리어미우트에게 긴급구호식량을 공급해주도록 지시가 내렸다. 식량이 반입되었고 잠시후에 당국에서 내보내진 뉴스에 이러한 인도적인 처사가 얼마나 훌륭한 것 이였는가 하고 자화자찬하는 바람에 독자들은 왜 이러한 극적인 구조가 필요해야했는지 아무도 물어볼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할미우트를 내버려두면 또다시 굶주림과 싸워야하는 그 긴겨울을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참상이 또다시 되풀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무도 캐어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1949년 여름에 이할미우트에게 소아마비가 전염되었을때 이러한 사실을 좀더 캐물어 보지 못하고 당국이 리틀힐스를 뒤늦게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참상이 일어났을 것이며 한번도 그 병을 예방하지 못해서 많은 희생자를 냈던 것이다. 우선 이 사람들 중에 그 해에 태어난 유일한 어린애인 사내아이 미키가 죽었다. 가꾸미의 나이어린 아내였던 익룩우믹과 노련한 사냥꾼인 헥좌우가 절름발이가 되였고 헥좌우의 아들 오호톡은 죽어버렸다. 헥좌우와 하우믹은 치료를 받으러 처칠로 후송 되었다. 그때의 참상을 정부관리들이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할미우트는 다시한번 잊혀진 채로 내버려 두었다.

1950년 봄에 어떤 생선잡이 회사가 처칠에서 공수를 받고 뉴엘틴레이크로 옮겨 왔다.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값싼 노동을 얻는것이었다. (뉴엘틴레이크는 한번도 손대지 않은 다량의 큰 레이크트라우트와 화이트휘쉬가 있음) 캐나다 정부는 북극에 산업을 확장시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회사를 살아남은 이할미우트에게 넘겨주어 도와 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었겠는가? 여름철이 되자 캐나다 연방경찰은 리틀힐스 지역으로 날아가 싫다는것도 불문하고 이할미우트를 잡아다가 생선회사의 은혜로운 처사에 따라 맡겼다.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러한 처사는 북쪽에 사는 에스키모들이 백인들을 도움으로써 자기들에게 미칠 장래의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발표 되었다.

나는 그 다음에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한것을 알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생선회사가 문을 닫았고 그 땅에서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때 까지는 완전한 1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1930년대의 무역자와 에스키모의 관계를 되풀이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보증을 섰던 것이 였다.

1951년에 이할미트는아마도 마지막이며 전멸상태로 그땅의 집숙한 곳에 영원히 잊혀져버렸을 참변이 다시왔다.

다음은 이 사건을 다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담화문의 첫부분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이기 때문에 신문을 삽입한다.

굶주리고 있는 에스키모들 비행기로 130마일을 후송될 가능성이 있음.

4월25일 오타와(C.P.)—노스 웨스트 테리노리의 에나데 레이크 주변에 살고있는 한떼의 원시 에스키모가 굶주림에 직면하고 있어서 130마일이나 떨어져있는 뉴엘틴 레이크로비행기로 후송될지도 모른다.

오타와에있는 노스 웨스트 테리토리 지방의회의관리들은 카리브를 먹고사는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로 간주되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갱생시키도록 하는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오늘말했다.

몇주전에 약30명이 약간 넘는것으로 추산되는 에스키모들이 굶고있다는 첫보고가 오타와에 도착했을때 긴급구호식량을 실은 비행기가 캐나다 공군에의해그 지역으로 공수되었다.(계속)

십자가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믿음이란 무엇인가?(1) 개혁장노교회

우리는 흔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과 함께 누구를 믿는가, 그 믿는바 내용이 무엇인가, 왜 믿는가 또는 어떻게 믿고있는가 등을 생각해 봄으로서 우리의 가진바 믿음의 내용이 더욱 정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신자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거짓없는 신앙을 가질것을 요구하시며 따라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견지하고 있는 일이 극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에 반하여서 "헛된 신앙 — 공허한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 까닭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바르지 못한 신앙의 소유자가 많음을 보시고 그러한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경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를 받아 주소서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마태 7:21-23)"고 하셨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만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전 15:2)"고 말하면서 참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 도리를 굳게 지키고 있을것을 권하고 있다. 또 이"십자가의 도"를 왜곡되이 전파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하여는 엄히 경계하시기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1:8-9)"라고 하였다.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그릇된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 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임이니라(요한2서:10)"고 경계하신다.

그런고로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실인가 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그러한 헛된 믿음을 일으키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가를 밝히 알아야 할것이다.

"믿는다"고 할때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인가?**

말할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일이 없음이라(행4:12)"고 선언함과 동시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하며 "예수를 믿을것"을 말하고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면 어떠한 예수라도 다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믿으라!"할때 그 예수는 우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낸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보이신 "그 예수" 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요한5:39)"이라 하시어서 성경에서 보이신 그 예수이심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이신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그 분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고 말하고있다.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인간이 되시사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다시 우주 만물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를 말하고있다.

그런고로 예수께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될때 우리의 신앙도 "헛된 신앙"이 되며 그것은 "다른 예수" 즉 이름은 같으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예수를 믿고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동정녀 에게서 나지않은 예수", "하나님이 아닌 인간뿐인 예수", "부활하지 않은 예수", "인간이었으나 후에 신처럼 승화한 예수", "지금은 왕이 아니고 후에 재림하여 왕이 된다는 예수", "재림하지 않는다는 예수"…, 이는 다 "다른 예수"인 것이다.

여기서 잠깐 믿음의 다른 면들을 고찰하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의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는 성경을 '정확하고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믿는 자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라고 믿는데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딤후3:16)".

따라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틀린 곳도 많이 있고 수천년 전에 기록되었으므로 현대의 생활방식에 맞지 않으며 또한 과장된 선전 문귀와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있는 일종의 종교문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첫째 신앙의 기초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틀렸다 던가 맞다던가 함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위에 올려놓는 결과에 빠진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사55:8)"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수하고 완전하며…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잠언30:5)"고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신님을 통하여 알려 주실때 "알게된다"고 말할수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때 성경은 그 전체적인 통일성으로 보나 죄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얻게하는 능력으로 보나 그리고 하나님의 신(즉, 성신)께서 성경말씀을 쓰셔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확증하시는 사실들을 보아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있다.— 즉 교회 지도자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하던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많다"는 사상을 갖고있는 독자에게는 이 글이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것으로 사려된다. 왜냐하면 이 글은 "성경은 정확하고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쓰여졌고 신앙에 관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성경 그 자체에 두고있기 때문이다.

— 다음호 (4월16일)에 계속 —

개혁장노교회 :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이태영 : 492-9889)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구룹 상해보험 계약체결

월보험료 $15.75, 세금공제혜택, 직장외 사고도 보상

많은 회원들이 오래동안 갈구해온 사상보험 인 상호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 가 신청, 상해에 관한 보험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사회원을 방문하여 설명할 것이니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회원과 그 종업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사고	신병
본 인	월 $15.75	월 $22.75
배우자	2.00	1.75
자 녀	2.25	1.25

3. 사고로 인하에 일할수 없게 되었을때 받은 보험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4.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것이 아니다.
5.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도 있다.
6. 협회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되 가입여부는 회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7. 본보험은 시한내에서나 시장외에서나 하루 24시간 365일 모든 종류의 사고에 가미된다.
8. 상부보 사니의 상해보상, 생계보상, OHIP의 혜택에 [illegible] 되다.
9. 회회원은 계속할 대표사는 Mr. Dean Vernon 이니, 회회취급부는 회세 실[illegible]

al)보임, 생명보험에 대한 취상을 주선중에 있으며, '가능하한 한인분의 위사의 욕심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예>

[illegible] 보험, 내[illegible](Dent-

Personal Attack	
Skull Fracture depressed	1,125
Head lacerations	600
Disability 4 weeks(28days) @$25 day	700
Hospitalization 1day @$40	40
Ambulance	20
	$2,485
Auto Accident	
Fractured hip with open reduction $1,500 @150%	2,250
Laceration	200
Hospitalization 32days @$40 day	1,280
Disability income 56days @$25 day	1,400
	$5,130

실협 교육쎄미나

4월16일 Inn on the Park에서

회회는 오는4월16일 5시부터 인 온 더 파(에글린톤 X레슬리)에서 회원의 사업경영 능률향상과 경제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한교육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의 강사는 외환은행의 최승락행장, 강찬영 변호사, 김인규공인회계사 및 메트로 뉴스의 Petraitis 부사장으로서 특히 항상말썽이 되어온 메트로뉴스의 경우 Credit및 Return에관한 회원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회회는 이기회에 보다많은 회원여러분의 협조와참여를 부탁한다. 부부동반도 환영한다.

에피소드 한토막

점잖은 서양신사 한분이 교포신문 한장을 손에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협회사무실을 찾아왔다.

K회사의 간부인 그신사왈, "무슨근거로 우리회사의 딜리버리맨들이 K.B.A.회원가게에서 이렇게많은 회수의 도둑질을 했다고 신문에 발표했는다?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내미는 신문기사는"2월중 상담실 처리상황"을 통계한 도표였다.

사건인즉, 동회사의 운전수가 영문으로 나와있는불평처리 건수및 회사명들이 바로 도둑질을 표시한 것으로 회사에 보고함으로써 당회사내 간부진이 발칵뒤집힌 것이었다.

사실을 알고난 그신사, 인한 오해치고는 좀 심한 편이 아닌지? <상담실> 쓴웃음을 치면서 뒷머리를 긁적긁적, 언어의 장벽으로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3월중 상담처리사항 통계표

대상별	건수	유형별	회수
Metro News	14	Delivery	20
General Bakery	9	Credit	13
Toronto Sun	6	Rebate	11
Silverwood Milk	6	Service	7
York Ice Cream	5	Equipment	3
Intercity	5	Payment	3
Silverwood Ice Cream	4	Price	3
Dempster Bread	4	Discount	3
Rosen Dairy	3	Price Competition	3
Vachon	3	Recommendation	3
Globe Pest Control	1	Legal Matters	3
Wilson's	1	Empty Bottles	2
Pepsi-Cola	1	Driver	1
Toronto Star	1	Customer's Complaint	1
Neilson Milk	1	Refund	1
Hostess Chips	1	Appreciation	1
T.T.C.	1	Tax	1
Neighbor Store	2	Masscom	1
Others	10	Information	1
TOTAL	78	TOTAL	81
2 월	56	2 월	60

〈집행부 동향〉

4/5(월) 가격인상과 더불어 차별대우로 인해 많은 분쟁점이 야기되고 있는 Coca Cola Ltd.의 Sales Manager Mr. Wayne B. Delfino와 회원 Store에 대한 Special Promotion건 토의.

4/5(월) Panasonic Battery Ltd.의 Neil Garden, P. Tulloch와 협상.

4/2(금) The Oshawa Group Ltd.의 부사장 G. Moffat, J. Hudson과 더불어 One Billing System에 의한 협회차원에서의 협약가능성 검토및 토의.

4/9(금) 4월 집행부 정기월례회(조기연 부회장댁)
〈안건〉(1) 사무실 이전준비.
(2) 회원주소록 광고주 모집의 건
(3) 비회원에대한 홍보활동의 건
(4)협회고문및 추천변호사 활동의 건

회원에게 특별할인(5%)제의

Dominion Smallware 도매상

협회 집행부 강경하 사업부장은 3월중 수 차례의 끈질긴 접촉끝에 도미니온 스몰웨어 도매상(사장 Mr. Sol Dennis)로 부터 협회원에 대한 특별할인(5%)을 받을 수 있는 딜을 체결하였다.

협회 차회장은 "앞으로 회원증의 제작과 발급이 완료되면, 기존 Cash & Carry 도매상에서 우리 회원들이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할 것 이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도미니온과의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 회 원	회원 Regular 품목	회원 Special 품목
Cash & Carry	Retail 품목	정규Discount Plus 7%감	추가 5%감	추가 2%감
Cash & Carry	Net 품목	없음	2%감	없음
Delivery charge	Retail 품목	없음	3%감	없음
Delivery charge	Net 품목	없음	없음	없음
Delivery c.o.d.	Retail 품목	2%감	5%감	없음
Delivery c.o.d.	Net 품목	없음	2%감	없음

肉體美 과시하는 英패션모델 英國 서턴 콜드필드출신의 패션모델 데비·린·워커양 (19) 이 아름다운 육체미를 과시하고있다。그녀는 날씬한 몸매의 비결은 수영이라고 설명。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실협교육세미나

회원 여러분의 사업경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져 교육쎄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신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 시: 1982년 4월 16일(금) 오후5시
◉장 소: INN ON THE PARK HOTEL, OAK ROOM LESLIE & EGLINTON E. TORONTO
◉회 비: 1인당 $15 (DINNER 포함)
◉순 서:

5:00-6:00	CASH BAR (친교)
6:00-7:00	DINNER
7:00-7:30	HOW TO BUILD UP THE LINE OF CREDIT. 최승낙외환은행장
7:30-8:00	RETURN AND CREDIT SYSTEM, ALEX C. PETRAITIS (METRO NEWS 부사장)
8:00-8:30	STORE LEASING 시 유의할 사항 강찬영 고문 변호사
8:30-9:00	STORE OWNER 의 INCOME TAX DEDUCTION 한계. 김인규 공인회계사
9:00-	질의응답.

1982년 3월 26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회원상점 주소록 광고주 모집공고

본 협회는 회원 상점 주소록 발간을 계기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인 업체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광고주께서는 마감 기일까지 본 협회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협회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면 우송해 드리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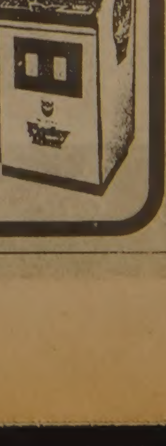
— 아 래 —

(1)광고 종류 : ①전면광고(12×18cm)
②반면광고 (12×9cm)
(2)신청마감일 : 1982년 4월19일(월요일)
(3)신청 장소 : 본 협회 사무실
(752-7771)

단 : 광고도안은 광고주의 원고에의함.

1982년 3월 1일

한인실업인 협회장

L. L. B.
Video Amusement LTD.
리베이트 $100불!
Rebate $100 협회원들에게
본사는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비디오게임 머쉰 공급회사로서, 가장 이윤이높고, 인기가 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아울러 실업인 협회를 통하여 저희들 머쉰을 3, 4월중에 설치하시는 회원 여러분께는 첫 달에 한하여 $100불의 리베이트를 드리겠읍니다.

※카버지역 : Metro Toronto 전 ONTARIO 지역
※신청연락처 : 실업인협회 ☎752-777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崔基植신부 서울로 連行조사

「가農會」副會長등 4명함께
放火犯은신 인정되면 拘束

치안본부는 5일하오 천주교 原州교구교육원장 崔基植신부(42)와 原州교구에서 일하는 종사자 4명등 모두5명을 연행, 철야조사중이다。崔신부와 함께 연행된사람은 전가톨릭노동청년회회장 李昌福씨(43)、原州교구교육원 보일러기사 文吉煥씨(38)、原州치악산 서점주인 金英愛씨(25)、전국가톨릭농민회부회장 鄭인재씨(37)등이다。

李炳敦·金永植신부도 連行調査 방침

崔신부등은 이날 하오2시 치안본부 수사진에의해 2대의 승용차에분승, 서울로 연행돼 분리심문을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부산 미문화원방화및 불온전단 살포사건의 주범 文富軾(23)과 金恩淑(24)의 배후조종자로 밝혀진 金鉉奬(32)을 지난80년 5월부터 22개월동안 은신토록 도와준경위▲金이 부산사건 발생직후인 지난 3월19일『어린학생들이 남쌍하게 구속당하게됐다』고 울면서 호소한뒤 金의 조종사실을 알고도 계속 숨겨해온경위▲80년5월 光州사태이후 현상수배된 金을 강사로 채용, 은신토록 해준 과정▲文과 金이 原州에 피신했을때 2박3일동안 숨겨준 경위등에 대해 집중수사중이다。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崔신부의 행동이 현행법에 명백히 위반했을 경우 구속수사를원칙으로할방침이다。

경찰은 지난3일하오 金鉉奬의 신병을 모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아 배후조종과 은신경위를 조사, 崔신부등의 도움으로 原州교육원에 숨어 특강강사형식으로 지냈다는 자백에 따라 金을 은닉해준 조직과 동기를 조사키로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교회의 특수성을 감안, 강제적인 수사를 피해 왔으나 文富軾과 金鉉奬의 검거로 범인은닉혐의등 범죄사실이 밝혀졌고 최근 좌경의식화범법자들의 범행이 극렬화, 방화를 저지르고 반미구호까지 표방,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사태로 번지고있어 이를 불순세력을 비호하거나 은닉해주는 세력은 신분이나 단체를 가리지않고 엄중문책키로 한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公州사대 불온서클의수배자 李相憲을 숨겨준 강원 長省성당의 李炳敦신부와 光州미공보원 방화사건의주범 丁淳喆을 은닉시켜준혐의를 받고있는 경남 三千浦성당의 金永植신부 등도 소환, 조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해 승용차편으로 서울로 연행되는 崔基植신부ⓒ 【原州=金龍逸기자찍음】

英、航母등 艦隊40척 出動

포클랜드強占에 "對아르헨 戰爭不辭" 선언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5日=聯合】영국은 4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군도 침공에 격분, 포클랜드를 탈환키 위해 아르헨티나와 전쟁도불사하겠다고 선언하고 5일핵추진잠수함과 2척의 항공모함을 비롯, 약 40척으로 구성된 25년래 최대규모의 해군함대를 포클랜드군도를 향해 출동시켰다。

이 해군 기동함대는 지브롤터 서남쪽 대서양상에서진용을 갖춘후 세인트헬레나섬 서북쪽의 英領 아센션島를 중간기지로하고 포클랜드군도 근처의 사우드 조지아島를 전진기지로 해서 작전을 펼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마거리트·대처수상은『영국의 목표는 아르헨티나에 점령당한 포클랜드군도를 탈환,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약 15억달러에 달하는 영국내 아르헨티나재산을 동결하고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차관과 재정거래를 중단했다고발표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대통령 레오폴도·갈티에리장군은4일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영토임을 거듭선언하고 만일 영국이 포클랜드탈환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면 아르헨티나는 이에 맞서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갈티에리 대통령의 이런 발표에 이어 마리오·메넨데스 장군을 포클랜드총독에 임명, 현지에 부임시켰으며 포클랜드점령군에 대한 보강조치를 취했다。

全대통령、식목일 植樹
"심은뒤 정성의管理 중요"

◇全斗煥대통령내외가 5일상오 京畿道城南市栗洞야산에서 잣나무를 심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植木日인 5일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京畿道城南市栗洞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신축부지옆 野山에서 4년생잣나무를 심었다。

全대통령은 식목후 李相熙산림청장、篤林家및 관계자들과 새마을연수원 신축현장사무소에서 오찬을 함께하며『나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심을가지고 키워나가야한다』고 말하고『나무를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정성이 곁들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나무가 울창하면 도시주변의 환경오염도 흡수할수있다』고 말하고 자연적인 여건이 좋지않으나 세계적인 造林國으로 발전한 西獨의 예를들면서 전국민의 造林사상을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신축부지를 돌아본뒤 건설현황을 보고받고 下水溝를 모범적으로 만들도록 당부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에 앞서 이날상오 청와대 녹지원에서 15년생 은행나무2그루를 기념식수한뒤 汝矣島광장옆 식목현장에 들러 申秉榮永登浦구청장으로부터 도시녹화기본방향에 관해 보고받았다。

金壽煥추기경、은신波紋에
"모두 理性찾았으면… 지금은 正確한것몰라 말하기싫다"

金壽煥추기경은 5일 방화범에대한 성당의 은신처제공 파문에대해『조그만 문제들이 확대되면 국가와 사회에 아무런 이득이없다。모두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金추기경은 이날상오10시 서울明洞성당에서 열린 故裵洲신부 영결미사에 참석하기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말하고『지금은 정확한것을 모르고 일부 잘못전해진 부분도있어 아무말도하기싫다』면서 이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엘女王、樞密院소집

【런던4日AP=聯合】엘리자베스2세 영국여왕이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군도 무력침공에 대한 정부대책을 논의키위해 4일 윈저궁에서 추밀원회의를 소집했다。

兩國 協商用意도

【런던·유엔본부5日=聯合】존·노트영국국방상은 4일포클랜드를 향해 출항한 항모 인빈서블호를 방문, 영국은 필요한 경우 전쟁을 불사하겠으나 영국의 기동함대가 포클랜드에 도착하는데에는 2주일이 걸리며 그동안에 외교적해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타·멘데스 아르헨티나外相도 4일 유엔본부에서 가진회견을 통해 아르헨티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존중할것이며 포클랜드문제에 관해 영국과 협상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르헨軍 철수 敵對中止 요구
유엔安保理 결의

【유엔본부3日UPI=聯合】유엔안보리는 3일 아르헨티나군이 포클랜드군도로부터 즉각 전면 철수할것을 요구하는결의문을 찬성10、반대1、기권4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이날 포클랜드사태에 관한 이틀간의 토의끝에 이같이 결정했는데 이결의문은 이밖에도 이번사태와 관련된『적대행위의 즉각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對아르헨티나 뉴질랜드斷交

【웰링턴5日AFP=聯合】뉴질랜드 정부는 아르헨티나가 英領 포클랜드 군도를 무력으로 강점한데 이어 아르헨티나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고 5일 로버트·멀둔 수상이 발표했다。

北傀要職 거의留任
最高人民會議서

【서울=聯】북괴는 5일 평양에서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을 소위「국가주석」으로 재선출한것을 비롯, 부주석 金一·康良煜·朴成哲、정무원총리 李鍾玉、중앙인민위 서기 林春秋、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 黃長燁、정무원 부총리 桂應泰·姜成山·許錟등 13명을 그대로 유임시켰으로 이날하오 북괴방송들이 보도했다。

북괴의 이번「정권기관」개편에서 관측통들은 金正日후계체제확립과 관련、金正日의「정권기관」에서의 지위확립과 함께 그의 추종세력의 거취에 주목했었으나 예상을 깨고 현 요직들을 대부분 그대로 유임시킴으로써 김정일은 그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북괴당의「정치국상무위원」「정치국원」「비서국비서」「군사위 위원」등의 요직을 중심으로 권력을 계속 확충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뒤셀도르프蹴球 내일 1次戰

한국代表팀과 3차례競技
하오6시 서울運動場서 첫선
1908년創團된 名門…분데스리가의 強豪
게르트·제베등 3명의 國家代表선수를 보유

西獨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명문팀인 포르투나·뒤셀도르프가 5일밤 서울에 왔습니다。분데스리가 경기중을 내 한국을 방문한 뒤셀도르프는 7일하오6시 서울운동장서 한국대표팀과 1차전을 벌이며, 9일 하오6시에는 釜山九德경기장서 한국대표팀과 제2차전을, 그리고 11일 하오3시 光州無等경기장서 대표팀과 마지막 3차전을 벌입니다。한국일보·日刊스포츠·대한축구협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뒤셀도르프의 訪韓戰은 세계최고의 기술과 전술을 자랑하는 西獨축구의 진수를 실제로 볼수있는 좋은 기회이며, 印度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전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한국대표팀에게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줄것입니다。1933년 독일축구 선수권을 차지하여 영예의『마이스터』칭호를 받은 뒤셀도르프는 79년과 80년에 권위있는 西獨축구선수권대회서 2連覇 위업을 달성했으며、게르트·제베등 많은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한 강호입니다。

競技日程

7일 서울 (하오6시 나이터)
9일 釜山 (하오6시 나이터)
11일 光州 (하오3시)

◇입장료
▲서울—특석 1만원 A석 5천원 일반 3천원
▲부산—A석 4천원 일반 3천원
▲광주—A석 4천원 일반 3천원
<군·경·중고생 1,500원>

◇혼잡없도록 豫賣
▲한국일보 사업부 722—1472 722—1575▲세고비아기타724—6161 ▲중앙악기사 261—7900 ▲교보문고 725—6151 ▲종로서적센터, 722—2331 ▲25팻션 (이대입구) 362—8827 ▲광화문랜드로바 722—8848 ▲영등포랜드로바 62—8180 ▲이태백안경 (충무로입구)752—2000▲아디다스 영동대리점 (한양 쇼핑센터앞) 567—3509 ▲광안안경원 (반포경남쇼핑센터내) 592—2871▲제일스포츠(여의도대교B상가내) 782—1144▲국제스포츠 (서울운동장앞) 265—8733 ▲충무로미즈노본점 777—2234 ▲미즈노특약점원시림 (무교동) 777—5171 ▲롯데호텔뉴스스탠드 752—1933▲남양체육사 (청진동) 725—9777

공동주최 한국일보社 日刊스포츠 대한축구협회 후원 롯데쇼핑

社会漫評

「植木」만 하자?…

地平線

세상이란 한치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것 같다。돈방석위에서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던 기름부자들이 이제는 빚을 얻어쓰기 시작했다。나이지리아는 지난달 23일부터 모든순입업무를 중단했고、한편에는 일본의 전기제품업계에 6천만달러의 빚을 짊어진나라도 있다한다。또 자동차를 계약만해놓고4만대나묶히고도있다는것이다。▼기름에관한한 10년전이 옛날이라고할 수있다。이때 서방측전문가들은 80년대 비공산권의수요를대자면 석유수출국기구(오페크) 회원국들이 하루 4천3백만에서 5천3백만배럴을 퍼올려야될 것으로 봤었다。그러나 지난해 오페크회원국의 기름에 대한 수요는 69년이래 최저로 줄어져 2천2백50만배럴로 생산량이 폭 떨어졌다。67년에 대자면 한루 8백80만배럴이나 떨어졌다。▼올해의 세계 기름소비는 72년, 그러니까 10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게다가 71년에서 작년까지 오페크 회원국이 아닌 지역에서 기름생산이 해마다 3·4%씩늘어나고 있다。70년대에 국제시장의 3분의2를 댔던 오페크는 이제 절반밖에 차지하지 못한 형편이다。천연가스、석탄、원자력、수력발전등도 해마다 2·3%씩 늘어났다。▼기름값을 올려서 돈더미가 쌓아져 들어온것은 좋았지만, 덕분에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오페크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됐다。기름값은 떨어지고、야심적인 건설계획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씀새는 커진판에 돈주머니가 쪼들리는 상상도 못할일이 벌어졌다。영국의 국제 결제은행에 의하면 오페크 회원국의 국제수지는 작년 3·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다。▼이때 오페크는 2·4분기에 비해 빚이 13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늘었지만, 예금은 7억달러 줄었다。이런 일은 78년말이후처음이다。올해만해도 3백50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되지만 이대로 간다면 84년엔 2백억달러의 적자가 될것이라는 전망도있다。벌써 오페크의 13개회원국중 9개국은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될 형편에 있다。우리 건설업계에서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형편이다。▼인도네시아는 미국이 7억5천만배럴의 기름을 저장탱크에 채워놓게되는 날 오페크는 맥을 추지못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있다。기름값이 떨어진 지금도 에너지절약이다、대체에너지개발이다해서 에너지전쟁은 쉬지않고있는 것이다。우리도 내년엔 석유의 6·2%증에 에너지수급레벨을 떨어뜨려 잡고있다。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바람없는 날이야말로 폭풍에 대비해야될 때임을 명심해야될 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모국 방문을계획하십니까?

미도파 백화점에서는 고급화장품, 금·은보석시계, 양품, 썬그라스, 고급의류, 여행용가방, 핸드백, 한약및 비타민등 유럽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짧은시간과 적은 경비로최대의 염가와 최선의 써비스로 봉사하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미도파 백화점 백

※ 좋은제품 좋은가격은 항상 만족한 기쁨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癌이 무너진다 〈2〉

세계의 抗癌前線…本社기자의 現地리포트

어느날 癌征服의 환성 이곳서 나온다

프레드·허친슨 종합 癌研究院

◇50년대의 명야구선수 프레드·허친슨을 기념하여 세운 프레드·허친슨암연구원。세계제1의 골수이식 전문병원이다。

시애틀의 프레드·허친슨종합암연구원은 병원이름부터 암의 증오를 확느낄수있는 그런 對癌전초기지다。프레드·허친슨은 全시애틀이 아끼던 한 야구영웅의 이름。1964년당시 신시내티 야구감독을 맡고있던 프레드·허친슨이 45세의 젊은 나이로 암에 무릎을 꿇고 말았을때 그를 아끼던 시애틀住民들은 암을 정복할수있는 전문병원의설립을 외치고 나섰으며 암전문의인 프레드의 형 윌리엄·허친슨이 이 운동을 받들고 프레드·허친슨기념암연구소를 설립했던것이다。

프레드·허친슨은 시애틀의 프랭클린고등학교의 명피처로 美전국고교야구를 석권한후 디트로이트프로팀에 픽업됐다가 다시 감독으로 승진、시애틀、세인트루이스、신시내티팀을 맡아 60년대초의 美야구계를 풍미했다。

兄이 院長職맡아

하버드大교수였던 다니엘·모이니한(現상원의원)은 언젠가『미국의 炎質性은 야구열풍이 녹인다』라고 말한바있지만 프레드·허친슨의 이름은 당시『시애틀의 별』로 떠올라 美전국을 들뜨게했던 것이다。

프레드가 폐암으로쓰러졌던 암병동에는 그의 형 윌리엄·허친슨도의 醫師의 한명으로 끼어있었다。

『나는 그때 심한 수치감을 느꼈다。수천년간 인류의 목숨을앗아온 이 암앞에 프레드까지 바쳐야 하는데대한 부끄러움이었다』라고 말하는 윌리엄·허친슨소장은 거의 본능적인 혐암증오감을 보였다。

허친슨암연구원이 미국에서 두번째로 종합암연구원 인가를받아 정식발족한것은 1975년 9월。설립7년만에 백혈병(Leukemia)·再生불량성빈혈(Aplastic Anemia)등의 血液암을 골수이식으로 치료하는『세계제1의 골수이식전문기관』의 위치를 굳혔다。

프레드·허친슨암연구원 원장 윌리엄·허친슨은 올해 73세의 원로의사。백발의 눈썹에 떡벌어진 어깨가 50代의 장년의정도로 보이게 하는 老의사는 한국기자를 만나기는 처음이라면서 기꺼이 인터뷰요청을 받아들인후 스스로 병원안내까지 맡고나섰다。

『한국에는 암환자가 몇명이나 있는가』『담배피우는 숫자는 줄고있는가』등 과학적인 통계숫자를 질문하기도 한 허친슨소장은 일반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돼있는 3층 골수이식수술실로부터 지하실의 방사선연구실에 이르기까지 기자를 안내하고 담당전문의들을만나게했다。

허친슨암연구원이 골수이식(Bone Marrow Transplantation)의 세계적권위로 떠오른 것은 E·돈넬·토머스를 중심한 골수이식전문가들을 일찍 맞아들였기때문。

이들은 시애틀모델이라는 새로운 골수이식법까지 표준화했으며 82년 1월말 현재 1천1백62명을 골수이식하여 생명이 끝난 혈액암말기환자중 41%를 살린업적을 올렸다。골수이식은 최근에 수술한 경우일수록 성공률이 높다。골수이식후유증인 거부반응(GVH病)、폐렴、암재발통제기술등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때문이다。

治療의 종합藝術

허친슨연구원가 실시한 1천1백62건의 골수이식수술은 전세계에서 실시된 골수이식수술건수의 65%에 해당하며 수술혜택자도 南아프리카人으로부터 대만인에 이르기까지 세계19개국환자들로 구성돼있다。

『골수이식은 분명히 암정복의 한 혁신이다。그러나 다른암치료방법이 다 그렇듯 골수이식수술역시약물요법、방사선요법、수술등 전통적인 3대방법의 종합예술의 일환으로 개발된것이며 또 이관련분야의 연구진전으로 그성공률도 높아질것이다』

허친슨원장은 골수이식수술을 허친슨암연구원의 대표적인 암정복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주저하지 않았으나 연구원자체가 암의 전반적인 실험실 연구、치료、교수를 맡고있는 종합 암센터라는 것을 흐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걸리면죽던" 血液癌 이젠 60%살아

19개국서온 死亡직전 千餘환자중 41%살려

骨髓바꿔주는 移植手術 世界첨단

골수이식수술은 극히 간단한 원리에서 출발한다。白血病이나 再生불량성 빈혈은 처음에는 피속의 어딘가에 암세포가 붙었다가 결국 피를 만드는 造血공장격인 골수까지 침범한 것이므로 이『造血공장의기계』자체를 갈아치우면 암이 완치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우리몸의 피는 어머니뱃속 시절에는 간이나 지라에서 만들어지다가 커짐에 따라 造血기능이 뼈속에 있는 골수(Marrow)로 이양된다。

致死率 무려85%

골수는 말하자면 피를 만드는 공장이다。암이 이 골수까지 침범하게되면 우선 백혈구를 잡아먹고(白血病)、적혈구、혈소판등이 제제기능을 발휘할만큼 크기도전에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재생불량성 빈혈)

백혈구가 감소되면 체내의 면역성이 없어진다。적혈구가 제기능을 발휘할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피가 달려 축늘어지며 血小板이 부족하면 조그마한 상처만 나도 피가 멈추지않아 생명을 앗긴다。

이런 혈액암의 치사율은 골수이식수술이 없는경우 약85%에 이른다。초기에 발견되면 가끔 치료되기도하나 암세포가 혈관이나 임파선을 타고 전신을 돌기때문에 일단 이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봐야 한다。암 세포는 잘 가꾸어진 잔디밭의 잡초같이 몸에 영양분을 주는 골수가 암세포만 세력이 커져 환자는 더 늘어진다。

혈액암에 걸리면 빠르면 2·3주、아니면 4년을 더 견디지 못한다。혈액암 환자들은 造血공장을 갈아치우는 골수이식수술이 개발됨으로써 결국 희망을 갖게된 것이다。

E·돈넬·토머스가 골수이식수술을 처음 시도했던것은 1956년의 일。뉴욕의 쿠퍼타운병원에서 실시했던것인데 골수이식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토머스는 1975년 허친슨연구원이 발족되자 윌리엄·허친슨원장의 기꺼운 영입으로 골수이식연구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수술을 실시해 암정복의 大路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쌍둥이골수 最適

허친슨연구원 골수이식반은 돈넬·토머스를 수석으로하여 알렉산더·페퍼、레이너·스톨브、C·딘·버크너등 세계적 골수이식대가들이 팀을 이루고있다。토머스는 암의학계의 노벨상으로 꼽히는 제너럴·모터즈재단의 81년도 케터링賞을 수상했다。

골수이식은 우선 부작용없이 골수를 이식받을수 있는 同質골수 소유자를 찾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가장 안전한것은 一卵性쌍둥이의골수를 이식받는것。

두명의 同質性쌍둥이 (Identical Twin)의 경우 어느한쪽이 혈액암에 걸리면 암걸린 골수를 죽여버리고 대신 건강한 편의 골수를이식하면 된다。

동질성(一卵性)쌍둥이는 신생아 2백60명꼴에 한쌍씩 나타나는데 이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것과 인체구조 역시 거의 같기때문에 골수이식을 하는경우 아무런 거부반응이 없다。다만 5세이하는 쌍둥이의 한쪽이 암에걸리면 다른쪽도 덩달아 암에걸릴 가능성이 많아 문제가되나 나이가 많아짐에따라 이문제는 자동 해소된다。

5년生存率 60%

두번째로 골수이식을 받을수있는 대상은 형제자매。성별은 無關하나 형제중 抗原(Antigen)구성 즉 조직적합항원(HLA)이 같을경우에만 골수를 이식받을수 있다。형제 자매중 HLA型이 같을 확률은 40%내외。부모 또는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는것도 연구중이나 아직은 실험단계다。

자녀는 부모양쪽의 세포형질을 반반씩받아 태어나기때문에 부모 어느한쪽에서 같은 HLA를 찾기가 어려운것。그러나 거부반응(GVH)병을 막을수있는 면역학의 진전에따라 부모、또는 가까운친척의 골수를 이용할수있는 가능성은 커지고있다。

지금까지 실시한 1천1백62명의 골수이식환자중 5년이상 살았거나 살것이 예상되는 자는 41%쯤。그러나 면역학등 直接관련학문의 발달로 최근에 수술받은 사람은 약60%의 성공률을 보이고있어 골수이식에대한 암관계자들의 기대는 커가고왔다。

워싱턴대학 의과대학교수이며 허친슨암연구원 골수이식반의 넘버·투인 알렉산더·페퍼를 만났다。그는 ▓▓하고 조그마한 얼굴에 볼품없는 검은테안경을 연거푸 벗었다 끼었다하면서『어느날 인류가 암을완전히 정복했다고 외칠수 있다면 그 외침은 골수이식수술실에서나올것』이라고 자신만만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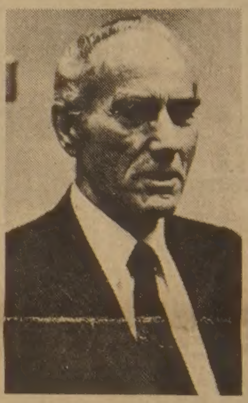
암세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아직 규명되고 있지 않다。그러나 암세포를 죽일수 있는 藥은 이미 많이 개발됐다。

암세포의 유전물질 즉 DNA의 생성을 막는 알킬레이트系 약품(사이톡산、LPAM등)、암세포의 신진대사를 차단시켜 이의 생존을 막는 反신진대사系약(5FU、6MP등)、블레마이신이나 아드리아 마이신같은 암항생제등등。

이같은 약들은 확실히 암세포를 죽일만큼 강력하나 문제는 암세포와함께 정상세포를 죽이기때문에 만족할만한 양을 투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患者 비닐원통에

골수이식은 사이클로포스퍼마이드(CY)、버술팬(BN)등 극약類의 암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1천RAD이상의 방사선을 쬐어 암세포를 깡그리 죽인후 암세포와 함께 말라버린 골수를 정상골수의 이식으로 再건조하는 것이다。



◇프레드·허친슨기념 암종합병원장 윌리엄·허친슨。그는 醫學명문인캐나다의 맥길의대를 졸업한후 40년을 암전문의로 활약해왔다。암에 걸리지않으려면 우선「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친슨연구원의 골수이식병동은 3층에있다。환자침대20개로 순전히 골수이식수술만하며 1주일에 한명꼴로 이식환자가 넘치거나 많으면 두명의 환자를 다룬다。골수이식환자가 넘치거나 다른 암환자를 받을경우는 복도를 사이에두고 나란히 서있는 스웨덴병원이나 워싱턴大學병원、기타 자매관계를 맺고있는 시애틀중심의 30개종합병원에분산한다。

환자와 골수 증여자의 골수가 검사결과 동일한 HLA型인 것이 밝혀지면 우선 골수증여자의 볼기짝에 커다란 주사바늘을 꽂아 골반으로부터약7백cc의골수를뽑아낸다。

약간 끈적거림이 더하고 색깔이 좀 짙은것이 다를뿐 피와 똑같은이 골수는 실험실로 옮겨가 질소에 보관된채 환자에게 필요한것 즉 백혈구가 필요한 환자면 백혈구조혈골수、혈소판필요환자면 혈소판조혈골수 또는 전체골수를 遠心分離방법에의해 분리한후 암환자의 정맥을 통해 주사한다。주사된 이식골수는 신비스럽게도 스스로 환자의 골반을 찾아가며 즉각 조혈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골수를 빼는시간은 약2시간쯤。골수이식을 받는 환자는 장기간의 약물치료·방사선조사로 피가 거의 마른 상태이며 백혈구기능이 없어 이때 감기라도 걸리면 죽게된다。이때문에 병원3층은 엄격한 격리시설이 돼있고 환자들은 비닐로 만들어진 커다란 원통안에서 공기와 음식을 받아먹고있다。

入院料 하루千弗

간호원의 접근도 통제되고있기때문에 수련간호원들은 환자방을 방문하는 대신 VTR스크린을 통해 수술장면과 환자치료기술을 익히고있다。연구원 도서실에는 수련간호원들이 VTR수상기앞에 모여 열심히 수술장면을 익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수술이 성공할 경우 환자는 1주일후면 퇴원하여 外來진료를 받게된다。

1일 병원비는 약1천달러쯤。

허친슨연구원은 현재 3단계골수이식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다。첫번째는 同質性쌍둥이의 골수이식이고 두번째는 형제 자매중에서 골수성질이 같은 HLA型이 있는것을 발견해 형제자매간 골수이식수술을 한것이었는데 이제 자기골수를 암치료전에 빼내 이를약물치료한후 再투입하는 자기골수이식법(Autologous Bone Marrow Transplantation)을개발하게된것이다。

토머스연구팀은 골수를 실험관에서 정화할수있는 4HC라는 특수암약을 발견했다。4HC를 이용하는경우 남의 골수를 받을 필요없이 자기골수를 빼내 실험관에서 암세포를 죽인후 이미 암세포를 죽인 본인의신체에再투입하면골수를살리면서 전체암을치료할수있는것이다。

허친슨연구원은 이(자기골수이식법을 이용、急性임파성백혈병(ALL)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으며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할 단단한 준비를 하고있다。

허친슨암연구원에는 암정복을위한 1백50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있다。직원은 약8백명。이중 98명이 암전문의 또는 박사학위소지자들인데 이 1백50개계획중 골수이식과 직접관련된것으로는 ①HLA형별법의 광범한 적용연구 ②자기골수이식을 위한 실험관투약연구 ③혈액암이외의 암퇴치를위한 골수이식법적용등이다。

1년研究費 1,800萬달러… 15%가 美전국의 기부금

한국인없어 섭섭

지금까지는 同卵性 쌍둥이나 HLA같은 형제자매로 부터만 골수를 이식받을수 있었지만 사람의 골수를 일정한 型에따라 분리할수 있는 어떤 방법만 개발된다면 아마 혈액이 없는 경우도 혈액수혈처럼 얼마든지 골수를 이식받을수 있을것이란것。

이 연구는 골수이식때 생기는 GVH병의 방지를 위한 T型백혈구 연일연구도 포함하고있다。페퍼교수는 이 연구는 83년末안으로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내다봤다。

혈액암이외의 암을 골수이식으로 고친다는 가설도 꽤 확실한 근거를 갖고있다。예를들어 유방암이나 위암세포를 약물 또는 방사선으로 죽인후 암세포제거때 파괴된 정상세포를 골수이식으로 살려만주면 된다는 것이다。이 방법도 주목할만한 실험을 끝내고있다。

골수이식법은 걸리면 죽는것으로 돼있던 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등을 현재60%생존율로끌어올려놨다。

골수이식실패 40%는 골수이식거부반응(GVH병)、폐렴、암재발등이 그 내용으로 돼있다。GVH병은 보다강력한 사이클로 포스마이드(CY)같은 면역억제 개발로、폐렴은 특수폐렴약투약으로、그리고 암세포재발은 골수이식수술전에 실시했던 약물투여·방사선치료가 암세포를 충분히 죽이지못했기때문에 일어나는것이라는 가설아래 연구쪽을 좁혀가고있다。

허친슨연구원의 연간 암연구예산은 약1천8백50만달러。이중 15%가 개인기부금이다。

81년의경우 허친슨암연구원에 보내진 개인헌금은 뉴욕의 한어린이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보낸 25센트로부터 25만달러의 유산등 7백여명의 성금으로 돼있다。

미국인은 3가족당 1명의 암환자를 갖고있다。친구、이웃、친척중 암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자는 아무도없다。허친슨연구원에 보내지는 헌금들이 광범한 범위를갖고 있는것은 바로 이런이유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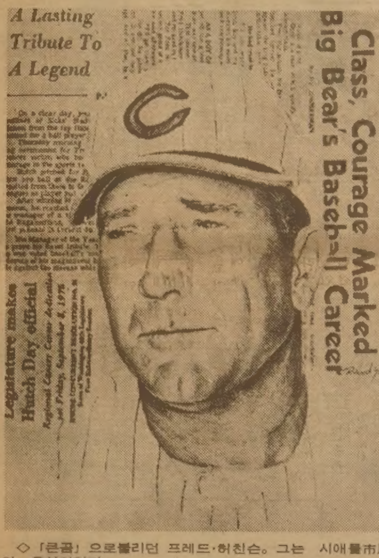
윌리엄·허친슨원장은골수이식수술환자명단을 짚어가며『한국사람이 없어 섭섭하다』고 말했다。그는 허친슨암연구원이 시애틀주민의것도、미국인의것도 아닌 암과 싸우는 全人類의 재산이라며 암정복을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시애틀=鄭逸和기자】

「名투수에 名감독」…無名의 팀을 내셔널리그 霸者로

野球천재 '허친슨' 기념 시애틀 市民들이 建立

지나친 흡연 45歲때 肺癌으로 숨져



◇「큰곰」으로불리던 프레드·허친슨。그는 시애틀市民의 우상이었다。

신시내티·레즈팀의 야구감독 프레드·허친슨이 肺암으로 45세의 짧은 생애를 마쳤던 1964년 4월16일、시애틀·타임즈紙는『프레드는 갔다。그러나 그가 시애틀을 靈源으로부린 불굴의 투혼은 영원히 죽지않을것』이라고썼다。

50년대의 美야구계를빛내던『名투수·名감독 프레드』에대한 시애틀주민의 사랑은 10년을두고영글었다。1975년 콜롬비아街에 종합암연구소가 세워지고 프레드·허친슨에게 바쳐졌던것이다。

프레드·허친슨은 시애틀의 프랭클린 고등학교시절 이미 당당한 名피처의 명성을 얻었다。워싱턴주립대학에 입학했다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팀의 끈질긴 교섭을 받아 1939년 프로야구생활을 시작했다。

타이거스팀 入團2년째인 40년 그는 무명의 타이거스팀을 내셔널리그의 霸者로 끌어올린뒤 월드시리즈에나가 아깝게 신시내티팀에 분패했다。

그러나 45년 디트로이트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을때 그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39년부터 51년까지 디트로이트팀의 피처로 그리고 52·53년 2년동안 이팀의 감독으로 활약한후 그가 폐암으로 죽던 64년까지 시애틀 레이너스、세인트루이스 카디날、신시내티 레즈팀의 감독을 맡았다。

그는 프로 피처생활중 95勝71패의 당당한 기록을 올렸으며 여느 피처와는 달리 타율도높아 월드시리즈 평균 2할6푼3리의 강타력을 보였다。

칼럼니스트 에미트·왓슨은 프레드·허친슨병원이 개원하던날 쓴 글에서『나는 프레드와 어린시절을 같이 보냈다。그는 우연히 야구선수의 길을 걸었지만 어떤 길을 걸었었더라도 성공할 친구였다。언제나 패배를 모르며 무슨일에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별명인『큰곰』(Big Bear)처럼 탄탄하던 프레드가 肺癌으로 쓰러진것은 순전히 하루에 3갑씩피던 담배때문이었다고 윌리엄·허친슨은 말했다。

프레드가 죽은지 半세대가 넘는 지금도 조·디마지오를 비롯한 지난날의 야구界친구들과 그를 아끼던 팬들의 발걸음이 프레드·허친슨연구소에는 쉬지않고 이어진다。

프레드·허친슨종합암연구소는 홍보실한쪽을 아예 프레드기념방문객실로 잡아놓고있다。그러나 대신 방문객의 연구실내부방문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

◎주택, 대지, 아파트
◎가게, 상가, 사업체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 분
◎좋은 사업 계획에 투자나 동업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채 준 성
(DAVID CHAE)

—경 력—
☆수퍼마켙 소유 운영 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 2년
☆부동산업 종사 7년 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한국기원 아마바둑 4단

☎ : (416)633-7892 (B)
(416)497-8900 (R)

연예인들의

찬양과 간증의 밤

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 : 17)

한국연예인교회

복음가수 허 림 집사
복음가수 전일용 성도

파란만장한 역경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의 삶과 넘치는 기쁨을 찾은 이들이 영혼으로 부르는 찬송과 생생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에 여러 분을 초대 합니다.

일 시 : 4 월16, 17일 저녁 7시 18일8시
장 소 : 순복음카나다교회교회당

순복음카나다교회

1030 ALBION RD., REXDALE, ONT. M9V 1A7 (한국식품서부지점옆)
전화 : 교회 743-4813, 사택 745-3884 조이식 목사

탁명환교수 신앙강좌

본 한인교역자 회의에서는 연합으로 국제 종교문제 연구소장이시며, 사이비종교계의 권위자이신 탁명환교수를 초청하여 신앙강좌를 실시코자 하오니 교민 여러분들의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강 사 : 탁명환교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일 시 : 1982년 4월 16일 (금)~18일
(주일저녁) 까지
매일저녁 7 : 30분
장 소 : 연합교회
300 BLOOR ST. W.

한인 교역자 회의

外製불량품 설땅없다

5월부터 輸入생활용품 通關때 品質검사

공업진흥청은 오는 5월부터 형광등, 수도꼭지, 도어로크등생활용구를비롯한 1백여 수입완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실시, 불량품은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5일 공진청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완제품중에는 상당품목이 KS수준에 미달할 뿐더러 불량품이 많은 실정이므로 가정용 소형전압기 콘센트및 플러그 수도꼭지 도어로크 형광램프등 1백여 수입완제품에 대해 통관전 품질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대상품목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진청은 통관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품으로 판정된 제품의 수입및 통관을 불허, 불량외산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하고 전기용품은 전자공업진흥회로 하여금 통관전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할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정된품질검사 대상품목은 다음과같다.

▲백열전구▲형광램프▲형광등기구▲형광램프용안정기▲소킷▲콘센트및 플러그▲가정용 소형스위치류▲가정용 소형전압조정기▲아연도강관▲수도용경질비닐관▲방진마스크▲자동차 기관용베어링▲"파스텐▲자동차용워터 호스▲수도꼭지▲도어로크▲욕조▲자동차용 안전벨트▲자동차용 온수식난방기▲녹화및 녹음용자기테프▲전화기▲쇠톱날▲스패너▲펜치▲지퍼▲유모차▲보행기▲주판▲샤프연필심▲볼펜심▲롤러스케이트▲홈파스▲학생용가위▲우산및 양산▲자동완구▲자연학습교재▲음악학습교재▲연필깍기▲어린이용그네▲유압작동유

還特稅率제도 83개品目확대

재무부는 관세환급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계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관세환급에 대신해서 낮은세율을 부과하는 還特稅率제도를 대폭확대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수출품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수입원자재중 수출과내수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출용원자재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한 관세환급제도를 생략하고 대내수에 사용되는 부분만 세금을 물도록 낮은 세율을 적용, 세금을 부과하는 환특세율제도를 크라프트라이너, 가발원사, 원피, 인발등 4개품목에 적용하고있는데 오는 7월1일부터는 무수암모니아, 이산화티타늄, 파라키실렌, 사이크로헥산, 원피, 돼지가죽등 83개품목에도적용키로했다.

구제金融쓴 업체 企業신설등 규제

은행감독원은자기자본비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기업정상화 금융을 쓰고있는 주거래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를 일체 금지하도록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5일 은행감독원은 주거래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규제를 강화하기위해 관계 통첩을 개정, 기업정상화금융을 쓰고있는 기업은 물론 계열 산하의 어떠한 기업체(기업주)도 다른 기업을신설하거나 매입,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모든 은행에 시달했다.

新入·편입생모집 無許神學校 고발

【大田】忠南도교위는 3일 당국의 인가도없이 신학교를 설립,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 大田시東구元동85소재 감리교남부신학교교장 金규태씨를 충남도경에 고발했다.【聯】

張允昌선수 큰兄 胃癌투병중 別世

위암으로 사경을헤매던 남자배구 국가대표선수 張允昌의 큰형 張基壽씨(35)가 4일하오 九宜洞 한렐루야기도원에서 별세했다.

張씨는 한달전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암진단을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을 포기, 그동안 기도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었다.

브,내달 모든公職사퇴

美誌보도 心臟病등 건강好轉돼도

【뉴욕4日UPI=聯】약2주전에 심장마비증세를일으켜 병원에 입원중인것으로 알려진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오는5월 모든공직에서 사임할것이라고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4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날 발행된 최신호에서 한 미정보문서를인용, 현재 위급한 상태에있는 브레즈네프가 이같은 위기를벗어나 살아나더라도 5월 개최되는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기해 공산당서기장및 국가원수직에서 물러날것이라고 분석했다.

◇포클랜드敎會앞의 아르헨裝甲車 2일 아르헨티나軍에의해 무력점령된 포클랜드群島의 수도 포트스탠리에있는 한교회앞에 아르헨티나軍의 병력수송용장갑차(APC)가 서있다.【포트스탠리(포클랜드군도) 4日UPI電送=聯合】

退院후 自宅서 療養中

日선"다시 惡化됐다"重態說나돌아

【모스크바4日AP=聯】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은 지난3월말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자택으로 돌아갔으며 서서히 건강을 되찾고있다고 정통한 소련소식통들이 4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브레즈네프가 지난 3월25일 크렘린 맞은편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했었으나 지금은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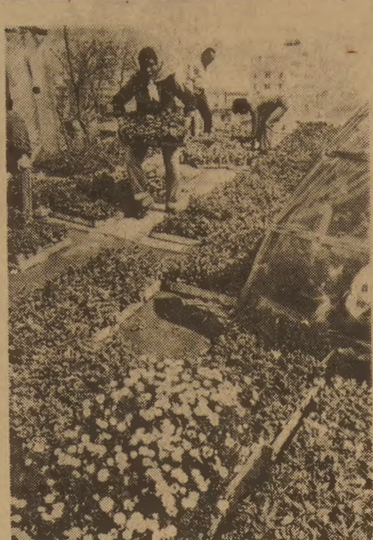
이 소식통들은 그러나 브레즈네프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입원하게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련관영보도기관들은 여태까지 브레즈네프의 입원 사실에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그가 병을 앓고 있다는 아무런 공식확인도 나오지 않고있다.

【東京5日=宋孝彬특파원】심부전증으로 입원중인 브레즈네프 소련서기장은 병세가 다시 악화되어 중태에 빠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정통한 병원관계소식통을 인용,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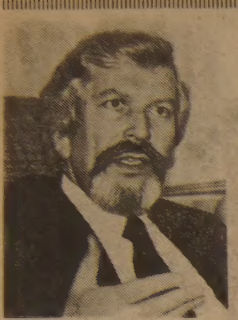
이신문은 브레즈네프의 중태에따라 크렘린은 이미 권력재편성을 에워싼 암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다음서기장으로는 체르넨코 정치국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브레즈네프는 25일 타시켄트에서 모스크바로 오는도중 심장에 이상이생겨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요인용 특별병원에 입원, 주치의의 치료를 받아 한때 회복되어 3월31일에는 정례 정치국회의를 병원에서 열기로했으나 지난3일에 들어서 병세는 다시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主婦발길 줄이은 꽃가게 한창 꽃망울을 벌이고 있는 길녘의 개나리꽃과 어우러진 팬지. 데이지꽃이 곱고 앙징스럽다. 식목일을 맞아 서울 瑞草洞 꽃마을에는 한다발에 2백~3백원씩 하는 팬지, 데이지꽃을 사려는 가정주부들이 줄을 이었다.

西베를린市議會 피터·렙쉬議長



우리와 같은 分斷國인 西獨의 피터·렙쉬 西베를린市議會의장은 東西獨과 南北韓의 分斷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南北韓과 東西獨간의 分斷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東獨은 아예 統一을 바라지 않습니다. 南北韓은 양쪽모두가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고무적입니다. 문제는 통일의 방식에 달려있는데, 북한의 통일방식이 武力에 의한 일방적인 통일이라는 사실에 난점이 있는게 아닙니까. 또한가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다음 世代가 갖게될 통일방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색되고 경악할만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5분인터뷰

東西獨·南北韓은「統一의지」서로달라

北韓의 武力의존방식 事態만 더욱惡化

北韓에 대한 렙쉬議長의 懷疑的인 견해는 東獨에 대한것 이상으로 굳혀져있는것 같다.

—統獨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統獨을 위한 해결방안은 아직 없어요. 統獨이라는 명제가 당사자인 東西獨만의 힘으로 해결하리라는 기대는 잊혀진지 오랩니다. 西獨을 안고있는 EC(歐共市)、東獨을 걸머진 코메콘(東歐경제상호원조회의) 간의 대결이 아닙니까』

統獨에 관한 절대妙案이 있을수 없다고 말한다. 양쪽이 서로를 개별국가로 承認한 것은 이런 妙案의 不在에서 비롯된 次善策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최근의 폴란드事態를 어떻게 보는지.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이상 방관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요. 최선의 방안은 정치적 해결방식인데 억류된 바웬사와 다른 勞組지도자간의 제휴가 불가능한 이상 뾰족한 방안을 찾기힘든것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처지가 아니겠읍니까』

지난달28일 국회초청으로 來韓한 렙쉬의장은 丁來赫국회의장, 劉彰順국무총리, 盧信永외무장관등을 차례로 예방했으며 공업단지와 慶州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지난58년 基民黨에 入黨후 슈판다우副市長, 西베를린市의회의원을 거쳐 지난해6월 현직에 취임한 변호사출신 정치인.

西獨 공기총선수권자로 지난78년 泰陵대회에 西獨팀장겸 국제심판으로 來韓한바있다.【金勝雄기자】

멕시코 최대火山폭발

百여死亡…7만여명 財産피해막심

【피추칼코(멕시코)4日AP=聯】지난29일부터 폭발이 시작됐던 멕시코동남단 타바스코주의 엘·친초날화산은 3일밤(한국시간4일오전) 그동안 볼수없었던 최대의 폭발을 일으켜 인근 주·만여명에 막대한 재산피해를입혔으며 지난1주일간 이화산폭발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백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들은 지난5일동안 3차례의 폭발을 일으켰던 멕시코市동남방1천2백90km지점의 이화산(해발1천3백23m)이 이날 가장 강력한 4번째 폭발을 일으켜 뜨거운 돌과 용암이 인근 마을을 덮치고 약 1시간동안 검은연기가 해발 3천6백m지점까지 치솟았으며 정부는 이와 관련 이지역일대를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구조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安保공약우려 拂拭 와인버거 歸國회견

【워싱턴4日AP=聯】한국과 일본 필리핀등 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태평양지역안보에대한 공약을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이들국가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시켰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大使館員 피살

파리駐在 2등書記官 괴한銃擊

【파리3日AP·AFP=聯】파리주재 이스라엘대사관의 야코브·바르시만토프정치문제담당2등서기관(43)이 3일저녁7시50분께(한국시간) 자택아파트건물을 나서다 한 여자저격수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파리경찰과 이스라엘대사관이 말했다.

파리경찰소식통들은 바르시만토프2등서기관이 17살난 아들과 함께 파리市 제16區 페르디난뒤송가의 18층짜리 아파트건물을 나서는순간 여자저격수로부터 머리에 여러발의 총탄을 맞았으며 구급차에서 응급처리를 받았으나 2시간후 절명했다고 말했다.

마이어·로센 이스라엘대사는 바르시만토프 2등서기관 암살사건의 배후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있다고 비난하면서『바르시만토프2등서기관은 유태인이자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암살됐다』고 주장했다.

海外토픽

★변호사가 불구경생각하다 被告에 딴助言 중형

자신에게 변호를 의뢰한 피고가 위조죄로 20년징역형을 선고받자 담당변호사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이 놓쳐 피고에게 유죄를인정하도록 조언을 잘못하는바람에 피고가 유죄선고를 받게됐다고 판사에게 하소연.

피터·레글러란 이변호사는 담당판사에게 피고 바버라·퍼웰(35)이 그녀의 유죄인정을 철회하고 배심원에의한 평결을받도록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는 것.【버지니아비치=UPI】

★30層빌딩에서 실험에 성공 火災때 脫出機개발

호텔의 투숙객들이나 소방관등 위험직종종사자들은 에어팩(공기주머니)이란 새로운 안전장치의 개발로 앞으로는 위기발생시에 보다 안전히 탈출할수있게 됐다고 이장치를 개발한 존·스컬로크라는 미국인이 주장했다.

이 에어팩은 사람이 뛰어내릴경우 순간적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그를즉시 땅에 안전하게 내려놓게되는데 30층 빌딩의 실험에서도 성능이 입증되었다는것.【뉴올리안즈=UPI】

武力紛爭으로 6百만희생

全世界 45年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45년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각종 무력분쟁에서 총6백만명이 희생되었다고 영국사학자 존·킴씨가 주장.

킴씨는 『서기 2000년의 인류애』란 주제를 놓고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그같이 주장하면서 그러나 지난 약40년간 인류가 겪은 가장중요한 합의점은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해온 점이라고 강조.

그는 앞으로 혹시 새로운 대규모 국제분쟁이 벌어진다해도 강대국들은 핵무기나 세균무기등은 결코 사용하지않을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하이파(이스라엘)=AP】

가스暖房」시대「進入

아파트 1천家口분 시험供給

動資部 長期계획

정부는 가정연료를 점차 연탄에서 가스중심으로 개편해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올림픽이 개최되는 88년에는 전家口의 35.6%인 3백30만가구에 가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5일 동자부가 마련중인 장기가스보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88년까지 서울·釜山·大邱등 대도시의 1백15만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중소도시의 84만가구에는 집단가스, 그리고 농촌지역이나 집단가스공급이 어려운 도시지역의 1백32만가구에 대하여는 용기로 공급키로 되어있다.

동자부는 특히 85년부터 京仁지역에 공급될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시가스용 수요확보를위해 서울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난방용시험공급단지를 선정, 1천가구분의 난방용을 공급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83년부터는 난방용가스공급을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의 가스사용형태는 주로 용기에 의한 취사용위주로 가스사용가구는 도시가스 21만8천가구, 집단시설 24만9천가구, 용기 57만3천가구등 총1백4만가구로 13.4%에 그치고 있다.

經濟短信

▲食生活개선심포지엄=韓國農村經濟研究院(원장 金南炫)은 6일 연구원대회실에서 식량절약및 식생활개선에관한 심포지엄개최.

▲趙重建씨, 加州大서 國際하스賞 수상=趙重建KAL부사장이 캘리포니아大가 同門에게 수여하는 82년도 하스國際賞을 수상.

▲朴宇熙교수「하이에크」출판=서울대 朴宇熙교수는 케인즈를 비판하고 신자유주의사상을 전개한「F·A·하이에크」(생애·학설과사상)를 경제학전집제1권으로 출판. 裕豐출판사는 현대 경제학전집을 계속시리즈로 출판할예정인데 가격은 6천원.

▲농수산부직원, 불우돕기=농수산부및 산하기관직원들은 농산물검사소 충남支所禮山출장소 玄錫云씨를 위해 4백65만원을 갹출, 玄씨의 누이동생(24)의 심장수술비 일부를 도왔다.

▲第一製糖「유전 공학」책자발간=제일제당은 최근 제3의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유전공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담은「유전공학의 오늘과 내일」을 발간.

개인택시 代理운전기간「6개월간」은 不合理

診斷書있으면 延長해야

【大田】자동차운수사업에 개인택시 운전은 차주본인의 직접운전만이 가능하게 돼있으며 이 아플경우에도 6개월까지만 대리운전이 가능하기때문에 장기간 질병이 계속될 경우 차량운행을 정지해야 하는 불리한 점을 드러내고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忠南도운수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개인택시 대리운전규정으로 최근 개인택시들이 운행을 하지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대리운전규정을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大田市中區文化洞 金모씨(42·개인택시영업)는 『심한 신경통으로 6개월간 대리운전을 시켰으나 완쾌되지 않아 계속 쉬어야할 형편인데도 제도상 대리운전이 안돼 멀쩡한 차량을 그대로 세워놓고있다』며『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6개월이후에도 일정기간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聯】

한국일보 533·2361

메아리

清明 寒食

식목일로서 공휴일이던 5일은 淸明이요 오는 6일은 寒食이다. 태음력의 형편에따라서는 청명과 한식이 한날에 드는 경우가 있으나 올해는 하루사이의 차가 있는 해이다.

농촌에서는 예로부터 농사일을 청명에 시작했고 궁에서는 이날 버드나무와 느릅나무에 불을 붙여서 여러 관아에 나누어 주었다. 이는 궁에서 내린 불로 일년내내 불을 소중히 다루라는 뜻이라고 일러오나 과연 그 확실한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날 별로 자세치가 않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백5일이 되는 날로 치는데 이날은 청명과는 달리 조상의 무덤에 제수를 차려놓고 한식차례를 지낸다. 이와같은 무덤에 대한「묘사」는 조상을 추모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겨우내 혹시 무너진데라도 생기지 않았나 하며 보살피려는 배려도 곁들인 것이다.

이처럼 선조의 무덤을 보살피고 나아가서는 선조를 받드는 마음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한식이 되면 동작동 국립묘지를 비롯하여 망우리나 벽제같은 서울근교 공동묘지에는 성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붐비는 한식을 피하여 하루를 앞당기거나 또는 미루는 경우도 있는모양인데 우리 사회의 가치관속에 특히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토록 맥맥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적이 마음 든든한 일이다.

조선왕조 5백년을 지탱했던 유교의정신은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는 효도를 바탕으로 했고 효도를 모든 가치의 근본으로 여겼다.

그런 가치관은 한식일의 성묘인파로보아 지금도 흔들림이 없는것같고 또 인구의 도시집중이나 산업사회로의 이행에서 오는 사회적 조건의 급변에도 잘견디고 있는것으로 생각되어 우리의 정신적 기층이 일부의 우려처럼 위협수위에 이르지않았음을 깨닫게한다.

한가지 알아둘것은 한식이 음력 2월에 들지 않고 올해처럼 3월에 들면 조상의 무덤에 벗겨진 잔디를 입히거나 허물어진 축대를 다시 쌓는 개사초의 역사는 않기로 되어있다. 이는 아마도 절계가 농번기와 겹치는것을 피하려는데서 오는 배려인듯 하다.

火曜안테나

親北傀집회 실패 제네바 左傾교포

金日成의 생일축하행사의 일환으로 보이는 2개의 친북괴반한집회가 제네바에서 3、4일 이틀간 열렸으나 매스컴의 외면을 당한채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곳 메디터라네호텔에서 열린 일단의 친북괴해외교포들의 소위제5차민족통일심포지엄은 외부인의 출입및 방청이 일체 봉쇄된 가운데 진행됐다.

北傀의 지원아래 또하나의 이른바 국제여성집회와 함께 열린 이번모임은 우선 그들이 예상한 참석자의 반수정도밖에 참석하지않았으며 제네바의 매스컴이 외면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것으로 보인다.【제네바=聯】

蘇그로미코 유고에 티토사망후 첫訪問

안드레이·그로미코 소련외상은 4일 요시프·브로즈·티토 대통령사망이후 처음으로 비동맹국인 유고의 지도자들과 회담하기위해 베오그라드에 도착했다.【베오그라드=UPI】

美·中共 관계不變 무기판매 紛爭불구

宋之光주일 중공대사는 3일 미·중공기본관계가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를 둘러싼 분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변함이 없다고 다짐했다.【東京=UPI】

濠人5만 反核시위 베트남戰이후 최대

濠洲의 주요도시인 시드니와 멜번에서 4일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시내 거리를 행진하면서 월남전이래 최대규모로 보이는 반핵시위를 벌였다.

약 3만명의 시드니 시민들은 이날하오 反核플래카드를 들고 시내 하이드·파크로 행진, 이곳에서 개최되는 정치인·노동조합및 종교계지도자와 작가 패트릭·화이트씨의 무기감축 강연집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시위를 벌였으며 멜번에서도 약 2만명의 시민들이 반핵 시위행진을 벌였다.【시드니=UPI】

◇포클랜드出動하는 英왕자 5일포클랜드로 출항하는 항모 인빈시블호에 승선할 앤드루영국왕자의 군복차림 모습. 앤드루왕자는 이항모의 헬리콥터조종사로 작전에 참가하게된다.【런던3日AP電送=聯合】

統一敎 활동금지령 星港, 질서파괴이유

싱가포르정부는 文鮮明씨의『세계기독교통일신령연합회』(통일교)가『공공복지와 질서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2일밤 이협회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협회는 지난76년부터 싱가포르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80년9월29일 등록을했다.【싱가폴=AP】

폴란드 通禁을해제 復活節맞아 3일간

폴란드계엄정부는 부활절을 맞아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작년12월 계엄선포이래 실시돼온 通禁조치를 해제할것이라고 바르샤바방송이 4일 보도했다.【바르샤바=AP】

內外動靜

▲金斗煥대통령은 4일 제22회 독립기념일을 맞은 두·디우프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日帝에희생 韓人 사이판서 慰靈祭

【사이판5日=高昭雄특파원】海外희생동포慰靈사업회(회장 李龍澤의원)는 5일상오 南太平洋의 北마리아나 연방사이판市에 있는「太平洋한국인 慰靈塔」墓域에서 2차대전중 日帝에 끌려가 희생당한「異域의 冤魂」을 달래고 위령제를 奉行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李회장과 金鍾載(民正) 林栄洪(民權) 曹亨富의원(무소속)과 현지교민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위령사업회는 이에앞서 4일 北마리아나연방 티니안섬에서「평화 祈願 한국인慰靈碑」를 참배했으며 8일에는 벨라우공화국코롤市KB공원에서도 위령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藥物말썽 도까시끼 힘겹게 타이틀防禦 WBA J플라이급

【센다이(仙臺)4日=聯合】프로복싱 WBA 주니어플라이급챔피언 도까시끼·가쓰오는 4일 저녁 센다이市에서 벌어진 도전자 루페·마데라(멕시코)와의 타이틀전에서 고전끝에 근소한 점수차로 판정승, 첫 타이틀방어에 성공했다.

약물중독파문속에서 첫방어전을가진 도까시끼는 초반 마데라의 공세에밀려 고전했으며 특히 마지막15라운드에서 연타를맞고 비틀거리는등 다운직전까지 몰렸다.

마데라측은 채점결과가 발표된뒤 격렬하게 항의, WBA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로, 집사취임예배

새로운 한인교회의 탄생과 함께 장로 집사의 취임예배를 드리고저 합니다. 형제 교우 여러분께서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2년4월18일 오후 1시30분

곳 : 한 인 교 회
(West Minster United Church)
69 William Street(Lawrence Ave 북쪽과 Hwy 401 남쪽. Jane St. 과 Weston Rd중간에 위치)

설교 : 이 상 철 목사

한인교회임시운영위원회삼가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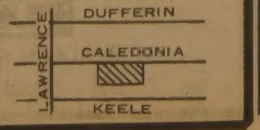
Apr.5-Apr.17

Jersey milk thick bar	36x55¢	$13.25
Laura secord frenchmint family	24x99	14.45
Rowntree snack pack	36x9 box+12 free bar	94.45
Wilson pop	24x10oz.can	5.39
FBI Pure apple juice	24x10 oz.	7.99
Sunpec juice	24x10 oz.	7.99
Sunpec nectar (Aprico + Peach)	24x10 oz.	8.35
Toplerone bar 50g.	20x79¢	9.99
Toplerone bar 85g.	24x$1.45	21.19
Tober family bar 85g.	12x 1.45	10.59
Dare peg top candy	12x 1.29	9.19
Glad garbage bag	24x10	30.99
Sun light detergent	12x3 lit	22.05

Victoria day에 피료한 Fire Crac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May16(일) 8:00a.m.-2p.m. May22(토) 8:00a.m.-1p.m.
May23(일) 8:00a.m.-2p.m. May(Victoria day) 8:00a.m.-3p.m.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신부 구함

당년 27세된 미혼청년 으로 토론토에 계시는 부모님과 누님들을 방문중이 온데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으신 신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군입대때 대학중퇴를 하였으며, 키는 좀적은 편이나 피부는 흰편이며, 건강하고 성실하고 착하며, 수월한 대인관계 성격의 소유자 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주위환경과 생활력을 갖추고 있읍니다. 뜻이 계시는 분께서는 아래주소로 연락주시면 (성함, 주소, 전화번호)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겠읍니다.

P.O. BOX 1100, STATION "B"
REXDALE, ONT. M9V 2B3

「敬老우대증 虐待」첫拘束

"남의것 아니냐" 찢어버려

【大田】경로우대증을 학대한 시내버스차장이 첫 구속됐다.

충남江景경찰서는 5일 전 대성여객 소속 충남5자3440호 시내버스차장 박희수씨(26)를 공문서손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30일 하오3시께 충남論山郡連山面長田里에서 승차한 박기순할머니(73·論山郡夫赤面阿湖里1區514)가 경로우대증을 내보이자 「남의 것을 빌려왔다」면서 폭언, 승객이 보는앞에서 찢어버린 후 일반승객의 요금까지 다 받아냈다는것.【鄭】

光州事態등관련 逃避者 9명 全國에 再指名수배

치안본부는 5일 80년이후 학원사태와 光州사태등을 주동했거나 金大中사건 관련자 및 대통령위해음모사건 관련자가운데 계속 도피중에있는 중요범법자9명을 전국에 현상공개지명수배했다.

공개지명수배된 범법자는 光州사태를 주동한 尹漢琫(34·전남대축산과 4년제적) 朴寬賢(30·전남대행정과4년제적) 崔雲龍(38·무직)과 金大中사건관련및 학원사태를 배후조종한 張琪杓(37·서울大법과3년제적) 沈載權(36·서울大무역과4년제적)이며 학원사태주동자로는 朴啓東(30·高大정외과4년제적) 朴祐燮(25·서울大미생물과4년제적) 蘇俊燮(22·외대중어과2년제적)등 3명이다.

치안본부는 또 대통령위해음모사건의 배후인물인 崔泓熙의 종손녀 崔恵晶(23·여·서울大지구과학과4년 휴학중)도 수배했다.

경찰은 이번 공개지명수배된 자들을 계속 은닉시켜주는 자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범인을 은닉시키고있는 사람은 즉시 신고하거나 자수시켜 줄것을 촉구했다.

文등9명 現場검증

美문화원放火 무표정속 태연히 犯行재연

【釜山=權周動기자】美문화원방화및 불온전단 살포사건의 현장검증이 5일상오8시35분 부산지검공안부 金의壽부장검사등 4명의 공안부검사의 지휘로 하오2시께까지 5시간30분동안 실시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주범인 文富軾(23)이 휘발유를 갖고 택시에서 내렸던 美문화원옆 중앙성당앞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양손에 수갑을찬채 경찰기동대버스에 실려 현장에 도착한 文은 검거당시 입었던 밤색골덴잠바와 청바지에 검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으며 얼굴은 표정을 잃었으나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범행을 태연히 재연했다.

이어 10시30분부터는 文의 자취방이었던 西區富民洞2街11 金智子씨집 아랫방에서의 현장검증이 계속됐다. 이곳에서는 주범 文이 공범 金華石(22·부산공대 2년제적) 李美玉, 崔忠彦, 朴顥植등과 함께 불온전단의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과 타자기 등사기등으로 불온유인물을 만드는 장면, 방화예행연습장면등이 재연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범인들이 불온유인물과 현수막을 붙인 동아대입구, 부산여대화장실, 지붕다방, 西大新洞사무소앞등과 휘발유를구입한 유진주유소등 22개관련장소를 차례로 돌며 계속됐다.

현장검증이 실시되는 동안 범인9명은 호송버스안에 대기했다가 경찰이 필요한 범인들만 불러서 현장검증에 나오도록해 나머지는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범인朴顥植은 文富軾과 대화를나누며 헤죽 헤죽 웃기도 하는등 이번사건에 대해 전혀 후회나 죄책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文富軾등 4명拘束 國家保安法등 적용

【釜山】釜山시경은 4일밤 11시15분 美文化院방화사건 주범文富軾(23·高神大4학년) 金恩淑(24·高神大4학년) 金華石(22·釜山工大제적생) 朴貞美(23·釜山女大4학년)등 4명을 국가보안법 현주건물방화치사상,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鄭】

"배후는金鉉奬뿐 李鎬喆관련없어" 釜山市警부국장

【釜山】韓基衡釜山시경부국장은 『지난 3일 치안본부로부터 文富軾(23·高神大4년)의 신병을 인수, 이번사건의 배후관계를 집중조사했으나 金鉉奬(32)외에는 현재로서는 더이상없으며 지난 2일 압송되어온 李鎬喆(24)도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그동안수사결과 밝혀졌다』고말했다.【鄭】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省墓·植木·行樂客으로 붐빈連休

식목일인 5일 전국에서는 공무원 학생회사원 일반주민등 2백75만여명이 모두 3천2백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특히 산림청을 비롯한 1백39개기관임직원 9천여명은 대도시에서 멀리떨어진 산간오지에서 야영을하며 1천49ha에 2백94만그루의 묘목을심었다.

한편 淸明이 겹친 이날 서울근교 忘憂里(사진)와 국립묘지 碧蹄등에는10여만명의 성묘객이 조상의 묘를찾아 성묘를했다.

또 4월의 연휴를맞아 고궁을 비롯한 전국의 유원지에는 연휴를즐기는 행락인파로 크게붐볐다.

군항제가 열리고있는 鎭海에는 40만의인파가 몰려 馬山-鎭海사이국도의 교통이 마비되는 혼잡을빚었으며 雪嶽山과洛山寺, 慶州보문단지등에도 관광객이 몰려 호텔식당등이 만원을 이뤘다.

서울의 어린이대공원에도 4일과5일 이틀간 20만명이 입장했고 창경원덕수궁등 고궁공원에도 50여만명이 몰렸다.

◇故 梁基涉신부의 장례미사를 집전하고있는 金壽煥추기경㊧과 原州교구장 池學淳주교㊨. 윌로 신부를 잃은 슬픔에 原州교구에서의 범인은닉사건이 겹쳐 이날 미사는 침통하고숙연했다.

故 梁基涉신부 장례미사 嚴修

故 梁基涉신부의 장례미사가 5일상오10시 서울明洞성당에서 金壽煥추기경 집전으로 거행됐다.

이날 金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현재를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내다본 梁신부의 갖가지 업적을 기렸다.

이날 집례미사에는 尹恭熙대주교와 盧基南대주교 池學淳주교등 성직자와 8백여명의 일반신자들도 참석했다.

梁신부유해는 이날하오 龍山성당안에있는 성직자 묘지에 안장됐다.

돌멩이로 폭발물 두드려 어린이7명 爆死

경북盈德, 3명重傷

【大邱】3일 하오3시15분께 경북盈德郡南亭面阜境1洞 마을 공동우물가에서 이마을 초중학생10명이 종류미상의 폭발물을 갖고놀다가 터져 7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朴眞苗군(12)등 南亭중학생 4명이 마을앞산에서 미제 수류탄으로 보이는 폭발물을 주워와 함께 어울린동네친구 6명과 함께 돌멩이로 두들기며 놀다가 폭발, 일어났다.

이들중 5명은 그자리에서 숨지고 2명은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으며 중상을 입은 3명은 浦項선린병원에옮겨 치료를 받고있다.

◇사망▲徐光云(13·南亭中1년)▲皇甫日(15·〃3년)▲鄭光洙(15·〃)▲金相珪(15·〃)▲金진영(11·南亭국교6년)▲金양운(12·〃)

◇중상▲朴聲寧(12·南亭中1년)▲林仁喆(15·〃3년)▲朴眞苗(12·〃1년)。【鄭】

목공소에 불 원인不明3명燒死

【釜山】4일상오2시7분께 부산시西區岩南洞335 정동산업목공소내 조각부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목공소안방서 잠자던 李炳雨씨(30·경남進永邑)와 趙富鳳씨(27·부산시東區凡1洞), 鄭進協씨(27·부산시西區甘泉洞)등 3명의 목공이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불은 한식슬레이트단층건물 80평중 60평과 공장내의 의자 목재등을 태워 5백여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5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전기누전에의한 화재사고가 아닌가보고 조각부주인 許仁根씨(41)를 소환, 정확한 화재원인등을 조사중이다.【鄭】

過速트럭 저수지로 운전사등 2명숨져

【金泉】15일 상오9시께 경북金陵郡南面 부상1동앞 경부국도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대구7아1501호 덤프트럭이 도로오른쪽 높이1·5m아래 남북저수지에 추락, 운전사등이 사망했다.

"잘못있다면 處罰감수"

崔基植신부등 連行되던날의 천주교原州教區

◇천주교 原州교구 교육원 뒤뜰에는 농민정책을 비난하는 극렬한 문귀를 담은 피키트들이 쌓여있다. 이 피키트는 시위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原州—鄭】

2시간待機…治安本部 형사대에 引繼돼

"학생·教會생각해달라"당부

지난1일 文·金 結婚주례도

【原州=方成俊기자】崔基植신부등이 서울로 연행되던 5일 따뜻한 봄날씨였지만 原州교육원 주변에는 삼엄한 경계망이 펴져 숨숙한 분위기였고 30여명의 주민들이 말없이 연행현장을 지켜봤다. 이날 상오 상부지시를 기다리며 교육원 주변에 대기중이던 경찰은 상오11시20분께 原州경찰서 정보과장 李東植 경감등 2명이 교육원 안으로 들어가 30여분간 이야기를 나눈뒤 11시55분 崔신부와 고용원文씨등 2명을 강원1라1467호 검은색 코티나 승용차에 태워 原州경찰서로 연행했다. 30분뒤 치악산 서점 주인 金英愛와 이사건에 간접적으로 관련된것으로 보이는 李昌福씨가 原州시내의 집으로부터 각각 경찰서로 연행됐다. 수갑을 차지않은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崔신부는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崔신부등은 原州경찰서에서 2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치안본부에서 내려온 5명의 형사대에 인계되어 3대의 승용차 편으로 서울로 떠났다.

한편 경찰은 崔신부의 연행사실을 原州교구청에 공식통보했는데 이날 하오2시45분께 池學淳주교가 상기된모습으로 교육원을찾아 1시간동안 머물다가 돌아갔다.

보도진들이 10시30분께 崔신부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하오3시에 만나겠다」고 손짓, 기자들을 내보냈는데 이날교육원에는 전날도착한 동료安承吉신부(40·黃池성당)가 기자들에게 코피를 대접하며 『崔신부는 마음의 동요없이 다가올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崔신부의 심정을 대신전하기도 했다.

崔신부는 이날 교육원 현관을 걸어나오면서 취재기자들에게 『수고한다』고 말하고 『학생과 교회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하는 여유도 보였다.

경찰서 정보과장실로 연행된 뒤에도 기자들이 『임의동행인가』 『잘못을 느끼는가』 『원장실에서는 정보과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기자질문에 거의 대답하지않고 대신安신부가 『잘지냈다』 『같이 식사를했다』는 말을 했다.

짙은 회색양복에 베이지색 코트차림인 崔신부는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웃음을 띠며 『돌아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것이다』며 『사제로서 나의행동에 잘못이있다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金英愛씨는 연행이유를 묻는 기자질문에 『수사기관에서 모든것을 발표할것이다』라면서 경찰서에 연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함께 연행된 고용원 文씨는 『왜연행되는지 모르겠다』며 『金鉉奬 文富軾 金恩淑등이 끔찍한 사건과 관련됐다는것을 이들의 검거보도를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文씨는 原州근교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난72년부터 보일러공겸 고용인으로 교육원에서 일해왔다.

文씨는 金鉉奬을 신부의 손님으로 알았고 金은 2층창고에 침대를 놓고 지내면서 추울때는 신부방맞은편201호실에서 지내기도했다.

文씨에 의하면 金은 주로 책만 읽고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것.

또 文富軾 金恩淑이 교육원에 온것은 지난달 28일 밤 10시께로 이때 崔신부는 서울에 출장중이어서 金鉉奬이 이들을 안내했고 31일 서울에서 돌아온 崔신부는 이들과 만난뒤 1일 하오 文과金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

경찰조사결과 文과 金은 결혼날인 1일아침께 原州市一山洞에 있는 신용아백화점의 보석상 성금당을 찾아가 종업원 김부씨에게 『3돈짜리 남자용은반지, 1돈짜리 여자용은반지를 맞추러왔다』고 말했으나 종업원金씨가 쉬는날이라고말해 그냥 돌아갔다는것.

文과 金의 결혼식은 1일 하오2시께 교육원2층 강당에서 金英愛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한편 교육원에서는 일반천주교도외에 가톨릭 농민회, 가톨릭 노동청년회 회원들의 교육도 실시해왔는데 교육내용은 교육생들이 미리 프로그램을 작성해오는경우가 대부분이고 金鉉奬이 가끔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한 강연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神父는 罪人신고못해 誤解에 辯明하지말자"

4월 첫主日미사…침통한 教會표정

부활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예수의수난주간에 접어든 4일 전국성당에서 열린 「聖枝主日미사」분위기는 美문화원방화범의 성당은신파문으로 화창한 날씨와는달리 어둡고 무겁기만했다.

특히 범인들의 은신처가 됐던 原州교구성당 崔基植신부를 도와 범인들을 자수케했던 咸世雄신부의 서울漢江교회및 明洞대성당은 미사의 분위기나 성직자의 강론에서 고뇌의 빛이 역력했다.

방화범은신의 발단이 된 原州교구청의 池學淳주교는 4일 1천여명의신도가 모인 園洞성당에서 강론을 통해 『신부는 죄인이라도 신고할 수 없다. 崔신부가 범인을 자수시킨 것이 잘못된 일인가』고 물으면서 『金鉉奬이 은신한 경위에 대해 일부 매스컴이 잘못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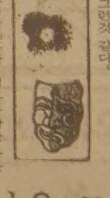
池주교는 이어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천주교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반대하는것은 나라가 잘되라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東部二村洞 한강교회에서 咸世雄신부도 강론을통해 『예수가 잘못된 여론과 오해에의해 수난을 당한 것처럼 原州사태도 오해로 교회가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하고 『오해가 풀릴때까지 변명하러 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돈보다 貴한「誠金」

献血證16장 내놓은 李昇起씨

"혼자힘으로 남을 도울길 이것뿐…"



『돈대신 저의 피를 드립니다. 꼬마스님의 생명을 구하는데 써주십시오』

서울의 한시내버스운전사 李昇起씨(사진·27)。선뜻 헌혈증서 16장을 내놓았다. 심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楚哲사미승(본보3월24일자 보도)을 위한것이다.

헌혈증서 16장은 보통 성인의 몸속에 있는 피와 맞먹는 양. 대략 5천1백cc。돈으로 쳐도 결코 적은 값은 아니다.

작달막한 키에 단단한 몸매. 얼핏 그의 헌혈이력을 들으면 자칫 「헌혈광」이 아닌가 가벼운 의심이 가기도한다. 잦은 헌혈의 이유를 좀체로 설명하지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것 같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남을 돕는 일이 없을까하고 생각해오다 우연히 헌혈차를 보고…』라는 설명을 들으면 차차 그가 커보이는 기분을 어쩌지 못한다.

그는 아마도 단기간내에 최다량 헌혈기록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지난 79년 6월 첫 헌혈을 한뒤 최근의 3월22일까지 33개월간 16차례 피를 뽑았다. 헌혈은 규정상 2개월이내에는 할수없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들먹거리길 좋아하는 그 「규정」을 어길때도 있었다.

『내가 만들어낸 피가 다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 싱싱하게 살아움직이면서 그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니 그것처럼 흐뭇한 일이 있을수가 없었읍니다』

정말로 소시민적인 그의 웃음. 어눌한 말투는 오히려 그의 말에 한치의 거짓이 없음을 웅변한다.

그가 얼마나 헌혈을 열심히 하는지는 헌혈할때마다 주는 기념볼펜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볼펜을 따로 사본적이없다는걸보면 알것이다.

그는 이제 「헌혈홍보요원」이란 착각까지 든다고 했다. 그같이 잦은 헌혈에도 운전이 고되다고 느껴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피를 뽑으면 어지럼증이 생긴다』는 말은 잘못이라고 동료운전사나 승객에게 깨우쳐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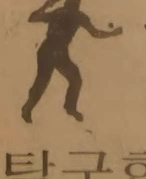
사람의 「肉体」에서 통상 나눠가질수 있는것은 혈액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피를 나누는것은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라고 할수가 있다.

가난한 택시운전사, 그가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은 헌혈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그의 깨끗하고 젊은 사람의 피는 돌고 돌아 마침내 꼬마스님의 몸속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돈이 사람의 높낮이를 판가름하는 배금주의시대의 우리에게 『돈보다 값진 誠金』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朴珍烈기자】

탁구협회공고

82년도 탁구협회 임시총회가 다음과 같이 있겠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시 일 : 4 월24일 (토)오후7시
○장 소 : 크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탁구협회 회장
정 영 모

희소식

SPECIALIZING IN OIL TO GAS CHANGEOVERS
HOME Energy CONVERTORS
A DIVISION OF ADONDI CORPORATION
(Formerly a Division of Delemere Distributors Ltd — 1954)

"oil Furnace를 Gas Furnace로 교환해 드립니다"

지난 겨울동안 oil을 사용하시는 가구주는 히팅값이 천연가스에 비해 약 30% 정도 더 소비가 됐읍니다.
다음 겨울에는 약 40% 정도로 연료비가 더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는 oil 난방비를 가스로 바꾸는 경우, 그 경비의 약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읍니다.
연료비 절약을 위해 금년에는 꼭 가스로 난방을 바꾸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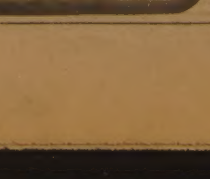
CONSUMER GAS LINE을 금년봄에 신청하면 약2개월이 소요됨

연락처 ☎ : 221-6700
535-2804 김 상 표

신장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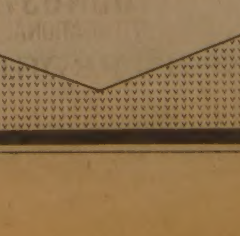
동창, 단체회의, 계모임이라고요?
당연히 크링톤 하우스지요.

○회의실(20명~100명)
○댄스룸(디스크·재키)
○게임룸
○식당(스낵바, 주문에 따라 간소한 한식도 써비스함)
○TAVERN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EST
크리스티·지하철 앞
☎535-9541 김 영 규 배

나는누구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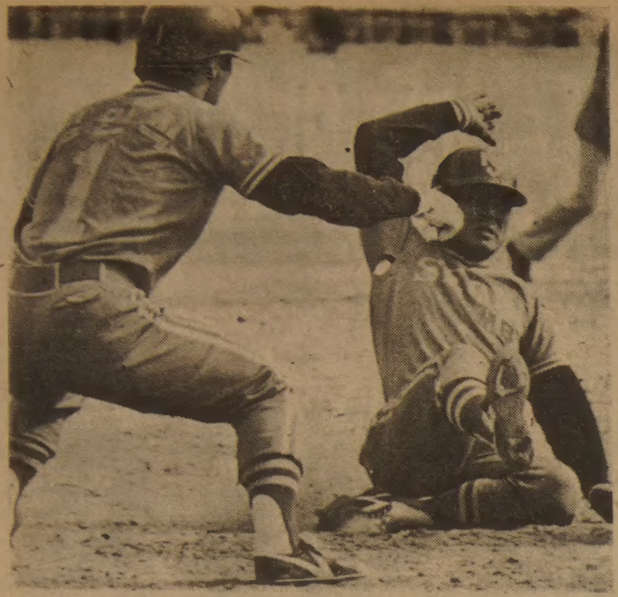
토론토·장 입니다

獅子가 호랑이를 물었다

三星마운드 해태打線 잠재워

5—1

프로野球…투지의 三美, 롯데獨走에 제동



◇靑龍의 연속홈인 MBC靑龍과 OB베어스의 대결。4일경기 4회초 1死만루에서 MBC5번 李鍾道의 중전안타로 金仁植에 이어 2루주자 宋榮雲이 홈인, 2—2를 만들고있다。【淸州=徐鍾道기자】

【淸州=方錫喻기자】사자냐 호랑이냐 三星라이언즈와 해태타이거즈의 첫 대결이 5일 光州 무등경기장에서 열려 三星은 權永浩·黃圭奉의 계투로 해태의 추격을 뿌리치고 5—1로 승리를 거두었다。

호랑이굴에 뛰어든 三星은 초반·집중타를 터뜨려 5—0의 일방적인 리드를 잡아 완승했다。

해태는 선발 金勇男에 이어 金城漢을 내세웠으나 역부족, 1만여 홈그라운드팬들을 실망시켰다。

淸州에서 벌어진 OB베어스와 MBC靑龍의 2、3차전서는 양팀이 1승씩을 나눠 OB통산2승1패의 우세를 기록했다。

한편 三美슈퍼스타즈는 春川에서 벌어진 2회전서 연장11회말결승점을 올려 8—7로 이겼다。

4일 경기서 5—4로 석패했던 OB베어스는 5일 3차전에서 6회말 3번 尹東均、4번 金宇烈、5번 申慶植으로 이어지는 연속3안타와 희생타 적실로 결승3점을 뽑아 5—3으로 승리했다。

첫 3重殺

OB는 9회초 마지막수비에서 無死에 2명의 주자를 둔 고비를 프로야구 첫 트리플플레이(3重殺)로 선방해냈다。

MBC는 5—3으로 리드당하던 9회초無死만루의 황금찬스를 맞았다。 타석에는 2번대타 申彦浩。 OB의 세번째 투수黃泰煥은 2루타에 이어 포볼、데드볼로 위기를 자초。

그러나 申彦浩의 초구를 노린 강타구가 OB3루수 楊世鍾의 글러브에 라이너로 꽂혔다。

楊은 재빨리 3루주자를 태그하고 2루로 송구、2루수 具千書가 2루주자마저 태그아웃시켰다。 楊世鍾↓具千書의 야수2명으로 이룬 프로야구 최초의 기적같은 트리플플레이였다。

OB 桂泳鎭의 선발기용、선공에 나선 MBC의 3번 朴錫垵 8번 金時哲의 기용도 모두 의외였다。

◇제5일 전적

▲청주
MBC 101 000 010 — 3
OB 100 003 01X — 5

▲광주
삼성 100 103 000 — 5
해태 000 000 001 — 1
▲홈런=金城漢(9회말·해태)

▲춘천
롯데 14 000 200 … 0 — 7
삼미 00 310 003 … 1 — 8
〈11회연장〉

◇4일전적

▲춘천
롯데 130 001 210 — 8
삼미 000 000 000 — 0
▲홈런=金用熙(7회·2점·롯데)

▲청주
MBC 000 201 200 — 5
OB 101 010 100 — 4
▲홈런=金宇烈(7회·OB)

◇전기중간성적

팀	승	무	패
롯데	3	0	1
OB	2	0	2
삼성	2	0	2
MBC	2	0	3
해태	1	0	2
삼미	2	0	2

高大 朴魯俊은 건재

大學야구 決勝2루타로 成大를 격침

高麗大와 東國大가 대통령가 쟁탈 제16회 전국 대학야구대회 패권을놓고 6일 격돌케됐다。

5일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대회 7일째 준결승전에서 高麗大는 7회초신입생 朴魯俊의 좌월 2루타로 결승점을 올려 成均館大에 2—1로 이겼으며 東國大와 東亞大의 대전서는 東國大가 4—1로 승리、결승전에 올랐다。

高麗大는 7회초 1死후 9번대타 崔洪錫이 2루앞땅볼을치자 成大1루수의 에러로 1루에 진출、득점의 돌파구를 열었다。

이어 1번 金光林이 중전안타를 날려 주자1·2루를 만든뒤 2번 金瑞錫의 중전안타로 崔洪錫이 홈인、1점을 선취했으며 1루주자 金光林은 3루에 진출했다。

"한국서 프로眞價 보이겠다"

뒤셀도르프 蹴球팀 來韓

◇벤젤의 强슛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뒤셀도르프의 주력 FW 뤼디게·벤젤(왼쪽끝·29)이 강슛을 때리고 있다。

"꼭 3戰 全勝거두고 歸國" 버거監督

"車붐 나라서 뛰어기쁘다" 제베選手

西獨프로축구 돌풍의팀 포르투나·뒤셀도르프 일행 24명(임원7、선수17명)이 5일밤 서울에왔다。 서울(7일)釜山(9일)光州(11일)서 한국대표팀과 세차례 친선경기를 갖는 뒤셀도르프의 와르크·버거감독(38)은『장시간의 비행기여행으로 피로감은 느끼고 있지만 한국의 축구팬들에게 서독프로축구의 새로운면모를 보여주고 싶다。 한국에서 전승을 거두고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뒤셀도르프팀서 10년간 선수생활을 해온 노장 게르트·제베(32)는『車範根과朴鍾遠의 나라인 한국에서 게임을 갖게되어 기쁘다。 이번 한국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대회때 西獨대표선수로 출전했던 제베는 뒤셀도르프의 수비를 책임맡고 있는 선수이지만 때로 전광석화처럼 공격에나서 골을 올리는 분데스리가의 名리베로이다。

이날밤 KAL904便으로 金浦공항에 내린 뒤셀도르프선수들은 공항서 기자회견을 가진후 숙소인 롯데호텔로 직행、여장을 풀었으며 7일 상오 서울운동장서 가벼운 워밍업으로 컨디션을 다듬게된다。

亞洲주니어 테니스 盧甲澤 우승

男단식서 日선수 제압

【臺北4日AP=聯】한국의盧甲澤은 4일 臺北에서벌어진 82년도 아시아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남자단식결승에서 日本의 나까무라를2—1(3—6、6—3、6—4)로 제압、우승을 차지했다。

지난3월29일 개막된 이대회에는 한국·日本·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印度·홍콩·泰國에서 60명이상의선수가 참가했다。

OPBF 라이트級 金得九 KO勝

프로복싱 동양·태평양 권투연맹(OPBF) 라이트급 챔피언 金得九(23)는 4일 문화체육관서 벌어진 수라헤즈·키옹파존(22·태국)과의 타이틀매치서 1회2분66초만에 KO승、첫방어전을 장식했다。

지난2월28일 金光玟을 12회판정으로 꺾고 챔피언이된다。

金은 이날승리로 14승(7KO) 1무1패를 기록했다。

泰킹스컵 복싱 한국 4명 메달圈

金光善·文成吉·李南儀 준결에

【방콕4日=聯】한국의 金光善(라이트플라이)文成吉(밴텀) 및 李南儀(미들)는 4일밤 방콕 국립경기장에서 계속된 제8회 킹스컵아마복싱선수권대회 5일째 준준결승전에서 각각 필리핀·蘇聯·日本선수를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한국은 전날예비준준결승에서 濠洲선수를 제압한 蘇培元을 포함해 모두 4명을 메달권에 진입시켰으며 또다른 2명이 8강전을 앞두고있다。

남녀中高농구 龍山高 決選올라

제19회 춘계남녀중고농구연맹전 5일째 경기가 5일 장충체육관서 속행、남고A조서 龍山高는 徽文高를65—60으로 제압、2승으로 A조 수위로 결승토너먼트에 올랐다。

忠南·釜山大결승에 춘계大學 핸드볼

【淸州=方錫喻기자】忠南大와 釜山大가 춘계대학핸드볼대회 결승서 격돌한다。

忠南大는 5일 신흥고체육관에서 벌어진 준결승전에서 3연패에 도전하는 강호 光大를 맞아 국가대표 李호혁의 활약으로 19—14로 승리했으며 釜山大는 成均館大를 30—14로 대파했다。

◇준결승전적

충남대학 19 (10—8, 9—6) 14 원광대학
부산대학 30 (17—4, 13—10) 14 성균관대

Factory Special Sale

(기간) Apr. 12～Apr. 24 (2주간)

Wagner (와그너) 피아노

월～금 : 9: 00A.M.～7: 00P.M.
토 : 9: 00A.M.～5: 00P.M.

한국영창악기제

G- 157

그랜드피아노

Reg. $7,732
Spec. $5,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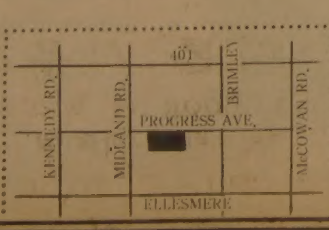
제한수량이므로
선착순세일합니다

※ 와그너 피아노(4월5일자) 코드 №는 G-157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각 유명업체및 대학교에서 애용중입니다.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Humber College (Toronto) Columbus Centre (Ontario)

DISTRIBUTED EXCLUSIVELY IN CANADA BY
YOUNGSTAR INTERNATIONAL INC.
주 소 : 315 PROGRESS AVE.
☎ : 298—2134



OWNER : 최 덕 준

John Krautwurst Furniture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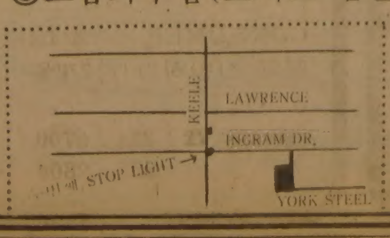
월～수 : 9: 00A.M.～5: 00P.M.
목～금 : 9: 00 〃 ～8: 00 〃
토 : 10: 00 〃 ～5: 00 〃

◎Life-time가구
◎주문생산(Custom made)
◎금년 토론토가구쇼에서 인기집중
◎카나다유일의 최고급 Comporary가구
◎Meister Collection

◎다이닝·룸 set
◎ Buffet Hutch
◎Living room set
◎베드·룸 set

매니저 : Mrs. Gertrud Krautwurst

◎고급가구점(로버트·심슨등)에 공급하고 있음.



JOHN KRAUTWURST
주 소 : 67 Ingram Dr.
☎ : 249—8261

89개大學 地下서클 112개

政府「左傾 意識化」精密조사 착수

"構成員·연계성·活動相 분석 / 어떤 犧牲있어도 初期분쇄"

정부는 2일 부산美문화원방화사건을 계기로 전국각대학의 학생서클에 대한 일제정밀조사에 착수했다。문교부는 이날 전국89개대학(8개 신설대학제외)에서 1백12개의 지하서클을 파악하고 ▲이들 서클의 구성원 ▲과거수년간의 활동상황 ▲선·후배간의 연계관계 ▲구호및 주장의 변화과정 ▲구성원의 가족관계등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文教部 "교내示威조종등 暴力集團化"

이들 1백12개 지하서클은 대학당국에 등록된 서클이 당초 성립때의 성격에서 변질됐거나 미등록된서클을 포함하고있으며 이들서클은 대개가 과거 교내시위를 주동 혹은 배후조종했거나 좌경화 색채를 강하게 띠고있는등 문제되는 움직임을 보인 모임이다.

문교부의 한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문제서클과 지하서클에대해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것은 자칫 기존등록서클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있으나 이에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준비되고있다』고말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대학가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좌경의식화」조짐은 어떤희생을 치르더라도 초기단계에서 제거하는것이 더큰 불행을막는 일이며 그 시기는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관계자는 당초 정부로서는 금년의 학원가가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안정될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그같은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학의 지하서클은 그들이 고립될수록 더욱 과격한 폭력적수단에호소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당국자는 또 현재 전국89개대학에는 모두 3천2백92개의 학생서클이 등록돼있고 서클의 회원수는 15만명에이른다고 밝히고 이밖에도 적지않은 음성서클이 잠재해있는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국이 파악하고있는 문제서클들중에는 ▲재경S대학의 「가면극연구회」(81년10월22일교내시위주동) ▲K대학의 「현대철학회」(82년3월24일 학원민주수호투쟁일지등 유인물살포및학내시위) ▲Y대학의 「민속문화연구회」(81년9월30일·11월25일교내시위주동) ▲E대학 「가면극연구회」(81년9월26일학내소요주도) ▲지방의 K대학 「강의모임회」(의식화작업을 계속하다 당국에제지당한) ▲지방의E대학(북괴방송청취충격발) 등이 포함돼있는데 당국은 이번美문화원방화사건이 군소대학의 생소한 서클이 주동이됐다는 점을 주목, 그동안 실태파악이 완전치 못했던 지방대학 서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있다.

특히문교부는 실제로 서클활동은 하고있으나 표면에나 타나있지않은 서클일수록 좌경의식화의 위협성이 클것으로 판단, 음성서클에 대해서는 과감한 양성화정책을 펴내는 작업을 병행키로했다.

한편 대학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의 영향을받아 문제서클들이 표면에서 급속히 지하화할것에대한 대비책도 강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大의 朴모교수(43)는 이른바 지하이념서클은 학술연구서클과는 엄격히 구별된다면서 지하서클의문제는 엄격히 말해 학교단위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파악돼야한다고 지적했다.

朴교수는 지하서클이 최근 동조학생이없어 극도로 고립되고 내밀한사적관계로 변질돼가고있다면서 그들이 고립돼가는 과정과 그들의 저렬성은 비례해왔다고분석했다.

그는 80년말과 81년사이의 서울大소요사태에서 나타난 구호의극렬성이 바로 이들이 극도로 고립돼있다는 증거라고말하면서 그러나 주목할것은 이들의논리가 직업적인공산주의자의 수준이라는 사실이라고 걱정했다.

朴교수는 이같은 사실에서 지하서클이 배후조직의 조종을받고있는것이 분명하며 학원에서 제거돼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강한 豫備軍은 강한 國力의 바탕"

"내고장 내일터 安保決意 굳게"

全대통령 豫備軍의날 致辭

全斗煥 대통령은 3일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好戰的이고 가장 非理性的인 북한공산집단의 「全쟁」武力赤化전략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우리의 목표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력한 힘을 보유하는것이 先決요건이라고 하지않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전국각지역별로 열린 제14주년 鄕土豫備軍의 날 기념식에서 市·道知事가 대신 읽은 치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강력한 힘은 바로 강력한 군사력이며, 따라서 「강한 향토예비군」은 「강한 군사력」을 낳고 「강한 군사력」은 「강한 國力」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아래 예비군여러분을 비롯한 온 국민모두가 향토예비군을 더욱 튼튼한 安保역군으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특히 북한공산집단은 前後方동시 戰場化의 對南침공전략을 세워놓고 해안침투는물론 후방침투를 위한 군사장비와 特攻병력을 大量으로 준비해놓고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향토예비군장병들이 내고장과 내일터를 내손으로 지킨다는 결의를 굳게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일은 전체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휴전선을 지키는일과 똑같이 중요한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향토예비군 장병들은 정신무장을 가일층 강화하고 實戰的 戰術戰技를 부단히 연마해 유사시에 적의도전을 철저하게 응징격퇴할수있는 강한전투력을 길러가야할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敵의 여하한 기습공격에도 즉각대처할수 있도록 軍官民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한편 운영에 있어서도 불합리한점은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하겠다』고 당부했다.

「60억弗經協」案재검토

日、정부借款 증액·輸銀金利 引下등

관계部處 高位회의

【東京3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6일 외무,大藏,통산성과 경제기획청등 관계부처 고위실무자회의를 열고 한국측이 제시한 60억달러의 경제협력문제에 대한 제2차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한일 경제협력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측은 제1차안에서 ①현물차관의 공여는 곤란하며 ②정부개발차관과수출입은행등 민간차관으로 구분, 경제협력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국측이 전액정부개발차관으로 한것과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현물차관을 재고할것을 강력히주장, 일본측이 이의 재검토를 시작하게됐다.

6일에 열릴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는 일본에제시한 제1차 안에 대한 한국측의 요구안을 검토하고 ①수출입은행의 금리를 현재의 연리9·25%에서 작년 11월15일이전의 舊金利인 7·75%로 인하하는 방안과 ②수출입은행의 차관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없애며③7년거치 연리4%의 정부개발차관을 20억달러로 늘릴수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盧外務, 日大使불러 經協조기타결 促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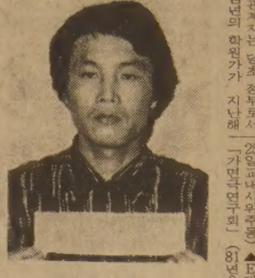
盧信永외무장관은 3일 상오 마에다·도시까즈(前田利一)駐韓 日本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60억달러의 對韓경제협력문제에 대한 타결방안을 논의했다.

盧장관과 마에다대사는 이 자리에서 經協타결방안에 관한 쌍방의 입장을 각각 밝히고 시기적으로보아 서로가성의를 갖고 經協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노력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盧장관은 특히 한국측이 요청한 60억달러의 경제협력은 日本의 정부개발협력자금(ODA)에 의한 협력이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이에대한 日本측의 보다성의있는 자세를 강력히촉구했다.

文의背後조종 金鉉奬검거

釜山放火사건 光州사태후 隱身…原州서



◇金鉉奬

崔神父에 울면서 "敎唆"고백

"「偶像과 理性」敎材로 意識化"

釜山美문화원 방화사건 주범 文富軾(23)은 좌경불순분자로 이미 수배중이었던 金鉉奬(32·전남康津郡七良面永東里)의 배후조종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치안본부는 3일 文의 자백에 따라 배후 조종 인물로 金鉉奬을 검거, 범행 전모를 발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金은 文등을 의식화시켜 釜山美문화원 방화와 불온전단을 만들도록 조종했다는것。

金은 지난79년5월 월간지 뿌리깊은 나무에 「드디어 관광기생이 되고만 이땅의 처녀들」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는데 이에대한 文富軾의 독후감서신을 받은후부터 文을 알게됐다.

金은 80년4월 관광기생실태 자료수집차 釜山에가 YMCA지하다방서 文을 처음대면한뒤 81년11월15일 文의 자취방에서 같이자면서 사회를 보는눈을 넓히기위해 「전환시대의 논리」「우상과 이성」「오늘의 농촌경제와 농민운동」등 3개책자를 읽어보라고 지시했다.

金은 이어 그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原州가톨릭교육원에서 文富軾·朴貞美·柳承烈(수배)등을 초청, 文에게 3개책자를 교재로 토론하는과정에서 ▲현실비판을 할수있는 공부를해서 동지를 많이 만들것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좌경화된학생이 많아야한다 ▲현정부가 내걸고있는 사회복지는 절대 불가능하다 ▲光州에서의 경험으로볼때 미국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않다 ▲光州사태를통해 미국이 우리국민에게 실망을안겨줘 가톨릭농민회원들이 光州문화원에 방화한것이란등 의식화교육을 하고 이와같은 일을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범행을 교사했다는것이다.

月刊誌엔 現實비판 寄稿

良心囚석방등 유엔總會에 메시지도

金은 지난1월초에도 의식화교육을했고 방화를 종용, 2월초에는 文으로부터 부산美문화원에 방화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光州문화원과는 주변상황이 다르니 신중히하고 방화후에 불온삐라를 뿌리되 「북침준비완료」란 말을 쓰라고 지시, 美문화원방화와 부산여대 불온낙서사건, 부산시내 6개소의 불온서 사건등을 조종했다.

金은 지난73년3월20일 光州市大仁洞 광주여관 정문앞길에서 40대남자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강도미수혐의로 光州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고향 康津郡七良面永東里469에서 농사를짓는 金東均씨(67)의 4남3녀중 장남으로 康津, K중학을거쳐 朝鮮大附設 공업전문학교를 중퇴했다가 78년 졸업했다.

金은 학생때부터 좌경의식화되어 77년8월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UN총회에 보내기도했고, 光州無等山타잔사건의 피의자 朴興淑의 구출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종교인들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金은 77년9월~80년3월사이에 월간「뿌리깊은나무」「대화」등에 불쌍한 무등산 청년의 죽임과 죽음, 관광기생등의 제하로 기고했고 78년 9월 서울로 와 기독교회관과한빛교회등을 전전하며 종교인 구속자가족들과 접촉, 반정부활동을 해왔다.

金은 지난80년5월18일 光州사태가 일어나자 5월20일 光州로 내려가 시위를 벌였고 21일 光州우체국부근에서 시위에 가담했다 도주, 현상금(20만원) 수배중이었다.

金은 그후 5월22일 全州교구 가톨릭 농민회 총무 전자석을 방문, 그의소개로 全州교구 사목국장 金鳳熙신부와 접촉, 光州사태와 관련된 극렬한 내용의 불순유인물2만매를 제작, 다음날 서울 新村부근 서점 신명문화사 주인 신철용(32)에게 1만매를 전달했다.

金은 5월24일 전북대4년 노동길(27)을 시켜 釜山기독청년회 朴尙道에게 5천여매를 전달했고 25일 나머지 5천매를 大邱에서 배포하려다 경남 咸安입구 검문소 부근에서 우물속에 버리고 도주했다.

그뒤 金은 전북鎭安천주교회(김유섭신부)에서 3일간 은신한후 버스편으로 原州에 가 原州교구 崔基植신부에게 은신을부탁, 2일하오 검거될때까지 특가강사직으로위장, 숨어지냈다.

빈세사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金은 은신중 崔基植·申鉉봉두신부와 접촉했으며 지난달19일에는 崔신부에게 울면서 『나이어린 학생을 징역보내게됐다』고 부산美방화사건의 교사를 고백했다는것。

金은 이틀날인 20일 崔신부에게 부산문화원 방화때사망한 張德述(東亞大生)을위한 미사를 부탁하고 張군진으로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조전을 「덕수」란 가명으로 발신한후 조위금 1만원을송금하기도했다.

李相憲도 自首

公州師大서 反體制활동

치안본부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이던 李相憲군(23)이 자수했다고 발표했다.

李군은 지난80년3월 公州師大 1년 재학때 「금강회」라는 용공서클을 조직, 반체제활동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이서클에 관계했던 학생18명중 17명은 검거됐으나 李군만 잡히지않아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李군은 지난해11월부터 北堤川市 校洞 李炳敎신부(41)의 집에 은신해 있었는데 지난2일 강원太白市黃池천주교 주교관인 安승길신부를 찾아갔다가 李신부및 安신부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이다.

社告

百想追念 語錄書藝展

故人의 5周忌맞아 11일부터 百想기념관서

頂上바로直前이가장重要한瞬間이다大膽하고小心하라

生前에 남긴 人生訓 元老들의 글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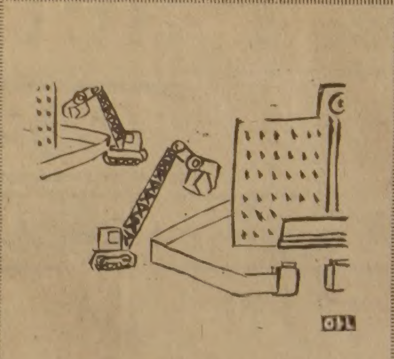
한국일보의 創刊發行人인 百想 張基榮社主의 5周忌를 기념하는 「百想追念語錄書藝展」이 故人의 忌日인 11일부터 百想紀念館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故人이 생전에 남긴 갖가지 人生訓을 국내 書藝界의 元老·重鎭(名單別記)들이 직접 써서 마련한 이 書藝展은 폭넓은 인생을 바쁘게 살다간 故人을 추념하기에 알맞은 조촐한 자리로 믿습니다. 전시될 語錄은 모두 國漢文 併書된 「작품」으로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색다른 書藝展이기도 합니다. 전시회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전시회의 개회식은 12일(월) 하오3시 百想紀念館에서 갖습니다. 故人을 追念하는 이 자리에 많은 참관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出品 作家 명단<無順>>

一中	金忠顯	景岩	金相筆
東江	趙守鎬	松石	鄭載興
南丁	崔正均	雨林	金鎭祥

한국일보社

社会漫評



「問題서클」拔本

駐포르투갈 大使에 金琦洙씨 任命발령

정부는 駐포르투갈 대사에 金琦洙前외무부기획관리실장〈사진〉을 1일字로 임명발령하고 李允熙駐포르투갈 대사를 외무부 본부대사로 전보발령했다.

◇金대사略歷 ▲서울출신·54세 ▲서울大법대卒 ▲외무부 在外국민·총무과장 ▲駐뉴욕영사·駐인도네시아·駐泰공사·駐시드니총영사 ▲외무부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地平線

로널드·레이건 미국대통령은 1911년 2월6일 생이다. 그러니까, 만으로쳐서 지금 나이 71세. 작년 1월20일 취임식을 마친뒤 보름 남짓하여, 70고개에 접어 들었다. 미국역사상 최초의 배우출신 대통령, 최초의 離婚경력을 가진 대통령,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의 「3冠」은 이미 따놓은 기록이다. ▼그의 나이는 그가 60줄이던 지난 선거운동때부터 심심찮은 논란을 불렀었다. 첫번째 임기를 마칠때면 나이가 74세가 될 터인데, 그 나이로 대통령의 격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는 유권자의 당연한 관심거리였다. 그가 어떤 텔레비전 회견에서, 「건장한 사나이」의 표본같았던 존·웨인을 들먹인 것은 그런 약점을 커버하려는 속셈인듯이 보였다. 자기와 키나 몸집이 비슷한 존·웨인 못지않음을 은근히 강조하려던것이다. ▼이런관심거리의회답을얻기위해, 뉴욕·타임즈는, 의사면허를 가진 기자를 레이건 별장에 보낸적이 있었다. 선거전이 한창일 무렵이다. 검사가 죄인 다루듯 했다고 할지, 의사가 환자 다루듯 했다고 할지, 그런 長文의 인터뷰 기사중 가장 큰 대목이 老妄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노망이라도부린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單刀直入的인 제작태도였다. ▼타임즈의 기자는 레이건先代의 건강문제까지 조사한 데이터를 레이건에게 들이대고 있었다. 『先親께서는 별세하기전 노망기가 있었다던데…?』『그랬습니다. 제가술을 과음한 탓이죠. 제가 술을 즐기지 않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노망문제에 대하여는, 조금이라도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임기 4년의 건강은 문제없다―는것이 답변이었다. ▼여하간 레이건은 지금 老益壯을 자랑하고 있다. 힝클리의 총격을 버티어 낸 것을보면, 그가 남달리 건강한 것은 틀림없다. 그가 만71세 1개월 27일이 되던 2일, 그는 백악관의 공식석상에서 이런 농담을 했다. 『우리중 일부는, 이미 몇몇사람들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年代記的 나이에 이르렀읍니다』▼이것은 「老人의 달」선포식에서의 익살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70세이상 노인에 대한 퇴직강요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의 기준은 「연령」이 아니라, 작업의 「적성」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남의나라 일이긴하지만, 老益壯은 보기가 좋다. 그러나 이땅의 노인들은 「益壯」할틈이 없다. 「老」하기 훨씬 앞서 50줄정년에 걸리고, 세대교체란 이름모를 그림자에 쫓겨야 하기 때문에…。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MCA 봄프로그램학생(회원)모집

● 토요학교(4월17일(토) 개학)~5월29일)
피아노 교실(노경심) 12시~오후2시 새회관교실($30)
바이올린 교실(이진화) 12시~오후2시 새회관교실($30)
무용 교실(김정숙) 2시~3시반 새회관강당($20)
미술 교실(안나문·정크리스티나) 2시~3시, 3시~4시 새회관교실($20)
기타-교실(권혁일) 2시~3시 새회관교실($25)
태권도 교실(이태우) 3시반~5시 새회관강당($20)

● 한글교실(김진수·김정숙·조인숙) 오전10시반~1시 777 Bloor St. W.(무료) Bickford Park 고교3층
아코디온과 전자올갠 4인조로 그룹 지도하며 악기를 대여해드림. (부근악기점)

● 영어교실(기초반-조성자, 노인A반-최기순, 노인B반-김정지) 오전10시반~1시 Bickford Park고교(무료) 777 Bloor St. W.

● 웨스튼 한글교실(오정숙·김정숙·최춘자·이영희) 수 오후 4:45~7:15 Daystrom 공립학교

● 웨스튼 영어교실(최춘자·고호프) 월·수 오후7시~9시 〃

● 청소년 합창단 매주 오후6시~8시 새회관강당(지휘-안병원, 반주-에그너스 김)

● 와이즈멘즈 클럽

● 알파클럽…4월16일(금) 오후6:30~10:00 새회관 이사실
베타클럽…4월29일(목) 7:00~10:00 〃

● 성서연구반
구약개론…5월2일(일) 오전7시~8시20분(조남유 목사) 새회관 이사실
성서희랍어공부… 오전8시20~8시반(김창열 총무)

931 College St.(도버코트와 칼레지 코너)
Toronto M6H 1A1 ☎:536-1166 미스터·김

한글 교사 모집

한글교육에 경험이 있고 어린이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남녀 성인 또는 남녀대학생으로 시교육위원회가 모국어교육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

(1) 토론토한글학교 (약간명)
토요일 오후 1시-3시반 (9월말-5월말)
(2) 웨스톤 어린이 학교 (약간명)
수요일 오후 4시반-7시반
(3)토론토 Y여름학교 (약간명)
월-금 오전 9시반-11시반(7월1일부터 5주간)
(4) 웨스톤 Y어린이여름학교 (약간명)
월-금 오전 9시-11시 (7월1일부터 5주간)

대 우 : 시간당 약 $20.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지급함.
신 청 : 이력서 제출후 선착순으로 면접함.

청소년 뱅쿠버 교류

행선지… 뱅쿠버
기 간… 1주일 (6월중)
회 비… $100 (항공료 포함)
숙 식… 민박 (뱅쿠버청소년 1명을 민박시켜야함)
자 격… 14세-22세의(대학재학생은 22세 이상도 가능함) 남녀 청소년 약 50명(선착순)
(합창·기악·무용등에 소양이 있는분 환영)
지도자… 청소년 10명에 1명 의 지도자가 동반함.

여름학교 교사모집

여름방학동안 어린이들과 함께 뜻있는 시간을 갖고저 하는 남녀 대학생 또는 성인으로 유경험자를 우대함.

기 간 : 7월1일~8월27일 (월~금) 오전9시~오후3시반
모집인원 : 약 15명
대 우 : 시간당 $4~5, 경험에 따라 우대함
교사종류 : 한글, 한국문화, 노래지도, 미술수공, 무용, 태권도, 수영, 체육, 피아노, 바이올린, 훈육및 서무, 빠스매스터 등.

여름학교 학생모집

모집인원…유치원~8학년의 어린이 약 100명
기 간…7월1일~8월27일(매주 월~금) …오전9시~오후3시반
과 목…한글, 역사, 노래, 수영, 운동, 태권도, 무용,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학예회.
여 행…금요일마다 온타리오프레이스, 원더랜드, 쎈트럴 아이랜드, 공원등을 방문함.
회 비…8주 $210, 6주 $165, 4주 $115, 2주 $60, 한집서 오는 두번째어린이는 매 2주에 $5, 세번째 어린이는 2주에 $7, 네번째 어린이는 2주에 $10을 할인함.
장 소…Heyden Park 고등학교 (College남쪽 2블럭 Dovercourt에 있음)

泰·越軍、국경서砲擊戰

大砲·로키트동원…泰住民 5명死傷

【방콕2日UPI=聯合】타이·캄보디아국경에 주둔중인 타이군과 캄보디아領內 베트남군은 2일새벽~저녁사이 국경을 가운데 두고 대포와 로키트포를 동원한 포격전을 벌였다고 타이군최고사령부가 발표했다.

타이군최고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포격전은 베트남군이 크메르루지 게릴라들에 대한 乾期공세의 일환으로 아란야프라테트南方50㎞지점에 위치한 클롱·하르 바인·추드·순 카오·딘등 3개 타이촌락을 포격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타이측은 이포격전으로 주민 2명이 죽고 주민 2명과 병사한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군사령부는 밝혔다.

"프로모터暗殺 노려"

방콕拳鬪경기장 爆彈사고 4명亡死

【방콕3日=聯合】방콕의 룸피니킥복싱경기장에서 2일 밤 킥복싱경기가 열리고있던중 관중석으로 2발의 수류탄이 날아와 폭발, 타이경찰간부1명을 포함, 적어도 4명이 사망하고 30명이상이 부상했다.

사고직후 7천내지 1만명의 관중이 밖으로 나가려고 출구로 몰려들었으며 이혼란중에 다시 6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날 수류탄이 투척된시간은 타이에서 가장 이름난 두 킥복서가 하오8시45분 마지막 라운드를 벌이고 있던중이었다.

수류탄은 링주위의 타좌석근처에 앉아있던 관중사이에서 터졌으며 사망자 가운데는 前副내상과 副경찰총장을 역임했던 츠폴·로하찰라 중장의 아들인 폴마지·수라사크가 포함돼 있었다.

타이 경찰은 이사건이 저명한 킥복싱프로모터인 클라유·타니쿨에 대한암살기도로 추정했는데 목격자들은 사고직후 경호원들이 파편을 막기위해 타니쿨씨의 몸을 에워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초저녁에 경기를가졌던 金광순 선수등 한국의 복싱관계자들은 피해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포클랜드群島 점령

領有權분쟁…英、斷交선언

【부에노스아이레스2日UPI·AP=聯合】아르헨티나집권군사평의회는 2일 아르헨티나군이 성공적인 군사작전을통해 영국과 근1백50년간 영토분쟁을빚어온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클랜드들「회복」했다고 발표했으며 영국정부는 아르헨티나군의 침공을「일방적인 침략」이라고 규탄하고 아르헨티나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아르헨티나군사평의회는이날 코뮈니케를 발표하고、포클랜드군도의 영토·영해·영공에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행사가 확보되었다고 말하고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포클랜드총독이 임명되었다고 발표했다.

【런던2日聯·AP=聯合】영국정부는 2일 남대서양의 英領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침공군에 점령된데이어 아르헨티나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포클랜드탈환을위한 기동타격군에 긴급대기명령을 내렸다.

이에앞서 마거리트·대처영국수상은 긴급각의를 소집、포클랜드 사태에대한 영국정부의 대응태세를 논의했으며 각의가 끝난후 험프리·애트킨즈 부외상은 하원에 출석、포클랜드 사태에대해 영국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외교·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며 최선을다해 포클랜드를 방어할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영국정부는 핵추진잠수함 헌터·킬러호를 포함한 해군함정을 포클랜드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부당국자는 이에 대해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캐링턴영국외상은 2일 英領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고 발표했다. 캐링턴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런던주재 아르헨티나대사에 대해 4일 이내에 영국을 떠나도록 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때를 같이해 대처수상은 해군및 공군참모총장을 불러 포클랜드군도 수복을 위한 군사준비태세와 진행상황을 검토했다.

◇포클랜드에 세운아르헨 國旗 아르헨티나軍이 포클랜드群島를 점령한후 2日 새벽에 이 섬에 아르헨티나국기를 세우고있다. 【포토스탠리(포클랜드群島)2日UPI=聯合】

압도적 軍力불구 反擊곤란

거리멀어 作戰엔 2週소요

【런던2日聯·AP=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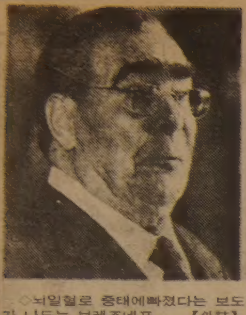
해설 …… 核보유국인 영국은 군사력에 있어 아르헨티나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나 포클랜드가 本土에서 1만3천2백㎞나 떨어져 있어 아르헨티나의 침공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운입장에 있다.

런던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는 포클랜드에 상륙한 아르헨티나군에 반격을 가하는데는 최소한 2주일이 필요할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이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英國군함은 카리브海에있는 구축함1척인데 이것도 분쟁지역까지 도달하는데는 1주일이 걸리며 아르헨티나軍과 맞설만한 해군력을 동원하는데는 2~3주일이 걸린다.

매우 권위있는 이 연구소의 로버트·엘리어트소령은 거리상의 문제로 英國공군의 작전이 어려운 실정이며 아르헨티나가 반격할 수단이 없는 4척의 폴라리스미사일적재핵잠수함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규정에 따라 북대서양에서만 활동하도록 돼있다고 영국의 고충을 지적했다.

브레즈네프의 安否



◇뇌일혈로 중태에빠졌다는 보도가 나도는 브레즈네프. 【外誌】

인사이드

가슴의 勳章보다 많은病名

重態說유포 權力鬪爭 一環

不死鳥이미지…과연 언제까지

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75)가 현재 혼수상태에 빠져있으며 지난3월25일 타슈켄트 여행에서 비행기편으로 모스크바에 돌아왔을때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병원에 급송됐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은 브레즈네프의 이같은 상태가 비행기속에서일으킨 뇌일혈 때문인것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확인보도는 사실의 真否보다는 이러한 보도가 서방에 흘러나왔다는 사실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철저한장막이 처진 크렘린의 벽을뚫고 소련최고기밀에 해당하는 뉴스가 새어 나왔기때문이다.

지난2월 브레즈네프의 가장 강력한 後繼者로 지목되던 미하일·수슬로프가 사망한뒤 브레즈네프體制가 흔들리고 있다는 여러 추측보도가 나온데이어 그의 중태설이 떠돌고있다는것은 시기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서방측 소련전문가들은 이번 브레즈네프의 중태설이 브레즈네프의 후계자자리를 노리는 크렘린내의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보고있다.

브레즈네프의 병명도 그가 달고다니는 훈장만큼이나 다양하다. 우울신경병, 백혈병, 폐렴, 턱암, 심장병, 뇌일혈등등. 브레즈네프의 건강을 확인할수없는 서방언론들은 브레즈네프의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그의 연설중계등이 단축될경우 경쟁적으로 이러한추측보도를해왔다. 75세고령에 접어든 브레즈네프의 건강이 나쁜것만은 확실한것같다.

이번 브레즈네프의 중태설의 근거는 3가지이다. 29일 예정이었던 알리·낫세르·모하메드 南예멘대통령의 소련공식방문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금주중에열릴 예정이던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5월말로 연기된데다가 브레즈네프의 주치의 티아소프박사의 31일 예정이던 영국방문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사실등이다.

브레즈네프는 자신의 중태설이나 사망설이 보도된뒤 공식석상에 나타나 不死鳥같은 자신의 健在함을 과시하곤 해왔다.

이번 그의 중태설이 이전에 떠돌았던 여러 루머와 어떠한 연관이있는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며칠을 더 기다려봐야 확실해질것같다. 【李炳圭기자】

外信안테나

◆美에 殺人회오리바람… 7명死亡=美텍사스州 동북부지방의 패리스市(인구 2만3천)에 2일 살인적인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쳐 최소한 7명이죽고 1백여명이 부상했다고 당국이 발표했다. 경찰은『이 회오리바람으로 집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갔으며 차량들이 뒤집혔다』고 말했으며 한보안관은 최소한 7명이 한곳에서 몰사했다고 전했다. 【패리스=AP】

◆美실업률 戰後최고수준=지난3월 미국의 실업률은 2차대전이후 최고기록과 같은 9%에 도달했다고 美노동성이 2일 밝혔다. 美노동성의 노동통계국은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 지난3월 27만9천명의 실업자가 발생, 총9백90만명에 이르렀으며 이에따라 지난2월 8.8%에 달했던 실업률이 9%까지 올라갔다고밝혔다. 【워싱턴=AP】

◆日議員 2명 平壤방문=日自民黨의 구노·츄우지(久野忠治)의원과, 社會黨의 가쓰마다·세이이찌(勝間田清一)의원이 오는12일께 평양을 방문, 6월로 만료되는 日·北傀간민간어업협정연장문제를 협의할것으로 3일전해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오는15일의 金日成 70회생일기념식에 초청을 받은 이들의원들이 평양방문기회를 이용, 어업협정연장문제를 교섭하게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東京=聯】

海外토픽

바웬사 턱수염희끗

★계엄선포이후 계속 길러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39)가 계엄선포에 따라 억류된후부터 기르기 시작한 턱수염이 이젠 희끗하게 세었다고 부인 다누타여사가 전했다. 최근 남편이 연금된 정부별장에서 이틀간을 지내고 온 다누타여사는 「그러나 남편의 머리가 세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번에 처음으로 최근 태어난 딸을 선보였다고 전하고 남편의 턱수염이 깎아야 될것이라고. 【그다니스크=聯】

日패잔병 生存한듯

★괌島동굴에 生活한흔적

태평양상의 괌島산속에서 6개월~1년전까지 사람이 생활한 흔적이 있는 동굴이 발견돼 2차대전당시의 日本패잔병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현지의 日本영사관이 2일 후생성에 보고해온바에 의하면 최근 괌경찰및 美헌병대의 혼성수색대가 정글속에서 발견한 동굴속에는 대나무통과 야자나무섬유로만든 빗줄등이 많이 있어 6개월 내지 1년정도전까지 사람이 산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수색대는 작년 10월 이후 괌의 라·탕산(해발 4백5m) 속에서 머리털이 하반신까지 덮인 남자를 목격했다는 사냥꾼들의 신고에따라 산속을뒤졌었다. 【東京=聯】

毛澤東풍자극 製作

★中共서 곧上映 毛과오그려

지난60년대초반 당시 중공 주석 毛澤東을 공공연히 풍자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연극이 영화로 제작되어 곧 상영될 것이라고 월간지「중공영화」최신호에 따르면… 이 극이 상연되자 당시 毛澤東의 처 江靑은 심한 비난을 했으며 문화혁명이 시작되던 66년 호된 비판을 받았다고. 【北京=AP】

포클랜드群島 공격 과테말라政府 支持

【과테말라시티2日UPI=聯合】과테말라정부는 2일 英領식민지인 포클랜드섬에대한 아르헨티나軍의 공격을 지지했다. 과테말라는 작년9월 인접국인 벨리즈의 독립을둘러싼 영국과의 분쟁때문에 對英관계를 단절한바 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

메아리

봄 나그네

나그네의 봄이 제철을 맞았다. 싱그러운4월, 게다가 황금의 연휴까지 열렸다. 봄은 용수철처럼, 맑은 샘같이 솟구쳐 올랐다. 賞春의 설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暖冬탓으로 올핸 봄철관광의 열기가 일찍부터 달아 올랐다. 4·5월의 주말엔 벌써 전세버스가 동이 났다. 명승지나 휴양지는 이미 예약만원이라고 한다.

최근 몇년 사이 국내관광여행의 패턴이 달라져 가고 있다. 숙박관광보다 1일관광 즉 당일코스관광이 크게 늘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민의 7할이상이 한해 한번쯤은 여행길에 오른다.

이가운데 순수관광 참여자는 대도시인이 73.2%, 소도시 68.2%, 농촌은 67.4%에 달한다(국제관광공사조사). 관광붐이 쉽게 짐작이 간다. 관광의 목적은 대개 명승지구경과 스트레스 해소, 건강유지에 두고있다. 관광여행이 생활화된것이 확실하다.

당일코스 관광이 늘어난것은 通禁해제덕도 있는것 같다. 한밤중에 길을떠나 구경을하고 돌아올수있기 때문이다. 이 관광열이 주말에 몰리니 특정관광지는 법석을 떨수 밖에 없다. 不況속의 好況이란 말이 실감날만큼「혼잡의 賞春」이 예상된다.

인파의 혼란보다 걱정스러운것은 꽃바람을 타고 오는 관광지의 고질적 병폐다. 불친절과 바가지商魂, 억지 팁의 강요나 쇼핑에대한 불신감등…. 관광여행을 다녀온사람은 이런 낭패를 한번쯤 겪은 쓰디 쓴 추억이 남아있을줄 안다.

관광객들의 질서의식도 아직은 뿌리를 내렸다고 자신할수 없을 것이다. 行樂풍토가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개인중심에서 오는 탈선은 꼬리를 감추지못했다.

賞春은 함께 즐기는 봄이지 함께 겪는「고역」이 되어서는 안될줄 안다. 관광여행은 바른길로 가야 하겠다. 그래서 석가는 여행자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길을 갈때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가는것이 옳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가느니 혼자 가는 것이 좋다」

우리는 서로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선진시민의 모습일 것이다. 이 賞春의 4월엔 좀 더 어른스러운 시민의 얼굴을 대할수 있기를 희망한다.

美·日프로야구

美 내셔널리그 始球공은 宇宙船 탔던것

景氣침체로 入場수입 걱정

日팬 관심은 巨人팀의 強打者 하라에

1백년 전통의 美프로야구 메이저·리그, 50년 역사의 日本프로야구가 시즌 오픈된다.

4일상오(한국시간) 신시내티의 리버·프론트·스타디움에서 펼쳐질 내셔널·리그 개막경기에는 레즈와 시카고·컵스가 대결하며 이대전에 앞서 콜롬비아호 2차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여행때 가지고갔던 볼로 시구(始球)하게된다.

아메리칸·리그의 개막경기는 캔자스시티의 로열즈·스타디움에서 홈팀 로열즈와 볼티모어·오리올즈의 대결로 벌어진다.

금년시즌 메이저·리그의 초점은 左腕의 신예 발렌수엘라를 갖고있는 로스앤젤레스·다저스가 월드·시리즈의 2연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구단주 스타인브레너의 뉴욕·양키즈가 지난해의 역전패를 설욕하고 명예의 권위를 되찾을수있을 것인가에 집중되고있다. …

日本프로야구는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 6개팀씩 12개팀이 각각 1백30게임으로 리그 우승을 가리고, 전·후기 65게임씩의 승자끼리 5전3선승제의 리그우승시리즈를 갖는다. 메이저·리그처럼 10월중순에는 양리그 우승팀이 日本챔피언을 가리는 7전4선승제의 日本시리즈를 갖는다. …

美·日구단관계자들의 입장수입에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못하다. 세계경제의 침체때문이다. … 【韓□□기자】

江原마라톤 3천4백명 大레이스

朴明培20km 한국최고기록

88五輪대비「마라톤中興」열어

【春川=閔炳宇기자】88년서울올림픽에 대비, 한국마라톤의 中興을 다짐하는 봄꽃이 江原도에서 타올랐다. 강원도육상경기연맹은 3일 江原도청앞을 출발, 新北面을 왕복하는 20㎞ 코스에서 제1회마라톤대회를 갖고 마라톤 중흥의 발길을 힘차게 내디뎠다.

대회에는 5백36명이 출전, 남고20㎞ 단축마라톤서 朴明培(春川農高)는 1시간2분59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수립했다. 종전 한국기록은 鄭晩和가 79년에 세운 1시간3분55초였다.

강원도 육상경기연맹은 이대회를위해 시군단위로 유망신인선수 선발대회를 갖고 3천3백97명을 선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위군선발전 출전자격 테스트를한결과 536명이 선발되어 3일 대회를 열었다. …

覇者의 力走

1시간2분59초 朴明培(춘천농)

1시간2분59초

대표팀 再整備

킹스컵축구 出戰

3일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5월1일 방콕에서 개막되는 제15회 킹스컵국제축구대회에 대비, 국가대표선수를 17명으로 재정비했다. …

許丁茂「故國서 뛰고싶다」

和프로팀 最高선수

許선수는 本社와 國際전화서 밝혀

네덜란드프로축구 아인트호벤팀에서 주전링커로 맹활약하고있는 許丁茂(29)는 3일 본사와의 국제전화를 통해「한국에 프로축구리그가 탄생하여 그를 불러준다면 기꺼이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80년6월 아인트호벤과 연봉37만길더(1억1천8백40만원)로 유럽프로축구에 뛰어든 許는 현재 아인트호벤과 계약경신협상을 벌이고있다. 현계약은 오는6월말로 끝난다. 許는 연봉인상이 안되면 1년간만 계약을 연장하고 그후로는 이적료가 없는 선수로 처리해줄것을 팀에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許는 이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팀에 통고했다는것.

◇한국소식에 반색하는 許丁茂.

許선수와 一問一答

—한국에 프로축구팀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석유공사에서 팀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다. …

킹스컵아마복싱

한국 3명 準決에

【방콕2日=聯合】한국의 金光善(라이트플라이급)은 2일 방콕국립경기장에서 속행된 제8회 킹스컵 국제복싱대회 3일째 경기에서 泰國한만청의 치야·마타나논트를 일방적으로 공략, 판정승을 거두고 8강이 겨루는 準準결승전에진출했다.

이로써 한국은 총6명의 출전선수중 金光先·李南載(미들급)·洪起鎬(라이트헤비급)등 3명이 準準결승전에 나가게됐다.

金光善은 이날 1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강한 스트레이트와 훅을 구사하기 시작, 2회전에 라이트훅으로 마타나논트를 한차례 다운시킨후 3회전에서도 공세를늦추지 않고 좌우훅과 스트레이트를 날려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3일째전적

金光善 판정 마타나논트

(한국) (타이)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주식회사 황윤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 W

781-9122

Wilson / Eglinton / CHINA HOUSE / Bloor / Keele / Bathurst / Bayview

Grant Brown

쎄일즈 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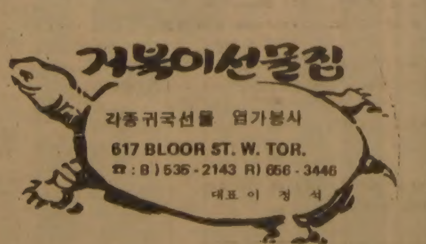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犯法者숨긴 敎會처사
국민들은 당혹했다

文富軾·金恩淑·金鉉奬의 자수와 敎會의 立場

釜山美文化院방화사건의범인 文富軾과 그의 일당이며 공범인 金恩淑, 그리고배후조종세력으로 지목된 金鉉奬이 그동안 수사당국의 눈을피해

국가보안법의 혐의를 받고있는 이들의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국민들은 교회와 犯法피의자의 은신, 성직자와 범인에대한 용인관계 및 교리의 성역(聖域)으로서의 한계등에관해 궁금해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 교계의 입장은 다르다. 교회가 하나의 聖域이라는 입장에서 犯法피의자의 피신요구를 들어주는것이 종교윤리적측면에서 범법이 될수없다고 가톨릭교회법은 규정하고있기도한것이다.

천주교교직자들에 의하면 성직자의 경우 실정법에 앞서 양심법과 가톨릭교회법에 의해 누구나 도움을 청하면

◇崔鏞錄신부

告發·동시희생땐 公益우선

"「告白성사」는 목숨보다 重要"

敎會의 立場에도 限界있다

【朴珍鎬기자】

聖職者의 윤리성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聖所 中世紀처럼 治外法權아니다"

"善惡구별없이 도와주는건宗敎정신"

"危難때의인간 保護…犯罪者는곤란"

무슨일이든 스튜어디스에 물어라

알뜰 해외여행 ⑧ —初行者를 위한 가이드

글래머型 西歐미인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낭만적」인 일이다. 비행기 여행이 잦은 歐美人들이야 덜 그렇겠지만 해외에 처음 나가는 경우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비행기를 탄다는 사실이 바로「미지의 世界」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트랩을 올라서기가 바쁘게 상냥한 미소로 맞아주는 스튜어디스들이 있어「여행」은 처음부터 가슴을 설레게 한다. 남자 승객이 외국 비행기를 탔을 때 영화에서나 본듯한 글래머형 西歐 미인들이 다가오면 그 기분이 어떨까.

그러나 스튜어디스를 눈요기감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스튜어디스는 각종 기내서비스를 해주고 안락한 여행을 하게끔 배려해주는 비행기의 안방마님인 것이다. 따라서 기내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 기내를 떠날 때까지 스튜어디스가 베푸는 서비스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장거리 여행일수록 더욱 그렇다.

51년전인 1931년에 여객기에 처음 스튜어디스를 태웠다. 그뒤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들을 앞세운 애교싸움은 날이갈수록 치열해져 현재 전세계 약 4백개의 항공사가 20만명의 스튜어디스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있다.

최초의 스튜어디스는 비행기 멀미나 치료해주는 간호원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민간항공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기나면서 어느새 여성적매력이 기내를 슬그머니 점령한것. 지금은 세계의 유수한 항공사는 이 이같은 美人計로 승객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고있다. 실례로 서양의 어느 항공사는 PR광고에 유니폼을 입은 모델스튜어디스를 멋있게 박아놓고「플라이·미」(FLY ME)라는문구까지지워넣어묘한 암시까지 던지는상술을부리고 있다. 쉽게말해스튜어디스가하는일은 대가족의 가정주부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 좌석안내, 기내식서비스, 우는애 달래기, 화장실점검, 자는승객에 담요덮어주기, 병든 승객간호, 노약자 간호등… 모두가 자질구레한 일이다. 그렇지만 외형은 그럴듯하기 짝이없다.

스튜어디스는 구름위의 직업, 그래서「꿈의 직업」이라고 불린다. 한국에서도 스튜어디스를 뽑는다면 유수한 여대를 나온아가씨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게 지금까지의 전통이었다.

KAL에만 8백여명

국내유일의항공사KAL에만 8백여명의스튜어디스가있다. 이들중70명정도는대만·홍콩·태국·필리핀·일본인등현지고용승무원(LOCAL)들이다.

또 한국인이 CPA NW등 외국항공사의 여승무원으로 일하는 숫자도 1백20명 남짓된다. 스튜어디스가 많기로는 英國항공(BA)의 5천명. 그러나 세계최대의 항공사인 아이로프트(소련항공)엔 못미친다는 얘기도 있다.

스튜어디스라면 우리네 귀엔 젊은 미혼여성으로만 들린다. 그러나 세계의 추세는 스튜어디스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게 특징. 60년대초만해도 구미에서는 시집가기전 한두해 해보는 직업으로 인식되었으나 70년대 들어 스튜어디스는 본격적인 여성직업으로 변했다. 미국의 경우는 30대이상되는 아주머니가 50%를 넘고 NWA에는 환갑을 지낸 할머니스튜어디스가무려30명이나될정도다. 보기에는발랄하고 젊고 풋풋한 스튜어디스가 좋지만 서비스를 받는데는 노련한 아주머니들이그만이라는게세평。승객다루기를 어린애다루듯하는 자상한면이 돋보인다는것이다.

내노라하는 항공사들이 기를쓰고 내세우는 스튜어디스들. 대체 어느나라 스튜어디스가최고일까. 기내에서 비행기요금이나 거둬가는 미국의 셔틀항공기를 제외하면 모두가 자기네 항공사스튜어디스가 제일이라고이구동성으로말할것이다.

에어·프랑스의 화사한미소, 일본항공의 사근사근한인사성, 스칸디나비아항공의 육감적인 금발미녀등 항공사마다 승객들로부터 얻어낸 나름대로의 명성을 갖고있다.

그러나 동·서양사람들로부터 동시에 서비스가 좋다고 찬사를받는비행기는싱가포르항공이다. 몸에밴 친절·남방계 특유의 관능미·국선미를 최대로 살린 유니폼사롱·카바야(프랑스디자이너 피에르·발맹이 디자인)등이 세계의 승객을 끌기에 손색이없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음료수를 제공하는 스튜어디스의 유니폼 깃에 묻어있는 휴지조각을 보고 어느 승객이 떼어주려고 손을 내밀었다. 이럴때 KAL스튜어디스는 후다닥 일어서며손으로 가슴을 막고 눈을 동그랗게 뜬다.『감사합니다』하고가볍게웃으며일어서 손수휴지를 털어내고 다시 승객에게서비스를 계속한다. 그러나싱가포르항공의스튜어디스는몸을더수그리며승객의 호의를기꺼이받아들인다는것. 소련의 아이로프트는 스튜어디스가 무뚝뚝하기로 악명이 높다. 잠자는 승객을 깨워『30분후에 기내식이 있는데 자면 어떡하냐』고 짜증을 내기일쑤라는것.

古參은 1等 객실에

기내에서의 스튜어디스는 철저한 위계질서속에 산다. KAL의경우 1등객실 서비스는 4~5년경력의 고참만이 전담하고 초년병은 뒷객실에서 근무한다. 비행기타는 승객에게 인사하는 것도 초년병들.

機內의 안방마님 役割

화려해 보이지만 激務에 직업병도

◇中華항공(CAL)의 승무원과 스튜어디스들이 金浦에 도착한뒤 잠시 휴식하는 모습을 스냅한것。요즘은 각국의 경쟁이 심해 스튜어디스들의 「친절경쟁」도 치열해졌다.

流星의 賦 <35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孤獨한 英雄 ⑤

明暗 ⑫

金光培 畵 朴婉緒 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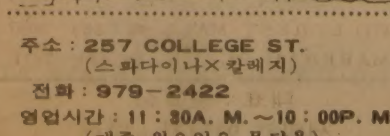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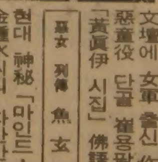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 진미의 해산물 요리
● 국수, 야채전문
●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
절찬리에 판매중인 주간 여성지
새 가격 $ 2.50
4 월 4 일자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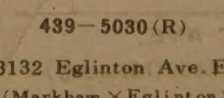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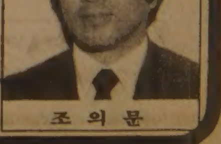
*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 품질보장
*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퀸)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犯人「은신처」波紋

崔基植·李炳敦신부 召喚조사키로

庇護드러나면 刑事처벌

文富軾·金鉉奬등 은신·自首경위조사

정부는 3일 부산 美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 文富軾(23)과 文의 배후조종자 金鉉奬(32)등 주요 반국가및 반사회범들이 일부 신부들에 의해 장기간 비호됐거나 은닉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들 중시, 범인들의 은신경위와 비호, 자수경위등을 조사해 범인은닉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등 강경대책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崔基植신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文과 金이 강원原州의 천주교교육원에서, 충남公州사대 용공서클 「금강회」 사건의 수배자 李相彦(23)이 충북堤川의 신부집에서 각각 장기간 은신해있다가 수사기관에 뒤늦게 자수검거됐기때문에 검토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金이 지난80년5월 光州사태이후 全州교구청 鎭安천주교회등을거쳐 原州교구 교육원에 도착, 崔基植신부에게 은신처를 요청했고 2일 검거될때까지 2년여동안 崔신부의 비호아래 무사히지내왔음을 중시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교회의특수성을 감안해왔으나 최근 좌경의식화범들에 의한 범죄형태가 파괴와 반미노선을 표방하는등 국기를 흔드는 극한상황으로 치닫고있고 지하에서 용공불순세력으로 성장되고있어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신분을 가리지않고 엄정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의 지하활동이 그들자신에 그치지않고 일부대학생등 젊은이들에게까지 파급되고있어 강경방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따라 가톨릭原州교구의 崔基植신부와 長省의 李炳敦신부를 금명간 소환, 주요수배범들에대한 은닉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李鎬喆 釜山에압송 放火관련여부 조사

【釜山】 釜山 美문화원사건 관련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중 지난30일 서울에서 검거된 李鎬喆(21)이 2일자정 釜山으로 압송돼 왔다。

경찰은 이를 모처에 감금시켜놓고 문화원방화사건에 가담했으리라는 혐의로 알려져 신병이 확보된 金和石(24·釜山大제적생)과 대질시키는등 이사건과의 관련여부를 추궁중이다。

한편 경찰은 李鎬喆이 부산으로 압송됨에따라 이와함께 釜山대학교 소요사건과 관련됐던 吳興民군(22·釜山공대 4년 휴학), 과 소경혜양(23·K국교 교사)의 신병을 확보, 李를 감금, 방화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韓寅(22·釜山大 약대3년), 「흙」 스터디를 해온 유동현(23·釜山大 경제과 3년) 박숙희(20·釜山大 사회계열1년) 김동현(22·釜山大 경제과3년) 정정현(釜山大)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는데 이들은 지난80년 9월부터 81년3월초까지 東萊區 長箭3洞628의82 유등현의 집에모여 지하서를탐독을 해왔다는것이다。

文富軾등 은닉혐의 書店여주인 풀려나

【原州】 부산美문화원방화사건주범과의 관련혐의로 수사당국에 한때 연행됐던 原州市 치악산서점 주인 김영애씨(26)는 3일상오11시 수사기관에 나가 문부식등과의 관련여부를 조사받았으나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 조사를 끝내고 나왔다。

金양은 지난2일 수사기관에 연행됐었는데 文富軾과 金恩淑등을 숨겨준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다。【원】

放火사건 提報者등 시민34명에 表彰狀

【釜山】 부산 中部경찰서는 3일상오10시 서장실에서 美...

"金鉉奬 은신寄居 몰랐다"

池學淳주교 "엄청난결과에 驚愕…國民이해를"

崔基植신부 "찾아온자의 苦惱 수용한것…괴로왔다"

◇池學淳주교

【原州=方政俊·金宗來기자】 文富軾과 金鉉奬이 숨어있던 原州가톨릭 교육원은 시내에서도 비교적 변두리인 鳳山2洞955에 자리잡고있다。 방화범들이 검거된뒤 이들原州시내 천주교 관계기관들은 모두 문을 걸어잠근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있다。

3일하오3시께는외국인신부와 한국인신부등 2명이 찾아와 池學淳주교와 얘기를 나눈뒤 돌아갔는데 이들을 배웅하러나온 池주교는 기자와만난자리에서 金鉉奬이 은신했다가 검거된데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유감스런일』이라고 말하고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성직자 본래의 임무를 수행한것이 엄청난 사건의배후인물을 도피시킨 결과로나타난데 대해 온국민에게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池주교는 다소 침통한 표정의 池주교는 『나로서는 성직자입장이나 천주교교리상 이번사건과같은 방화·살인등의 파괴적 폭력적인 방법을 인정할수도없고 찬성할수도 없다』고 소신을 밝히고 『金鉉奬이 교육원에 기거해온것도 2일하오1시 崔신부의 보고를받고 처음 알았다』고말했다。

한편 文과 金이 은거해있던 가톨릭교육원은 교구마다 신도와 일반인에대한 종교교육을위해 설치된기구로 崔基植신부가 원장으로 일하고있다。 담도없이3백여평의대지에 1백여평짜리 2층콘크리트건물로 지어진 교육원은 농번기를 제외, 수시로 50~60명이 2박3일 또는 3박4일 일정으로 종교교육을받고 있는데 최근엔 지난1일 50여명의 신도들이 교육을마치고 나갔고 3일하오 50여명의 신도들이 교육을 받기위해 들어왔다。

이 교육원에는 일반신도뿐만 아니라 중·고·대학생들도 들어와 교육을 받는데 매일 오갈데없는 사람들이40~50명씩 찾아와 그중일부가잠을자고 나가기도 한다는것。

金鉉奬도 이같은 형식으로 지난80년 5월말께 교육원을 찾아와 검거되기까지 기거해왔다는것。

金鉉奬은 이곳에서 강사로 일해왔는데 교육원에는 고정강사는 없고 교육대상자에따라 그때그때 신부들이 강사를 맡으며 때로는 일반강사 자격으로 일했다。

한편 文富軾과 金恩淑은 지난달29일原州에와金鉉奬과 접선을위해 原州市園洞5 치악산서점주인 金영애씨(27·여)를만나 이곳에서 1박한뒤 30일 김영애씨를 통해 金鉉奬과 연결, 교육원에 잠입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崔신부는 이날 문을 잠근채 은거하고있다。 기자의 요청으로 10여분간 얘기를나누었는데 『교육원을 찾아오는 사람의 고뇌를 수용해야하는 한 사제의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많은사람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했다。

수배중인 柳承烈친구 李모君도 행방감취 경찰追跡

【釜山】 부산美문화원방화및 불온비라살포사건을수사중인 경찰은 4일 유나백화점비라살포범으로 수배중인 釜山대학생 柳承烈(21)과함께 행방을 감춘 柳군의 친구 李모군(21)이 이사건에 관련됐을것으로보고 李군의행방을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李군은 지난 2일 柳군에게서 柳군이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행방을 감춰 못만나자 이날 10여차례 柳군집에 전화를 걸어 왔으며 평소 崔군과 柳군과 함께 행동해왔다는것。【원】

숙박업소 豫約러시

慶州, 하루平均 3개校 수학여행

【慶州】 오는 6일부터 서울惠光여고 9백40명과 예일여고 5백99명을 비롯, 오는5월말까지 예약된 수학여행단은 1백20개학교나 되는데 慶州시내(佛國寺지역포함) 수학여행단전용여관 50개소의 1일평균 수용능력은 2만여명이다。

수학여행단의 숙박요금은 1박3식에 고교생 3천9백원 중학생3천7백원 국교생 3천5백원으로 책정했다。【원】

어제 豫備軍의날 創設 14주년기념

창설14주년을 맞는 예비군의날 (4월 첫토요일)기념행사가 3일 상오 전국의 각 직장예비군부대별로 열렸다。

채취선 뒤집혀 어부1명 失踪

【光州】 2일하오 1시께 전남莞島郡金日面長園里7(8)앞바다에서 林福길씨(40·莞島郡金日邑七里島2)와 林씨의장남 光煥씨(22)부자가 0.5톤급 무동력채취선을타고 고기잡이하다 채취선이 침몰, 林씨는 실종되고 아들光煥씨는 헤엄쳐살아났다。

이들부자는 이날상오 11시께 채취선을타고 인근해상으로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에휩쓸려 채취선이 갑자기 침몰되는 변을 당했는데 아들 光煥씨는 2백여m의 해상을 헤엄쳐 살아났다。【원】

松月타월 前대표 不渡남발로 拘束

【光州】 전남光州경찰서는 3...

코치꾸중…필드하키中學선수 5명

집단가출·旅人宿 「합숙」

麗水서 1週…집에

【麗水】 운동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집단가출한 서울 모중학교 필드하키선수5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Y중 필드하키 선수들로 지난달25일 서울龍山고등학교에서 열린 소년체전 서울시예선대회에 출전, 서울Y중학교2년 이모(16·서울銅雀區鷺梁津1洞)등 5명을 麗水시내 고급여인숙에서 장박, 취식했다。

沿岸에 오징어豊漁 蔚珍 지난下旬부터

【蔚珍】 경북 蔚珍郡관내 연안일대에서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 2년동안 흉어에시달리던 어민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3일 蔚珍수산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부터 군내 遠南面오산리 범인어촌계 전마어선에서 갈오징어가 잡혀 이날현재 2만9천kg을 수확, 위판에 kg당 평균 1천 18원씩 노두 3천여만원의 이익을 올렸다는것。

武裝警官에 폭행 전과자2명 拘束

【慶州】 慶州경찰서는 2일 폭력및 절도 전과 15범인 李상호씨(3?·慶州시黃城洞)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1억여원 不正대출

企銀大邱지점 3개업체에 書類조작

行員2명 令狀

【大邱】 大邱시경은 3일실제 매출실적이 낮은것을 높은것처럼 관계대출서류를 허위로조작, 3개기업체에 1억1천만원을 부정대출해준 중소기업은행 대구東城路지점 대부대리 崔相必씨(27) 대부계행원 李在汝씨(26)등 2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대리와 행원李씨는 작년7월22일 81년도 중소기업 특별자금을대출하면서 이자금대출요건에 따라 업체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년도 매출실적을 반드시 확인한뒤 적정대출액을 산출,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 大邱市東區 校村洞 동신섬유공업사대표 任銀熙씨(59)에게 실제 매출실적이 3천4백62만여원에 불과, 이기준으로는 5백97만원밖에 대출이 안되자 매출실적을 4억2천8백26만원으로 허위로 기재, 임씨에게 3천만원을 부정대출해주었다는것이다。

이들은 또 大邱市西區內唐洞 두성염사대표 金泰宗씨(42)와 大邱市北區 태양섬유공업사대표 金씨에게 3천만원을, 한영기계대표 김씨에게...

새벽틈타

忠武 소형어선 1백여척 不正어획물 몰래팔아

【忠武】 忠武市西湖洞일대에서 하루 50~1백척의 소형어선들이 새벽 야음을틈타 부정어획물을 공공연하게 시판하고 있어 당국의대책이 요청되고있다。

3일 忠武수산협동조합에 따르면 수협西湖위판장 앞에 있는해안에는 매일 새벽3시께부터 6시까지 10톤안팎의 소형어선들이 몰려와 3중망과 저인망등 불법어구로 잡아들인 부정어획물을 팔아넘기고 있어 어자원보호에 큰위협이 되고있다는 것。

어민들이 이같은 불법어구로 잡아들이는 어획물은 도미·도다리·볼락어등 10cm도 자라지않은 치어와 새끼게로 각종어패류의 서식처가 되고있는 鎭海·巨濟·統營灣을 비롯한 남해안의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시내東湖동 수산위판장을통해 판매하고있어 수산물유통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있으며 불법어획물의 위판및 중판매고는 하루 수협西湖지소 위판액 7백만~8백만원과 비슷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市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도선이 없어 육상단속을 펴왔는데다 어민교육등 단속이 소홀했음을 시인하고 統營군관계자와 일제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원】

강릉鑛業所매몰 鑛夫屍2具발굴

【江陵】 강원도溟州郡江東面正東津里 강릉광업소소속 3구덩대3항 매몰사고 구조대는 사고발생25시간만인 2일밤 11시40분께 지하50m 붕락지점에서 숨진광부 윤종환씨(42·太白市黃池2洞8반)와 김혁기군(18·溟州郡江東面正東津里)의 시체를 발굴, 인양했다。

蔚山市 건축직 공무원부족

15년전定員8명, 그나마 결원3명

【蔚山】 인구50만명인 蔚山市의 건축직공무원이 15년전의 정원인 8명그대로인데다 그나마 3명이 결원, 현재 5명밖에 없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있다。

3일 市에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蔚山市가 내준 건축허가건수는 단독주택 7백20건, 병용주택 3백85건, 용도변경 3백76건, 증·개축 1백24건, 공작물설치 28건등 모두 1천6백33건으로 하루평균 5.1건꼴이다。

이때문에 5명의 직원들이 휴일에도 출근, 현장확인과 서류검토등을 하고있지만 ... 【원】

安東市 학교圖書館 完工5년안돼 비새

【安東】 학생도서관에 비가 새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安東市교육청은 지난77년9월 5천4백여만원을 들여 安東市當北洞307 대지 4백63평에 2층짜리 학생도서관(연건평3백53평)을 착공, 그해11월 완공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된지 5년만에 2층복도천장에 길이 1~2m 폭1cm정도의 틈이 5개소에 생겨 비가오면 이새 1층복도까지 물이괴고 있다는것。【원】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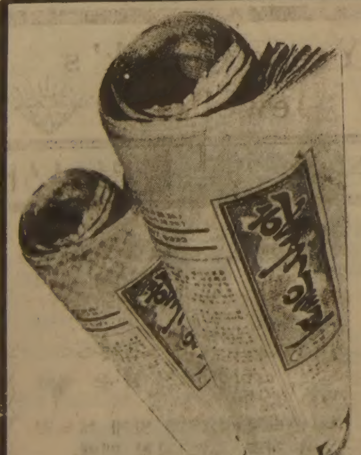
HAPPY TIME

"쿠키야, 날씨가 쌀쌀하구나…스웨터를 갖고 가거라" "어머니, 저도 이젠다 큰 처녀예요!" "저 혼자서도 생각해서 해나갈수 있단말예요!" "우산도 가져가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캐나다사회를 아는 지름길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
가지신 분 ——
"한 국 일 보"
(THE KOREA TIMES TORONTO) 를
잊지 마십시요.
주6일 발행(금·토요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 월 $9, 6개월 $50, 연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 화 : (416)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주소 APT.
도시 주
우편번호 전화
크레딧·카드 넘버 : VISA 매스터·카드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일요일에 가게 캐쉬어 하실분
(유경험자 원함) 미씨사가 지역
전화 : 828-0242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Baby Sitter (베이비 시터) 구함
전화 : 638-6380, 598-2210 Mr. 김

한국음식(밑반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연락바랍니다.
Full Time과 Part Time 가능
전화 : 749-0579

맥스 밀크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Full Time 매니져 혹은 가게를
맡아서 하실분 구함. 스카브로지역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281-5730

매니저 구함
1174 Morning Side Ave, Scarboro. (세파드 × 모닝사이드)
흥미계신분 내방 바랍니다.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구 혼

독신남, 대졸, 해군장교예편, 신장 175cm
체중 70kg, 재산있고 회사 중견사원역임.
독신녀(미혼 혹은 이혼녀) 원함, 기독교인이거나
앞으로 기독교를 믿으실분, 사진, 이력서 동봉.
연락처: 955 WARWICK CRT. #402,
(BURLINGTON, ONT. MR. LEE)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2베드룸 포함한 건물 팝니다. Four Unit, Commercial(Two Unit Rent 하였음). 번화한 지역으로 오타와에서 35Mile 서쪽.(Arnprior).
가격 : $135,000 Mortgage : 12¼%
전화 : 1-613-623-6896 (월~토)

가게 급매(4 베드룸 전물포함)
주매상 : $3,500~$4,500
가격 :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 1-383-8232

★코너에 위치한 상업,가정집 포함한 드라이크리닝 사업, 13% 몰기지.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드라이크리닝에 필요한 일절 장비 팔고자 함.
중앙지역.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Call, Tony ☎ : 751-1947 7 a.m.-7 p.m.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월~토 (9시 a.m.~ 9시 p.m) 꼭히 관심있는 분의 연락바람.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생선가게 팝니다. (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바쁜지역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300
리 스 : 10 Years
Call : Cliff or Joe for appointment
전 화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1981년형 16 Feet Fish Master Boat, Almost New, 최신장비 일절 갖춤, 아스킹: $6,500 꼭히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전화: 270-1981(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크레딧•카드를 使用 하세요.

한국일보의 広告料金 및 購読料는 여러분의 便利上 VISA 나 MASTER CHARGE를 利用할 수 있읍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구독신청(월~토)
☎ : 533-2361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촌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헌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열)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 성)
전화:633-7892(R)497-8900(B)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김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8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6093 Yonge St. (잉 × 쿼시)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웅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자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전화 : 281-1677 이 영 화 (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11 Dawson Ave, Tor.Ont. 전화 : 463-8998

불 광 사
288 Hownslow Ave. 전화 : 223-9152

신 현 사
46 Gwynne Ave. 전화 : 532-3491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전화 : 535-7772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무 지 개 칼 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 : 863-0589, ☎ :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식 당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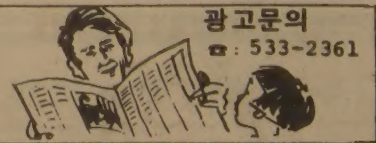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냉면, 순남,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W.(2nd Fl.) Tor.Ont. M6G 1L1
☎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8-9018,
: 366-0960(B) 임 태 호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라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분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제 환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타·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 종합회계사무소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 A Bloor W. ☎ : 533-7353(B)

신명숙 회계사무소
481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illegible]인드
2338 LAKESHORE BLVD.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Jamestown)박영숙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전화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 한국일보 안내광고 *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1982 MISS KOREA

미스KOREA선발대회

●후라이보이 곽규석

원맨쇼의 제1인자
익살과 재치의 명사회

●만능연예인 피세영

연극배우·성우·디스크자키

특별출연!!

이숙

●인기절정의 가수

달콤한 멜로디
향수어린 정서

서유미

●히트송"눈이내리네"

71년도 한국가요 신인가수상 수상
뉴욕연예계서 활약중인 육체파 가수

상품기증

- ㅇ. 로렉스 여자용손목시계(은하보석상)
- ㅇ. 진주목걸이, 진주반지, 진주귀걸이(14K Gold)
  고급화장품 3셋트(미도파)
- ㅇ. 고급여자용 썬글라스2개(불란서제) (불루아안경점)
- ㅇ. 녹용($150상당), (동양한약상사)
- ㅇ. 금일봉 $150 (제일여행사)
- ㅇ. 홈·셋트($100 상당)(불루아 하드웨어)
- ㅇ. Webster 사전 (3권) (신용목)
- ㅇ. 고급벽시계(김종조 종합보험)
- ㅇ. 금일봉 ($100) (황재필)
- ㅇ. 참가자 전원에게 꽃다발(코리아타운 번영회)
- ㅇ. 20" Panasonic Color TV 1대 (아카데미 TV및 파나소닉사제공)
- ㅇ. 이태리안 3 Colour 금목걸이 (Young-Sook's Jewellery)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가신청서

1. 성 명:
2. 주 소:
3. 전 화:
4. 생년월일:
5. 특 기:
6. 학 력(최종학교명):
7. 직 업:
8. 신 장: 인치
   체 중: LBS.
   바스트: 인치
   웨이스트: 인치
   히 프: 인치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7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일시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 시청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국일보사